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제주도 무가〔巫歌〕를 활용한  
품물놀이 지도방안 연구

장정주

2016



석 사 학 위 논 문

제주도 무가(巫歌)를 활용한 풍물놀이  
지도 방안 연구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Pungmul-nori Utilizing Jeju Island's Shaman Songs  
A Research on Guidance Method  
(With Elementary Schools as the Center)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음악교육전공

장 정 주

2017년 2월







석 사 학 위 논 문

제주도 무가(巫歌)를 활용한 풍물놀이  
지도 방안 연구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Pungmul-nori Utilizing Jeju Island's Shaman Songs  
A Research on Guidance Method  
(With Elementary Schools as the Center)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음악교육전공

장 정 주

2017년 2월

제주도 무가(巫歌)를 활용한 풍물놀이  
지도 방안 연구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Pungmul-nori Utilizing Jeju Island's Shaman Songs  
A Research on Guidance Method  
(With Elementary Schools as the Center)

지도교수 조 영 배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음악교육전공

장 정 주

2016년 11월

장 정 주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6년 12월

# 목 차

국문 초록 .....	i
<b>I. 서론</b>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선행연구의 검토 .....	2
3. 연구 대상과 방법 .....	9
4. 연구의 제한점 .....	10
<b>II. 풍물놀이의 개요</b> .....	11
1. 풍물놀이의 유래 및 특징 .....	11
2. 풍물놀이와 사물놀이의 차이점 .....	14
3. 풍물놀이의 지역적 분포 및 특성 .....	15
4. 제주도 풍물놀이의 연행배경 및 특성 .....	20
5. 제주도 풍물놀이(걸궁)의 실제 .....	21
<b>III.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의 개요</b> .....	24
1.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의 유래 및 특징 .....	24
2.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의 교육적 활용 방법과 당위성 .....	24
3.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의 제차 형식(第次儀式) .....	27
4. 제주도 굿에 사용된 악기 .....	32

IV. 제주 무가를 활용한 풍물놀이 지도 방안의 실제 .....	39
1. 국가무형문화재를 활용한 풍물놀이 지도 내용 선정 .....	39
2. 풍물놀이와 접목 가능한 제주 무가와 연물 장단 선정 .....	40
3. 풍물놀이 동아리의 조직과 악기의 이해 .....	40
4. 제주 무가를 활용한 풍물놀이 지도 방안 구안 .....	45
V. 결론 및 제언 .....	105
참고 문헌 .....	107
ABSTRACT .....	110

## 표 목 차

〈표 II-1〉 풍물과 사물놀이 비교 .....	14
〈표 II-2〉 풍물놀이의 구분 .....	15
〈표 II-3〉 문화재 지정 농악 목록 .....	19
〈표 III-1〉 제주도 곳에 사용된 악기 .....	38
〈표 IV-1〉 풍물놀이 동아리의 규칙의 예 .....	42
〈표 IV-2〉 팽과리의 구음 및 연주법 .....	43
〈표 IV-3〉 징의 구음 및 연주법 .....	43
〈표 IV-4〉 장구의 구음 및 연주법 .....	44
〈표 IV-5〉 북의 구음 및 연주법 .....	44
〈표 IV-6〉 삼채장단의 지도방법 .....	46
〈표 IV-7〉 일채 장단의 지도방법 .....	49
〈표 IV-8〉 새드림의 지도방법 .....	51
〈표 IV-9〉 된삼채 장단의 지도방법 .....	54
〈표 IV-10〉 휘모리장단의 지도방법 .....	58
〈표 IV-11〉 인사장단의 지도방법 .....	61
〈표 IV-12〉 입장굿(징~딱)장단의 지도방법 .....	63
〈표 IV-13〉 이채 장단의 지도방법 .....	66
〈표 IV-14〉 풍류굿 장단의 지도방법 .....	69
〈표 IV-15〉 양산도장단의 지도방법 .....	73
〈표 IV-16〉 좌우치기 장단의 지도방법 .....	76
〈표 IV-17〉 오방진장단의 지도방법 .....	78

〈표 IV-18〉 진오방진 장단의 지도방법 .....	81
〈표 IV-19〉 푸다시 무가와 장단의 지도방법 .....	86
〈표 IV-20〉 싸잡이 장단의 지도방법 .....	89
〈표 IV-21〉 덩덕쿵 장단의 지도방법 .....	92
〈표 IV-22〉 별달거리 장단의 지도방법 .....	94
〈표 IV-23〉 매도지 장단의 지도방법 .....	98
〈표 IV-24〉 구정놀이의 지도방법 .....	100
〈표 IV-25〉 삼채 퇴장 구현 장면 .....	104



## 국 문 초 록

# 제주도 무가(巫歌)를 활용한 풍물놀이 지도 방안 연구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 장 정 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음악교육전공  
지도교수 조 영 배

2014년 11월 27일 반가운 소식이 들렸다. 우리나라 농악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9차 무형유산위원회 회의에서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가 확정되었다는 소식이었다. 그 이면에는 우리나라 전통문화의 대표적인 풍물놀이<sup>1)</sup>가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았고, 앞으로도 보존해야 할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학교현장에서도 우리의 전통문화를 보존·계승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이 펼쳐지고 있지만, 유네스코에 등재된 가치만큼이나 과거에 비해 좀 더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

1) 국립국악원과 국악교육협회의 「초·중등 국악교육 내용 통일안(I)」(1994)에서 여러 가지로 불리는 농악을 ‘풍물놀이’ 칭하기로 결정하였고, 초등학교 일선현장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어이기에 본 연구에서도 농악을 풍물놀이로 칭하여 부르기로 한다.

본 논문은 풍물놀이 문화재가 특별히 존재하지 않는 지역에서의 풍물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라는 근본적인 질문에서부터 출발했다. 물론 지역에 원형이 잘 보존된 무형 문화재가 남아 있다면 그 지역의 문화재를 잘 보존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면 될 터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나라 전통음악인 풍물놀이를 더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을 새로이 모색하는 것이 옳은 일일 것이다.

특히나 예술교육의 중요성이 가장 부각되는 초등학교 현장에서의 풍물놀이의 지역화 방법을 고민하고 현장에서 가장 현실성 있는 지도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학생의 수준을 고려하고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가장 적합한 풍물놀이 지도 방법을 모색하고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지역에 남아있는 전통음악이나 민속 문화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고 접목 가능한 제재를 선정하는 것이다.

둘째, 각 지역의 대표적인 풍물놀이 관련 문화재를 살펴보고 초등학생에게 가장 적합하고 풍물놀이 본연의 맛을 살릴 수 있는 장단을 선정하는 것이다.

셋째, 위의 과정을 통해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풍물놀이 지도 방안을 마련하고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재구성하여 학교 현장에서 우리 조상의 얼과 정신을 이을 수 있는 유의미한 교육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어렸을 적 경험은 평생 간다.”는 말을 자주 한곤 한다. 그만큼 어렸을 적 경험은 우리 아이들이 커서도 잊을 수 없는 추억이나 소중한 기억으로 남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우리 문화를 보존·계승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소 부족한 점이 많은 연구지만 학교 현장에서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풍물놀이나 우리 전통음악을 지도하려 고민하는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주요어 : 제주도 무가, 풍물놀이 지도방안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14년 우리나라 ‘농악’은 유네스코 인류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통해 우리만의 문화유산을 벗어나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고, 앞으로 체계적인 계승과 보전이 그 과제로 남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우리 문화를 세계화하고 보편화하기 위해서는 문화 예술 분야뿐만 아니라 교육 분야에서도 다양한 시도와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문화의 독특함과 우수성은 살리되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인정할 수 있는 보편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느낄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단숨에 전 세계가 즐거워하고 흥을 느낄 수 있으며, 때로는 슬프지만 감동적인 문화 예술을 선보인다는 것은 실로 매우 어려운 일일 것이다. 가장 작은 곳에서부터 그 공감을 얻어 나가기 위한 노력들이 선행되어야 가능할 것인데, 필자는 그 가장 작은 단위를 교육현장, 즉 학교에서 답을 찾고, 그 학교가 속한 지역사회에서 실마리를 찾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교육현장에서 우리의 전통문화를 가르치고 학습하는 여러 분야 중 우리 음악이라 할 수 있는 국악, 그리고 더 좁게 우리의 민속음악 중의 하나인 풍물놀이에 국한하고자 한다. 소수 지도층 몇몇의 향유물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의 문화 중 하나였던 풍물놀이가 연희되었던 배경과 그 의미를 짚어보고, 21세기를 살아가는 학생들을 위한 학교 현장에서의 풍물놀이 교육은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해야 옳은 것인가에 대한 스스로의 질문에 답을 얻는 과정으로 삼고자 한다.

필자가 현재 생활하는 제주를 과거 농업보다는 어업을 기반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사회였으며, 과거 사람들은 척박한 땅과 성난 파도와 같은 험한 자연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가고자 수많은 신들에 의지하는 삶을 살았던 곳이다. 신들을 불러 모셔 놓고 춤과 노래를 부르며 굿판을 벌이고 가정과 마을의 안녕과 평화, 풍요를 기원 하였던 무속신앙은 아직 제주 곳곳에 남아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주 문화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무속 신앙 중에 국가 중요 문화재 제71호이자 2009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을 활용한 초등학교에서의 풍물놀이 지도방안에 대해 고민해보고, 여러 교육적 활용방안과 지역문화의 계승·보전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선행 연구의 검토

제주도 무가를 활용한 풍물놀이 지도 방안 연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관련 주제의 선행 연구를 살펴보고 연구의 기초로 삼고자 한다. 먼저 풍물놀이 지도방안을 살펴보고자 ‘농악’, ‘풍물굿’, ‘풍물놀이’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았으며, 풍물놀이와 접목하고자 하는 지역 문화 중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과 ‘제주도 무가’와 관련한 연구 주제를 살펴보았다.

그동안 농악에 관한 연구는 지역별로 많은 성과와 연구들이 선행되어 있었다. ‘농악’과 ‘풍물굿’의 주제 자체를 연구한 성과물이 다수 있었으며, 지역별 농악이나 풍물굿을 이용한 학교에서의 활용방안이나 지도방안도 많았다. 그리고 풍물놀이를 통한 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논문들도 다수 존재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별로 많이 존재하는 풍물놀이 문화재 중 필자가 직접 겪어보거나 지역별로 국가가 지정해 놓은 국가지정중요무형문화재를 중심으로 그 지도방안을 구성하려고 하였기에 그 주제를 한정하여 선행연구를 조사하였다.

먼저 풍물놀이 본연의 주제를 연구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권은영(2008), 이중수(2015), 이영배(2006), 시지은(2013), 황삼열(2006), 박정미(1991), 이명훈(2014), 최종희(2002), 오승재(2007)의 논문을 들 수 있다.

권은영(2008)<sup>2)</sup>은 20세기 사회변동으로 인한 풍물굿의 공연환경 변화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풍물굿의 전개양상을 고찰하였으며, 이중수(2015)<sup>3)</sup>는 풍물굿 장단의 생성 원리와 구성 원리를 밝혀내어 미적 특징을 밝혀내는데 주안점을 두고 논의

2) 권은영, 『20세기 풍물굿의 변화 양상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08년.

3) 이중수, 『한국 풍물굿 장단의 구성 원리와 미적 형식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예술 문화와 영상 매체 협동과정 박사학위논문, 2015년.

를 전개하였다. 이영배(2006)<sup>4)</sup>는 호남 지역의 풍물굿의 ‘잡색놀이’연구를 통해 그 문화적 의미와 가치를 ‘민중이 꿈꾸는 공통의 장’, ‘개방적 공연성의 구현’, ‘수용과 모방의 실험적 다양체’, ‘청각중심의 통합적 공통감각의 구현’으로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 풍물놀이의 지도방안을 모색하고자 참고하였던 지역은 웃다리 지방의 평택농악, 호남좌도필봉농악, 호남우도이리농악, 고창농악, 진주·삼천포 12차농악과 영남 사물놀이이다. 각 지역마당의 특징적인 장단을 수용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익히기 쉽거나 이해하기 쉬운 장단을 지역별로 안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그 중 시지은(2013)<sup>5)</sup>은 ‘호남 우도 농악 판굿의 구성원리’라는 주제로 그 보편성을 다섯 가지 특징으로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호남우도농악 판굿은 어름굿, 오채질굿, 오방진굿, 호허굿, 구정놀이 다섯 개의 마당으로 구성되었다.

둘째 주요한 세 마당은 삼채굿이라는 독립적인 단락으로 마무리된다.

셋째, 오채질굿과 좌질굿, 호허굿 장단 등 다양한 혼소박 형태의 장단을 공유하고 있다.

넷째, 쇠잡이들은 흥동지기를 입고 부포상모를 쓴다.

다섯째, 고깔소고수가 편성되고 고깔소고춤이 발달하였다.

그리고 우도농악 판굿 구성 원리의 핵심을 ‘기경결해’의 원리로 들고, 민속악에서 보편적인 ‘내고 달고 맺고 푸는’ 전개 양상이 우도 농악 판굿에서도 전체적인 구성원리로 작용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살펴볼 때 학교에서의 풍물놀이 지도 방안 또한 민속악의 보편적인 기경결해 구조를 수용하고 구현해내려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학교현장에서 사용가능할 풍물놀이의 제재를 찾고자 살펴보게 된 이명훈(2014)<sup>6)</sup>의 연구는 호남우도 고창농악 판굿 가락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고창의 판굿 가락 형성에 그 지역의 마을굿 가락이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이영배, 『호남 지역 풍물굿의 ‘잡색놀이’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06년.

5) 시지은, 『호남 우도 농악 판굿의 구성 원리』, 경기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3년.

6) 이명훈, 『고창농악 판굿 가락 형성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한국음악학과 박사학위논문, 2014년.

또한, 이경자(1991)<sup>7)</sup>와 황삼열(2006)<sup>8)</sup>의 연구를 통해 웃다리 지역의 평택 농악에 대한 춤사위나 평택농악의 원형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였다. 평택풍물굿의 판굿 춤사위의 특징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춤사위들이 진법에 두루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며 개인의 기능적인 것보다는 전체적인 대형이나 형태의 조화를 위한 춤사위들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리고 평택농악은 마을 두레굿의 성격과 전문 연희패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상쇠, 법고, 무동놀이가 지역의 특징으로 발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호남 우도, 좌도 농악이 기교위주의 춤을 많이 춘다는 것과 달리 웃다리 풍물굿은 남성적이며 우직하고 무게 있는 춤사위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종희(2002)<sup>9)</sup>는 진주·삼천포 농악이 영남지역 풍물의 특성을 고스란히 보유하고 있으며 기예성이 뛰어나고 남성적이며 군악적 요소를 함축하고 있는 독특한 형태의 풍물놀이임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소고를 개인놀이로 확대 발전시킬 만큼 그 기량이 어렵고도 뛰어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오승재(2007)<sup>10)</sup>의 삼도 사물놀이의 가락 분석 연구는 웃다리농악, 호남농악, 영남농악의 대표적인 장단을 비교 분석하고 초등학교에서 가르치기에 적합한 학습 요소를 고민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교과서에도 자주 등장하고 장단과 사설이 잘 조화되어 있는 사물놀이에서의 별달거리 장단은 지역 풍물놀이에서 사용되는 장단과 일치하는 유형을 찾을 수 없었지만 진주·삼천포 농악에서 별거리, 달거리, 별달거리로 불렸던 별굿놀이에 쓰이는 다드래기 장단에서 별달걸이와 비슷한 가락의 유형을 찾을 수 있어 학교 현장에서 지도할 때 장단의 배경에 대해 알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볼 때 지역의 특별한 풍물놀이 장단이나 문화재가 없는 곳에서의 풍물놀이 지도는 장단의 특징과 그 구조를 잘 살핀 뒤 대상에 맞는 수준을 잘 고려하여 엄선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렇게 구안된 서로 다른 장단을 ‘기경결해’의 원리에 따라

7) 박정미, 『경기도 평택 풍물굿 中 춤사위 연구』, 수원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1991년.

8) 황삼열, 『평택농악 원형에 관한 연구』, 추계예술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악교육정책전공 석사학위논문, 2006년.

9) 최종희, 『진주·삼천포 12차 농악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기악전공 석사학위논문, 2002년.

10) 오승재, 『사물놀이 지도를 위한 가락 분석 연구』, 중앙대학교 국악교육대학원 국악포괄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2007년.

학생들의 수준을 잘 고려하여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 또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다음으로 지역별 농악이나 풍물굿을 이용한 학교에서의 풍물놀이 활용방안이나 지도방안과 관련한 연구는 교육과 관련된 전공이 대부분이었는데, 학교 현장에서는 풍물놀이를 어떠한 방법으로 활용하였는지 그리고 그 주제는 어떻게 선정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살펴보게 되었다.

먼저 어떠한 목적을 위해 풍물놀이를 소재로 사용한 연구물이 있었는데, 채성희(2012)<sup>11)</sup>는 풍물놀이의 교육적 가치를 인성교육의 덕목과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으며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마을공동체에서 행해진 풍물놀이는 의식 및 일과 관련한 감사의 음악으로 노동과 자연의 흐름이 담긴 장단을 몸 움직임을 통해 노동의 동작과 자연의 움직임을 모방하며 장단의 감을 익히고 공동체의 가치를 경험하며 노동과 놀이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게 한다.

그리고 풍물놀이는 축제 및 놀이와 관련한 단결의 음악으로 애교(愛校)와 애향(愛鄉)의 정신을 비롯하여 공동체의 조화와 화합의 정신을 체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모든 구성원이 함께 호흡하며 공동으로 행하는 집단성이 강하므로 더불어 연주하는 동안 저절로 유대감과 일체감이 형성되어 협동과 양보, 화해의 가치를 익히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풍물놀이를 통해 학생들의 생활 여건을 공감하고 재창조해가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공동체 문화를 형성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지역의 마을공동체의 풍물놀이를 재현하고 운영하는 데 그 의의를 두기보다는 악기 연주와 감상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음악을 습득하는 체험자이자 음악을 느끼고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향유자의 입장에서 풍물놀이의 가치를 설명한 것이다.

심미적인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음악 문화를 자연스럽게 익히며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풍물놀이가 지닌 교육적 가치에 대한 질적 제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위의 연구는 풍물놀이가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졌을 때 다양한 교육적 효과가 나타나며, 학교 현장에서는 지역의 풍물굿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보다는 학생들의 수준과 교육의 목적에 맞게 재구성 또는 재창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

11) 채성희,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풍물놀이 지도 방안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초등음악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2012년.



강현아(2010)<sup>12)</sup>는 호남 우도농악 판굿을 이용하여 장단학습을 위한 놀이개발 연구를 진행하였다. 교과서 분석을 통해 중·고등학교 교과서 모두 많은 종류의 장단을 다루고 있지만 학습활동이 모두 악곡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한계를 지적하고, 장단 자체를 체험하기 위한 신체활동 및 놀이 활동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놀이의 주요 목적은 장단을 이해하고 장단의 감을 체득하게 하는데 있으며 판굿에서 볼 수 있는 전문가들의 연행 형태를 그대로 답습하거나 악기를 잘 치기 위한 기능의 연마를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장단을 반복하여 듣게 하고 놀이 안에서 온몸으로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인치규(2006)<sup>13)</sup>와 이지영(2016)<sup>14)</sup>은 풍물놀이의 지도가 교과 시간을 통한 지도의 한계가 있으므로 계발활동 시간(현재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동아리시간)이나 교과 통합을 통해 이루어져야 주장하였다. 이것은 학교 현장에서의 풍물놀이 지도를 위한 물리적 시간확보가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지역화 교육과정을 위한 풍물놀이 지도방안에 대한 연구는 이연호(2003), 최새롬(2015), 유경옥(2011), 박천수(2002), 임영덕(2014), 김복연(2004)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들에서 풍물놀이 지도 방안의 제재로 사용하고자 하는 지역의 풍물 장단과 지역화를 위한 풍물놀이의 방법들을 참고하였다. 이연호(2003)<sup>15)</sup>는 파주 지역에서 행해지는 파주 금산리 풍물놀이를 학교에서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적인 연구를 진행하였고, 최새롬(2015)<sup>16)</sup>은 평택농악을 중심으로 지역예술문화를 활용한 통합화 수업 방법을 제시하였다. 유경옥(2011)<sup>17)</sup>은 호남 우도농악을 활용한 초등학교 농악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통해 전라북도 지역의 초등학생을 위해 저, 중, 고학년별로 가락 익히기와 기본 소고춤 동작 익히기를 기초로 프로그램을

12) 강현아, 『장단학습을 위한 놀이개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2010년.

13) 인치규, 『풍물굿의 연행 예술적 특성 지도를 위한 창작 풍물놀이 활용방안 -계발활동을 중심으로-』,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음악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2006년.

14) 이지영, 『교과통합을 통한 농악 지도방안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초등음악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2016년.

15) 이연호, 『지역화 교육과정을 위한 파주 금산리 풍물놀이 지도 방안』, 인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음악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2003년.

16) 최새롬, 『지역예술문화를 활용한 통합 수업 지도방안 연구 -평택농악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2015년.

17) 유경옥, 『호남 우도농악을 활용한 초등학교 농악교육 프로그램 개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체육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2011년.



구성하고 농악교재를 개발하여 지도한 사례를 제시하였다. 박천수(2002)<sup>18)</sup>, 임영덕(2014)<sup>19)</sup>은 호남 좌도 임실 필봉농악의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박천수는 초등학교에서의 단계별 풍물굿 지도방안을 연구하였고, 임영덕은 임실필봉농악의 ‘놀이굿’을 중심으로 풍물놀이 지도 방안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김복연(2004)<sup>20)</sup>의 영남 사물가락 지도 방안 연구는 영남 가락이 초등학생이 장단의 난이가 쉬운 편이어서 초등학생이 연주하는데 적합하며, 정간보를 통한 장단 교육이 효과적임을 강조하였다. 위의 연구들은 본 연구의 풍물놀이 지도 프로그램을 구안하는데 자료로 활용되었다.

마지막으로 위의 연구들에서 살펴본 대표적인 우리나라 풍물놀이와 접목하고자 하는 지역 문화 중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과 ‘제주도 무가’와 관련한 연구로는 김미영(1995), 김희숙(2001), 한승희(2002), 김형진(2002), 김지수(2003), 이유신(2003), 고현민(2004), 황나영(2011), 김명희(2013), 한진오(2007), 송정희(2015)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의 주제에 관한 연도별, 세부적인 주제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어 전체적인 개관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김미영(1995)<sup>21)</sup>은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의 구성 및 북가락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도 칠머리당 영등굿은 제주시 사라봉에 있는 칠머리당에서 매년 음력 2월 14일에 행해지는 송별제로 해녀들과 어부의 해상 안전과 어업의 풍요를 비는 곳이다. 용왕맞이는 바다의 모든 것을 관장한다고 믿는 여러 용왕 신들과 바다에 모든 씨앗을 주고 떠난다고 믿는 영등신을 제장으로 모셔다가 대접하고 기원하는 영등굿의 절차 중 하나이다. 그 절차는 크게 <초감제>, <추물공원>, <나까도 전침>, <용왕질침>, <용왕문 열림>, <소지> 로 나눌 수 있다.

둘째, 영등굿에 사용되는 악기는 징, 설쇠, 북, 장고이며, ‘연물’이 라 부른다. 4종이 모두 갖추었을 경우, ‘7진 연물’이라 한다. 그 중 북의 연주 방법이 독특한데 양손에 북채를 갈라 쥐고 북의 한 면만을 친다는 점이다.

18) 박천수, 『초등학교 단계별 풍물굿 지도 방안』,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2002년.

19) 임영덕, 『초등학교 풍물놀이 지도방안 연구 -임실필봉농악의 ‘놀이굿’을 중심으로-』, 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악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2014년.

20) 김복연, 『영남사물가락 지도 방안 연구 -초등학교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국악교육대학원 국악초등교육 전공 석사학위논문, 2004년.

21) 김미영, 『제주도 칠머리당 영등굿의 구성 및 북가락 연구 -용왕맞이에 한하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1995년.

셋째, 칠머리당 영등굿의 장단의 의미로도 사용되는 빠르기말은 ‘늦은석(초판)-늦은 중판-중판-즈진중판-즈진석(막판)’으로 쓰여진다.

넷째, 칠머리당 영등굿 <용왕맞이>의 구성된 가락으로는 「3채-2채-1채-1채」 가락과 「군채」 가락의 반복과 「늦은석」 가락으로 이루어져 있다. 「3채-2채-1채-1채」는 정형화된 가락이며, ‘늦은석’은 <초감제>때만 사용되는 가락으로 약간의 변형만 있을 뿐이다.

김희숙(2001)<sup>22)</sup>은 제주 칠머리당굿 12제차에 나타난 무용을 연구하고, 그 연구물을 바탕으로 실제 공연으로 무대화한 내용을 연구주제로 삼았는데, 원형 그대로가 아닌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을 활용한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한승희(2002)<sup>23)</sup>는 영감놀이를 중심으로 한 제주도 굿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이를 참고하여 풍물놀이의 잡색놀이 부분에 제주도의 굿에서 연희되던 영감놀이를 접목하여 풍물놀이 공연 소재로 활용하였다.

김형진(2002)<sup>24)</sup>의 제주도 칠머리당 영등굿의 무가연구를 통해 풍물놀이와 접목 사용가능한 무가와 장단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참고가 되었다. 굿의 대부분이 사설로 이루어져 그 내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풍물놀이와 연관하여 장단이 비교적 명확하고 초등학생이 배우기 쉬운 선율을 내용으로 선정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김지수(2003)<sup>25)</sup>의 연구를 통해서도 제주 칠머리당의 춤사위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었고, 이유신(2003)<sup>26)</sup>은 코프찬과 안느 위베르스벨트의 연극 기호학의 모델을 응용하여 영등굿을 연극적으로 재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영등굿은 놀이의 문화와 축제의 문화로서 지역의 특수성을 가장 많이 내포하고 있는데 행정적인 축제로서가 아닌 주민 참여의 원칙하에 굿을 연구하고 전승해야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의 주장을 토대로 학교 현장에서도 지역 문화재인 제주굿에 대한 다양한 활용과 지도가 함께 이루어져야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22) 김희숙, 『제주도 칠머리당굿 12제차에 나타난 무용연구』,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무용전공 석사학위논문, 2001년.

23) 한승희, 『제주도 굿에 대한 연구 -영감놀이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무용학과 석사학위논문, 2002년.

24) 김형진, 『제주도 칠머리당 영등굿 무가연구』,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악교육전공 석사학위 논문, 2002년.

25) 김지수, 『제주 칠머리당굿의 형식과 춤사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전통문화예술대학원 전통무용학과전공 석사학위 논문, 2003년.

26) 이유신, 『제주도 건입동 칠머리당 영등굿의 연행 기호 분석』, 성균관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언론매체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3년.

고현민(2004)<sup>27)</sup>의 요왕맛이 마당을 중심으로 한 제주 영등굿에 대한 연구에서는 한 마당 안에 사설낭창, 가창, 춤, 연물, 연극적인 연행이 모두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보통 전체 굿 한판 속에서도 보기 힘든 연행들이 요왕맛이 마당 속에서 모두 볼 수 있는데 이는 이야기 흐름과 결부되어 긴장되기도 하고 이완되기도 하는 효과를 내며 굿을 풀어낸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었다.

황나영(2011)<sup>28)</sup>의 연구에서 음영조 무가는 장단이 존재하지 않고 말하듯이 진행되는 노래형태를 말하는데 이는 초등학교 풍물놀이 지도방안과 연계하여 지도하는 것이 사실과 어렵지만, 가창조 무가는 일정한 장단이 존재하면서 선율이 규칙성과 반복성을 띄는 노래 형태로서 풍물놀이와 접목하여 사용하기에 적합하다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었다.

김명희(2013)<sup>29)</sup>의 연구를 통해 제주 무가를 음악극에 도입하여 제주 굿 음악을 좀 더 자연스럽게 접하는 방법을 제시하여 풍물놀이에 접목하고자 하는 본 연구에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었다.

한진오(2007)<sup>30)</sup>의 제주도 입춘굿의 연행원리 연구를 통해 제주도의 또 다른 굿의 형태인 입춘굿의 연행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였으며, 송정희(2015)<sup>31)</sup>의 연구를 통해 제주도 굿 재차 형식 중 ‘석살림’ 부분에 관한 이해가 가능하였다.

### 3. 연구 대상과 방법

본 논문의 연구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주제와 관련한 풍물놀이와 제주굿의 개요 및 특징을 살펴보고 연구에

27) 고현민, 『제주도 영등굿 연구 -요왕맛이 마당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음악 전공 석사학위 논문, 2004년.

28) 황나영,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의 음악적 구성과 특징』, 한양대학교 대학원 국악학과전공 석사학위 논문, 2011년.

29) 김명희, 『제주 무가 중 ‘삼공본풀이’를 활용한 음악극 지도방안』,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음악전공 석사학위 논문, 2013년.

30) 한진오, 『제주도 입춘굿의 연행원리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 석사학위 논문, 2007년.

31) 송정희, 『제주도 굿 재차 중 <석살림>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 석사학위 논문, 2015년.

필요한 이론적 지식을 체계화한다.

둘째, 초등학교에서 지도 가능한 각 지역의 풍물 장단을 선정하고 ‘기경결해’의 원리에 따라 풍물놀이 지도방안을 마련한 후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다.

셋째, 풍물놀이 장단에 접목할 수 있는 제주도의 무가 및 장단을 선정하고 지도방안을 구안한다.

넷째, 마련된 지도 방안을 학교현장에서 직접 적용하고 보완점과 한계점에 대해 살펴본 후, 학교 현장에서의 지역문화의 계승·보전을 위한 방법을 모색한다.

####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지닌다.

첫째, 풍물놀이 지도방안을 구안함에 있어 우리나라 전체 지역의 풍물놀이를 접목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지정중요무형문화재를 토대로 웃다리 농악의 평택농악, 호남 우도농악의 이리농악, 고창농악, 호남 좌도농악의 대표인 임실 필봉 농악, 영남 농악의 대표적인 진주·삼천포 12차 농악 및 영남 사물놀이 장단을 바탕으로 지도방안을 마련하였다.

둘째, 풍물놀이에 접목 가능한 지역 문화를 소재로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의 가창조 무가를 사용하였는데 원형 그대로의 전수 지도에 한계가 있으므로 초등학교생들의 수준에 맞게 쉽게 변형, 또는 단순화하여 지도방안을 마련하였다.

셋째, 일선 학교에서의 현장 지도 경험을 통해 얻게 된 풍물놀이 지도의 방법을 구체화하여 제시하였으나 연구자에 따라 그 내용과 방법이 다를 수 있고, 지역의 특수성 및 각 학교의 사정에 따라 객관화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 II. 풍물놀이의 개요

### 1. 풍물놀이의 유래 및 특징

#### 가. 풍물놀이의 어원

풍물놀이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타악기인 쇠, 징, 장구, 북, 소고 등의 다섯 악기를 중심으로 연주되는 춤과 노래가 동반된 종합 예술이라 할 수 있다. 풍물은 흔히 농악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그 사용에 있어 다양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그 대표적인 내용은 농악이라는 어원이 일본의 가면극 ‘농악’의 발음인 ‘노가꾸’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이다.<sup>32)</sup> 농악이라는 용어가 최초로 등장하는 것은 일제강점기인 1931년 오청(吳晴)이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조선의 연중행사』에 나타난다. 오청은 6월의 행사에 농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당시에는 지역마다 부르는 이름이 달라 속칭 ‘농부놀이’, 혹은 ‘농악’이라고 밝히고 사용하고 있다.<sup>33)</sup> 그리고 조선총독부를 비롯한 행정관청과 교육기관에서 사용되던 것이 해방 후에도 무비판적으로 사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이에 농악이라는 용어는 우리 민족의 자발적인 용어가 아닌 문화식민지 정책으로써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용어임이 확인되어 더 이상 농악이라는 용어를 자제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박천수, 2002).

이와 같은 맥락으로 농악이란 용어는 조선시대의 지배계층과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통치적 의도에 의해 민중적 대동성이 거세되어 버린 용어라는 점과 그 영향을 받아 일부 지식인과 학자들이 서양 장르적인 관점에서 총체적 삶의 체계와의 연관이 부정되어 버린 소위 학술용어이기 때문에 ‘풍물’이라는 악기를 가리키는 용어와 총체적인 예술을 담보하는 ‘굿’(춤, 소리, 악, 연기)이란 용어를 합하여 풍물굿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sup>34)</sup>

그러나 필자의 연구대상은 초등학생임을 감안하여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초등

32) 진옥섭, 『북 치고 장구 치고』, (동녘, 1991), 149쪽

33) 김양기, 『한국 민속의 뿌리』, (조선일보사 출판부, 1987), 223-232쪽

34) 정병호, 『농악』, (열화당, 1986), 17쪽

학교 교과서 및 학생들에게 가장 널리 불리는 풍물놀이로 한정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원래 풍물, 농악, 풍물굿, 풍장, 매구, 두레, 두레굿 등으로 불리던 것들을 국립국악원과 국악교육협회의 「초·중등 국악교육 내용 통일안(Ⅰ)」(1994)에서 ‘풍물놀이’로 칭하기로 결정하고 많은 사람들로 대중화되어 사용되기 때문이다.

## 나. 풍물놀이의 기원

풍물놀이는 우리나라 음악과 예술의 특징을 보여주는 고유한 전통음악이다. 이를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경우에도 단순히 악기만을 단순 지도하기보다는 우리 조상들이 어떠한 목적으로 이러한 예술 행위를 펼쳤는지, 그 의도와 목적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일례를 들어 풍물패의 맨 앞에는 농기(農旗)와 영기(令旗) 등 깃대가 상징적 의미를 나타내거나 풍물놀이 팀의 이름을 소개하며 앞을 이끌어 가는데 그 때 새겨져 있는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의 의미에 대해 궁금해 하는 학생이 있다. 그리고 풍물놀이의 본마당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진풀이, 소고의 네 가지 동작이 생겨나게 된 이유, 우리나라 장단이 3분박이 많은 이유 등에 대해서 지도할 때에도 이를 학생들에게 설명해주며 가르치는 것은 우리 조상들이 풍물놀이를 하게 된 배경이나 의도를 이해하게 되고 또 이를 유추해보면서 우리 전통문화의 전승의 가치나 그 이유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풍물굿의 기원은 원시 공동체 사회의 풍농과 안택을 비는 제천의식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곧 제천의식에 사용되던 악기와 춤, 극적인 요소들이 풍물 굿의 기원이 되었다는 것이다. 한편, 조선시대 역불승유 정책으로 불교가 배척을 받게 되자, 중들이 사찰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교음악에 사용된 악기와 춤을 사용하여 민중취향의 속화된 연주를 한 것이 풍물굿의 근간을 이루었다는 견해도 있다. 또한 예전에 나라 지키는 군대 음악에서 그 유래를 찾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견해들은 서로 배타적으로 존재하는 풍물굿의 기원설이 아니라 풍물굿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김복연,2004) 이러한 여러 가지 풍물의 기원에 관하여 「한국 전통 연희의 이해와 실제」에서는 풍물의 기원을 아래 다음과 같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sup>35)</sup>

### 1) 풍농안택기원설

고대로부터 우리의 농경사회에서는 풍농과 안택을 비는 제천행사가 있었고, 그 제천의식에서 벌어진 음악·춤·놀이의 종합적 퍼포먼스를 풍물굿의 기원으로 보는 견해이다. 제천의식은 집단적 신명을 통해 신과의 만남을 추구하는 행위이다. 신에 다가가는 가장 근접한 악기로 타악기가 사용되었으리라고 추정하면서 이 악기를 풍물굿에 쓰이는 악기의 기원으로 보고, 제천의식 때 행해지던 음악·춤·놀이를 풍물굿의 원시적 형태로 보자는 견해이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현장에서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농기를 설명하거나 우리나라 장단이 2분박이 아닌 3분박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도 허리를 숙여 모를 심거나 밭의 잡초를 메는 노동이 농사와 관련되어 있음을 설명하면 그 이해가 더 빠를 것으로 보인다.

### 2) 불교관계설

조선시대 억불숭유정책으로 불교가 탄압을 받게 되자, 승려들은 사찰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마을로 내려오게 되었다. 이때 중들은 필요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 머리에 불두화를 단 화관(고깔)을 쓰고 불교음악과 의식에 사용되는 팽과리·징·장구·북·자바라·적 등의 악기를 사용하여 연희를 하였다. 이 연희는 점차 민중의 미(美)의식에 부합하는 요소들로 꾸며졌는데 이를 풍물굿의 기원으로 보고자 하는 견해이다. 풍물굿에 사용되는 소고를 법고(벼꾸)라고 하는 것이나 소고잡이들이 승려들이 쓰는 고깔을 쓰는 것, 그리고 때로 바라를 악기로 쓰는 것 등은 불교가 풍물굿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

### 3) 군악설

군대에서 의식이나 훈련을 위하여 사용되던 군악이 풍물로 정착하게 되었다는 학설이다. 실제로 풍물굿패의 옷차림이나 지휘 체계, 진풀이 등이 군대의 것과 많이 닮아 있다. 풍물패의 옷차림이 전통시대 군대의 복색을 떠올리게 하고, 지배의 구성이 상쇠로부터 소고잡이에 이르기까지 군대조직과 같은 수직적 지휘체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쇠의 지휘에 따라 행해지는 진풀이 모습이 군대의 진을 치는 법(대형을 짜는 법)고 매우 흡사한 것을 볼 때 군악의 영향 또한 컸다고 보여 진다.

학교 현장에서 풍물놀이의 진풀이를 할 때에나 소고의 기본 4박자 동작이 낭심,

35)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 전통연희 이해와 실제 I』, (삼광문화,1998), 17~18쪽



머리, 얼굴, 가슴 순으로 손을 올려 동작을 표현하는데 설명할 때 우리 조상들이 군대를 훈련시킬 때 풍물놀이를 사용했을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더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 2. 풍물놀이와 사물놀이의 차이점

앞서 밝힌 것처럼 풍물놀이가 가(歌)·무(舞)·악(樂)이 종합된 우리 조상들의 연희 예술이라 한다면, 이에 반해 사물놀이는 마당에서 이루어진 풍물놀이를 대표적인 쟁과리, 징, 장구, 북 4가지를 이용하여 표현한 무대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

1978년 2월 공간사랑이라는 소극장에서 쟁과리 김용배, 장구 김덕수, 징 최태현, 북 이종대가 함께 제1회 공간 전통 음악의 밤을 통해 사물놀이를 탄생시켰고<sup>36)</sup>, 4명의 연주자가 옷다리 풍물을 사물놀이로 형상화하여 발표하며 대중으로부터 큰 충격과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되었다. 그 이후 최종실이 이종대, 이광수가 최태현 대신 멤버교체를 하며 본격적인 사물놀이 구성원이 되었으며, 이 네 명이 계속적으로 사물놀이를 발전시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사물놀이라는 단어는 어떠한 연주형태나 곡의 이름이 아니고 하나의 놀이패의 이름 즉, 고유명사로 태어났으나 지금은 네 개의 타악기를 중심으로 연주하는 풍물굿까지도 포함하는 넓은 뜻으로 통용되고 있다.<sup>37)</sup>

위에서 밝힌 풍물놀이와 사물놀이를 비교한 표를 인용하자면 다음과 같다. <sup>38)</sup>

< 표 II-1 > 풍물과 사물놀이 비교

	풍물놀이	사물놀이
연주형태	선반	앉은반
연주장소	정해진 곳 없이 넓은 장소	무대에서 이루어짐
연주시간	거의 제한이 없다.	대체로 한 곡당 10~15분
연주인원	인원의 제한이 없다.	4~6명 정도의 적은 인원
진풀이	즉흥적	미리 계획함
잡색	흥을 돋운다.	필요 없다.

36) 앞의 책, 30쪽

37) 정세윤, 『사물놀이의 장단분석』, 동아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년

38) 김복연, 『영남사물놀이 지도 방안 연구』, 중앙대학교 국악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년, 2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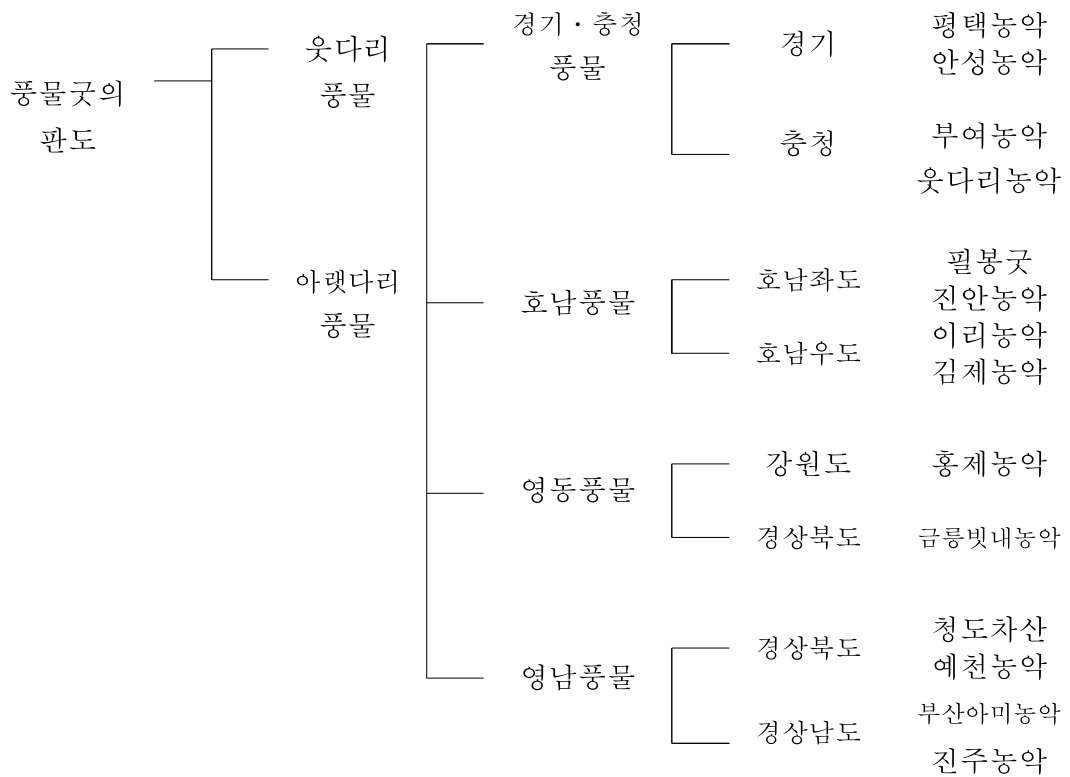


### 3. 풍물놀이의 지역적 분포 및 특성

#### 가. 풍물놀이의 지역적 분포

우리나라 풍물놀이는 지리적, 지역적, 문화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다른 지역이라 할지라도 외부의 풍물굿이 유입되어 서로 비슷한 경향을 보이기도 하므로 풍물의 지역적 분포와 변이를 구분하기는 매우 어려우나 김현선(1984)이 분류한 풍물굿의 판도는 다음과 같다.<sup>39)</sup>

< 표 II-2 > 풍물놀이의 구분



39) 강현아, 『장단학습을 위한 놀이개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년, 9쪽

## 나. 풍물놀이의 지역적 특성

### 1) 경기 충청 농악

경기 농악은 안성, 평택 등이 중심이 되며 그 밖에 광주, 양주에서도 성행하였다. 편성은 영기, 농기, 썰과리, 징, 장구, 북, 소고, 무동, 새미(중), 탈광대(양반) 등으로 된다. 다른 지방에 비해 징과 북의 수가 적으며, 잡색은 무동의 수가 많은 반면 포수, 조리중 등은 보이지 않는다.

쇠가락은 길군악칠채, 굿거리, 덩덕궁이, 마당삼채, 잣은 가락 등이 쓰이는데, 길군악칠채는 경기농악의 특징이라 할만하다. 굿거리, 덩덕궁이(정적구이), 잣은 가락 등 느리고 빠른 가락을 고르게 쓰며 잡다한 여러 가락이 없으므로 경기도 쇠가락은 가람새가 분명하여 경쾌한 느낌을 준다. 진법에는 상쇠놀이, 범고놀이, 무동놀이, 새미놀이, 열두발채가 유명하다.

충청도 농악은 지역으로 봐서 호서농악이라고 할 만하나 대체로 경기농악과 유사하다. 충북의 청주, 중원과 충남의 천안, 아산 등지의 농악은 경기의 평택, 안성 농악과 거의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충남의 논산, 충북의 수동 등 충청도 남부지역은 호남좌도농악과 유사하다.

### 2) 호남 농악

전라도에서는 동부산간지대의 좌도농악과 서부평야지대의 우도농악으로 구별하여 부르고 있는데, 근래에는 혼합되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가) 호남좌도농악

이른바 ‘좌도농악’은 금산, 진안, 무주, 전주, 남원 임실, 순창, 곡성, 구례 등의 전라도 동부지역농악을 일컫는다. 편성은 영기, 나발, 대포수, 창부, 조리중, 양반, 농군, 각시, 화동, 쇠, 징, 장구, 북, 범고, 무동 등으로 이뤄지며, 잡색이 고루 갖춰지는 것이 특징이다. 쇠가락은 일체에서 칠채까지 채굿가락이 쓰이며, 그밖에 풍류굿, 잣은몰이, 다드레기(휘몰이), 짝드름 호호굿 등이 쓰인다. 채굿과 짝드름을 쓰는 것이 좌도 농악의 특징이며 가락의 맺고 푸는 기교가 구사되나 호남우도 농악보다는 섬세하지 못하다.

좌도 농악은 우도 농악에 비해서는 빠르고 경남 농악보다는 느린 가락을 구사하는데 느린 가락의 맺고 푸는 기법과 빠른 가락을 힘차게 몰아가는 기법을 잘 구사하며, 오방진에 동살풀이를 쓰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잣은 몰이를 몰다가

짜드름으로 넘기고, 싸잡이로 나가서 휘몰이 장단으로 마치는 빠른 가락이 많은데, 이것이 호남좌도 농악의 특징이기도 하다. 그리고 판굿에 잣은 영산과 다드래기 영산은 기교가 훌륭하게 구사되는 대목이다.

#### 나) 호남우도 농악

전라도의 서부지역 즉 익산, 옥구, 김제, 부안, 정읍, 고창, 영광, 장성, 나주, 광주, 장흥, 당진, 영암 등지에서 전승되는 농악을 호남 우도농악이라 한다. 우도농악은 영기, 대포수, 쇠납, 쇠, 징, 장구, 북, 법고 양반, 조리중, 창부, 각시, 무동 등으로 편성된다. 상쇠의 쇠가락은 일체, 이채, 늦은 삼채, 된삼채, 풍류굿, 오채질굿, 좌질굿, 양산도가락, 호호굿, 잣은 호호굿, 오방진가락, 구정놀이 등이 있다. 쇠가락은 비교적 느린 가락을 많이 쓰며 가락 하나하나가 치밀하게 변주를 하여 리듬이 다채로우며 풍류굿, 덩덕궁이(삼채굿)에서는 악절마다 맺고 푸는 리듬 기법을 쓴다. 따라서 유장하며 매우 구성진 느낌을 준다.

상쇠의 상모놀이가 다양하고 장구춤에서 장구 치는 방법과 춤추는 예태가 발달되어 있으며, 법고춤의 기법이 다양하고 또한 진법이 다양한 것도 특색이다. 그리고 오채질굿은 우도 농악에만 보이며 좌도농악에 보이는 영산과 짜드름이 적다.

#### 다) 영동 풍물

영동 풍물은 강원도 농악과 영동지방 농악이 주를 이루는데 강원도 농악은 악기편성, 가락, 판굿의 구성 등으로 보아 원주, 횡성, 춘천 등지의 영서농악과 강릉, 삼척 등지의 영동농악으로 나눌 수 있다. 영서농악은 경기농악과 비슷하고, 영동농악은 영서농악과는 다른 영동특유의 향토적 특색을 가지고 있다. 영동농악 중에서 강릉, 홍제 농악이 으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팽과리, 장구, 큰북, 소고, 법고, 호적 등으로 편성되며, 소고와 법고가 구별되는 것이 특징이다.

쇠가락은 다른 지방에 비하여 비교적 빠르며 일체, 이채, 삼채, 신식 길놀이 가락, 굿거리, 구식 길놀이 가락, 오채 등이 있으며, 모두 3분박 4박자로 단조로우며 대부분의 쇠가락이 외가락으로 길게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

영동농악은 잡색이 없고 무동이 8명이나 되고 소고 8명, 사물 8명으로 4패의 수를 맞추는 것이 특이한 편성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지방에서 볼 수 없는 병거지를 쓰고, 마당굿의 진행방식이 농사의 전 과정을 거의 모의하고 있다.

마을굿으로 당굿은 별로 하지 않으며 지신밟기가 성행했다. 달맞이굿, 다리밟기,

김매기 풍물, 단오날 대관령 성황제 등에서 풍물이 연행되고 배굿으로 풍어제와 관계되는 진대백이굿이 특이하다.<sup>40)</sup>

#### 라) 영남풍물

영남 농악은 경북농악과 경남농악으로 나뉘어 살펴볼 수 있는데 경북농악은 덧배기 가락의 북춤의 멋을 간직하고 기교는 미약하나 힘차고 빠른 쇠가락이 특징으로 나타난다. 북춤의 춤사위가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것으로, 대구지방의 농악에서는 북 북판을 두 번 치고 북채를 머리위로 올리는 것과 옆걸음을 하면서 북을 치는 것, 오른발로 북을 받치고 북을 치면서 좌로 회전하는 것이 북춤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볼 수 있다. 경남농악은 경남서부지역 함양, 진주, 삼천포, 마산, 통영, 거창 등지의 농악을 가리키며, 그 중 진주농악과 삼천포농악이 유명하다. 빠른 가락을 많이 쓰기 때문에 힘차기는 하지만 맷고 푸는 기교가 약하여 구성진 흥이 덜하다.<sup>41)</sup>

경상도 풍물굿은 가락이 빠르고 힘차며 채상소고놀이가 잘 발달되어 있다. 버꾸 째이라 불리는 이들의 자반뒤집기는 유명하다. 군법적인 요소가 강하게 남아 있어 역동적이고 일사불란한 진풍이를 보여준다.<sup>42)</sup>

#### 3) 풍물놀이의 문화 유산적 가치

앞서 살펴본 것처럼 다양한 이름으로 표현되던 풍물놀이가 일제식민지시대 문화 식민지 정책으로 농민들이 주로 하던 음악, 즉 농악이라는 단어로 제한되어 사용되거나 민족의 얼을 말살하기 위해 풍물 치는 행위 자체를 금기하여 그 맥이 상당히 끊긴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서민들의 대표적인 전통음악인 풍물굿을 살리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 2014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농악이라는 음악으로 등재되어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래 표와 같이 중요무형문화재와 시·도 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농악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sup>43)</sup> 이외에도 문화재로 지정되지는

40) 인치규, 『풍물굿의 연행예술적 특성 지도를 위한 창작 풍물놀이 활용방안』,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음악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2006년, 17쪽

41) 한국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 『한국의 농악』, (수서원,1994), 12~15쪽

42) 앞의 논문, 17쪽

43) 이지영, 『교과 통합을 통한 농악 지도방안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음악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년, 23쪽

않았지만 지역별 혹은 마을별로 보존회를 통해 자체적으로 전승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 표 II-3 > 문화재 지정 농악 목록

종류	농악명	문화재지정번호
중요무형문화재	진주삼천포농악	제11-1호(경남 진주시)
	평택농악	제11-2호(경기 평택시)
	이리농악	제11-3호(전북 익산시)
	강릉농악	제11-4호(강원 강릉시)
	임실필봉농악	제11-5호(전북 임실군)
	구례잔수농악	제11-6호(전남 구례군)
시·도 지정 무형문화재	갑비고차농악	제19호(인천광역시)
	고산농악	제1호(대구광역시)
	고창농악	제7-6호(전북 고창군)
	고흥월포농악	제27호(전남 고흥군)
	곡성죽동농악	제35호(전남 곡성군)
	광명농악	제20호(광명시)
	광산농악	제8호(광주광역시)
	김제농악	제7-3호(김제시)
	남원농악	제7-4호(남원시)
	부산농악	제6호(부산광역시)
	부안농악	제7-1호(전북 부안군)
	양주농악	제46호(양주시)
	우도농악	제17호(전남 영광군)
	옥수농악	제3호(대구광역시)
	웃다리농악	제1호(대전광역시)
	원주매지농악	제18호(원주시)
	정읍농악	제7-2호(정읍시)
	진도소포걸군농악	제39호(전남 진도군)
	진안농악	제7-5호(전북 진안군)
	청도차산농악	제4호(경북 청도군)
	청주농악	제1호(청주시)
	평창둔전평농악	제15호(강원 평창군)
함안화천농악	제13호(경남 함안군)	
화순한천농악	제6호(전남 화순군)	

#### 4. 제주도 풍물놀이의 연행배경 및 특성<sup>44)</sup>

제주도는 예로부터 지질의 특수성 때문에 논농사보다는 밭농사 위주로 생활 터전을 가꾸어 왔고, 농업보다는 어업에 가까운 삶의 형태를 보여 와서 소위 두레적인 농악의 형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나라에서 문화유산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여 문화재로 지정한 풍물놀이가 존재하지 않아 가락이나 판제가 전혀 남아있지 않은 것이 현재 상황이다.

학교현장에서 풍물놀이를 지도할 경우에도 학생들에게 이러한 제주도 풍물놀이의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육지의 가락을 이용한 풍물놀이를 접목하는 것이 옳다는 당위성을 설명해 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적인 색채가 많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연주하게 될 풍물놀이의 근간을 설명해주고 제주만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풍물놀이는 어떻게 변형 가능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보는 것도 교육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제주도의 민속음악은 무속이 중심적이며 농악은 이에 비하면 기층적인 성격이 약하고 논농사 중심의 두레적인 농악의 형태는 없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제주도의 현상은 제주도 전통음악이 원초적인 무속음악 중심이었던데 기인한다. 더구나 육지 농악이 탈춤 등의 다양한 민속과 결합하여 발전해 왔는데 반하여 제주도는 이와 같은 다른 요소와의 접촉이 자연 지리적, 역사적인 고립으로 말미암아 적었던 관계로 농악 문화가 발전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진다.

제주도의 농악은 다양한 형태의 농악이 발달했다기보다는 기예성이 강한 일종의 걸립농악만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의 농악은 과거 걸립농악패들의 농악이 제주도에 전래되어 한동안 마을 공동이익을 위한 걸립의 목적으로 전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농악이 마을 사람들에게 의해 자연스럽게 연행이 되었다는 점이 특이하다. 제주도의 풍물놀이는 전문 걸립패에 의한 걸궁이라기보다는 사실상 마을 사람들 자체적으로 편성하여 집집을 돌며 걸궁을 연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때문에 같은 마을의 집집을 돌며 하는 걸궁이 제주도 걸궁의 기본 틀이다. 육지처럼

44) 제주도교육청, 『제주의 전통문화』, (제주도인쇄공업협동조합 대영인쇄사, 1996), 478~480쪽, 486~489쪽 요약정리

두레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제주도로서는 서로 다른 마을을 돌며 걸립이나 지신 밍기를 거의 하지 않았으며, 다른 마을로 이동하는 것 자체를 그리 좋아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제주도에 남아 있는 농악이 육지 지방의 형태만을 간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형태가 비록 육지 지방의 걸립농악과 유사하다 하더라도 농악의 각종 리듬과 장단은 제주도적인 것으로 많이 바뀌었다. 본질적으로 제주도 사람들은 한본토 사람들과는 달리 리듬과 장단의 개념이 달랐으며 이러한 특성이 제주도 걸궁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 걸궁에 등장하는 뒷치배로서의 잡색은 비교적 다양한 편이며, 육지지방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잡색들도 있다. 과거에 유입될 당시의 잡색들의 구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은 물론, 제주도 생활과 직접 연관이 있는 잡색들이 새로 추가되어 보전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과거에 유입될 당시의 잡색들의 구성은 무동, 거지, 포수, 소, 창부, 농부, 농부아낙네, 양반, 도령, 사대부, 할미, 허벅여인, 화동 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중 제주도 걸궁에서의 포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육지에서의 곰이나 호랑이 또는 사자 등을 포수와 대비시키지 않고 새를 대비시킨다는 점이 특이하다. 제주도 무속에는 새를 ‘사’(사악함)의 상징으로 보고 이를 내쫓는 의식이 있는데 이를 ‘새드림’이라고 한다. 바로 이러한 현상이 걸궁에까지 전이되어 사자나 호랑이가 아닌 ‘새’가 포수의 대칭관계로 등장한다고 보고 있다.

이외에 제주도 걸궁에서 특이한 뒷치배로서는 허벅을 진 여인과 애기구덕을 진 할머니, 그리고 해녀가 등장한다. 이러한 뒷치배는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제주도만의 것이다. 이들 뒷치배는 제주도 사람들의 기층적인 삶의 모습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가장 진솔한 제주인의 삶을 연회를 통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 5. 제주도 풍물놀이(걸궁)의 실제

### 가. 제주도 걸궁 연행시기와 유형<sup>45)</sup>

---

45) 앞의 책, 480~484쪽 요약정리

제주도 풍물놀이(걸궁)에는 일반적으로 정초의 마당 밟기 농악, 걸립굿 농악, 꽃놀이 농악, 잔치놀이 농악 등이 있다. 두레농악이 사실상 없다는 점과 걸립 농악의 성격이 강한데도 불구하고 판굿이 없다는 점이 제주도 농악의 특징이다. 판굿이 없다는 점은 개인기능이 별로 발달하지 않았다는 점과 일맥상통한다. 그밖에 제주도 농악에서는 마당 밟기 농악을 통하여 축원농악의 흔적을 엿볼 수 있고, 또한 꽃놀이 농악이나 잔치놀이 농악 등을 통하여 오락적인 농악의 한 면을 엿볼 수 있으며, 걸립굿 농악을 통해서도 기원이나 축원적인 성격보다는 실제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특성을 살펴 볼 수 있다.

마당 밟기 농악은 정월 보름을 전후하여 정한 날이 되면 당제를 드리고 나서 걸궁을 시작한다.

꽃놀이 농악은 사람이 죽으면 죽은 사람의 친족 되는 사람이 음식과 경비를 대어 마을 풍물잡이들이 마을을 돌면서 풍물을 치게 하는데, 말하자면 이 마을을 떠난다는 알림의 풍물을 치는 농악을 말한다.

걸립굿 농악은 마을의 일정한 일을 하기 위하여 돈이나 물건을 모아야 할 일이 생겼을 때는 이장과 마을 유지들이 중심이 되어 걸립 농악패를 조직하여 풍물을 치는 농악을 말한다.

잔치놀이 걸궁은 신과세제(정초에 지내는 일종의 마을 공동제), 정월 걸립굿·마당 밟기, 매년 정월 초하루부터 대보름까지 행해진 화반놀이(정월 초하루부터 대보름까지 마을 포제를 지내게 되는데 마을 포제를 지내고 징과 북을 앞세워서 집집을 돌면 사람들이 서로 다투어 재물과 돈을 바치던 곳) 걸궁, 3월 삼짇날에 행해진 화전놀이(일종의 봄맞이 놀이), 단오놀이, 음력 6월 해신제(해변가 마을) 걸궁, 음력 7월 15일 백중놀이(물맞이), 9월 9일의 그슬멩질(추석) 농악놀이, 9월 9일 중구·중양일(9자가 두 번 겹쳤다고 하여 중구 또는 중양일이라 부르는데, 무조인 ‘명도’의 생일로 여겨 심방들이 마당에 기를 세우고 연물을 치면서 큰굿을 하던 곳) 농악놀이, 음력 10월의 시만곡대제(추수감사제) 걸궁 등을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 나. 제주도 풍물놀이의 가락 구조<sup>46)</sup>

제주도의 걸궁은 그 형식에 있어서 한(韓) 본토의 농악과 유사한 점이 많지만 가락 구조, 즉 리듬과 장단에 있어서는 사뭇 다른 점들이 있다. 제주도 걸궁에서

46) 앞의 책, 492쪽 요약정리



사용되는 리듬들을 살펴보면 우선 다음 몇 가지 한 본토 지방과 다른 점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한 본토에 비하여 리듬이 조직화되어 있지 못하다.

둘째, 본래는 한 본토에서 사용하는 ‘몇 채 가락’이라는 개념이 없다

셋째, 한 본토에서 사용하는 구체적인 장단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넷째, 팽과리 등 쇠가락의 리듬이 단순하며 변화가 적다.

다섯째, 특정한 연행순서와 특정한 리듬을 관련시키는 경향이 적다.

제주도 걸궁에는 거리굿 가락, 인사굿 가락, 자진 가락, 늦은 가락, 엇그른 가락, 신식 가락, 춤장단 등이 사용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과거의 리듬과 장단의 형태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제주도에서 새롭게 재구성되고 있는 걸궁의 장단들은 본질적으로 제주도적인 리듬들이라고 보기에 어렵다. 앞으로 이 문제는 제주도 무속의 연몰 리듬을 응용하여 걸궁에 새롭게 적용하는 응용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 Ⅲ.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의 개요

#### 1.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의 유래 및 특징

제주는 해양성(海洋性) 기후로 온난다습(溫暖多濕)할 뿐만 아니라 심한 바람이 연중 불어오는 곳이다. 또 화산재로 이루어진 땅은 척박하기 이루 말할 수 없어 농사짓기에 매우 힘들었다. 제주의 주변 바다는 한류와 난류가 만나 형성하는 천혜의 어장으로 다양한 어종을 보유하고 있으나, 고작 돛단배와 뗏목 배인 ‘테우’를 타고 나가 옥돔, 갈치, 멸치, 고등어, 복어, 불락, 오징어 등을 잡거나 해초를 걷어 비료로 이용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sup>47)</sup> 이러한 자연 조건 상황 속에서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던 제주 민중들은 자연스레 신을 의지하여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선보였을 것이다.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은 일 년에 한 번 서해로부터 찾아오는 바람신인 영등할망을 위해 마련되는 무의식, 음력 2월 초하루의 환영제를 시작으로 제주 각 지역에서는 영등신을 위한 굿이 행해지고, 14일 송별제를 끝으로 영등신을 돌려보낸다. 환영제에 비해 송별제는 성대하게 거행되는데, 중요무형문화재 제 71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대표적인 영등 송별제가 바로 칠머리당 영등굿이다.<sup>48)</sup>

#### 2.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의 교육적 활용 방법과 당위성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국가중요문화재이자 유네스코 세계인류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을 소개하고 지역민으로서 애착심을 갖게 하는 한편, 지역의 문화재를 공부하고 배워야하는 당위성을 갖게 하는 방법도 중요한 교육적 의미를 둘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용준은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이 중요무형문화재 지정되어야 함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sup>49)</sup>

47)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 자연유산과 민속문화』, (이지킴, 2008년)

48) 황나영,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의 음악적 구성과 특징』,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년, 1쪽

49) 현용준, 『제주도 마을 신앙』, (탐라문화연구소, 2013년), 150~151쪽

첫째, 칠머리당에서는 매년 영등환영제와 영등송별제, 두 번의 굿을 한다. 이 당굿은 어부와 해녀들의 해상안전과 생업의 풍요를 비는 굿으로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도의 문화적 특성을 잘 반영하는 굿이어서 학술적, 문화적 가치가 높다.

둘째, 현재 남아 있는 제주도의 당굿은 정월달의 신과세제와 2월 달의 영등굿이 주된 것인데, 칠머리당굿은 영등굿이면서 신과세제에 행하는 재차까지도 끼어 있어 그 규모가 상당히 크고 구성이 다채롭다. 그래서 제주도 당굿의 특성이 잘 드러나 있다.

셋째, 제주도의 당굿들은 근래에 와서 거의 없어졌거나 몇 군데 남아있다 해도 약식화되어 당굿으로서의 원(原)모습을 잃고 있는데, 칠머리당 굿은 원모습을 잃지 않고 큰 규모의 굿으로 행해 내려왔다. 이 이유는 제주도에 가장 큰 항구인 제주항에 정박하는 선박의 선주, 선원들과 시내의 해녀들의 신앙대상이 되어 있고, 그들이 주동이 되어 제대로의 굿을 해왔기 때문이다.

넷째, 칠머리당굿이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될 경우, 이 당굿을 할 수 있는 기능보유자가 제주시내에 있고, 또 어부 해녀 등 신앙민들이 많아서 전과 다름없는 당굿을 시행, 전승 보존될 수가 있다.

더불어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을 학교현장에서 소개할 때 칠머리당 영등굿의 주신(主神)을 소개하고 과거의 전설을 각색하여 재미있게 소개한다면 학생들의 호기심을 갖게 하고 우리 지역 문화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흥미를 갖게 될 것이다.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의 주신(主神)에 대한 내용은 본풀이가 있어 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으니 그 내용을 인용<sup>50)</sup>하자면 다음과 같다.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의 주신(主神)은 도원수감찰지방관(都元帥監察地方官)과 요왕해신부인(龍王海神夫人)이다. 이 두신은 부부 신으로서 이 마을의 본향신이다.

도원수감찰지방관이 출생하기는 강남천자국 가달국에서 솟아났는데, 하늘은 아버지요, 땅은 어머니다. 장성하니 천하명장이 되었다. 이때 강남천자국에 남북적이 강성하여 국가가 어지러우니 도원수가 천자님 앞에 들어가 변란을 평장할 겸을 허가받고, 언월도(偃月刀), 비수검(匕首劍), 나무활, 보래활, 기치창검(旗幟槍劍)을 일월(日月)이 영롱하게 차려나왔다. 백만 대병을 거느려 적진에 나서서 남북적을 평정하니 천자님이 크게 기뻐하여 칭찬하고 소원을 말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도원수는 모든 것을 사양하고 백만 대병을 거느려 용왕국으로 들어가서 용왕부인을 배필로 정하고 제주도로 들어왔다. 먼저 한라산 백록담에 올라가 진을 치고,

50) 앞의 책, 158~159쪽

어디로 갈까 해서 보니 황새왓에 혈이 떨어진 듯 하므로 황새왓으로 내려와 진을 쳐 보니, 혈은 산지칠머리로 떨어져 있으므로 칠머리로 내려와 좌정(坐定)하여, 산지(견입동) 백성들의 낡은 낱 생산(生産)을 차지하고, 죽은 낱 물고(物故)를 차지하고, 호적(戶籍) 장적(帳籍)을 차지했다. 앉아 천리를 보고 서서 만리를 보는 한집님(당신)이다.

요왕해신부인(龍王海神夫人)은 만민해녀(萬民海女)와 상선(上船), 중선(中船)을 차지하고, 서양 각국, 동양 삼국에 간 모든 자손들을 차지해서 장수(長壽)장명(長命)과 부귀공명을 주는 한집님이다.

본 논고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무가(巫歌)란 무당의 노래이다. 곧, 이 노래는 무당이 부르는 신의 노래로써 제주도 무속사회에서는 본풀이라고 말한다. 본풀이는 본디 무속에 나타나는 신의 내력담이겠지만, 이것에 주술관념이 첨가됨으로 해서 신의 노여움을 해소시키고, 악신으로부터 해탈을 피하는 한편, 심신의 안정을 초래케 하는 기능이 있다고 믿고 있는 무당의 노래인 것이다. 진성기의 무가 본풀이 사전<sup>51)</sup>에서 밝히는 본풀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풀이는 제주도역사의 원천이라 할 수 있다. 누군가 제주도의 역사를 쓰건 상고사(上古史)의 기록은 이 본풀이를 외면하고는 쓸 수 없을 것이다.

둘째, 본풀이는 제주문학사에서 운문(韻文) 문학의 시조라 할 수 있다. 그것은 무가로 구송되어 온 가장 오랜 노래이며 제주도에서 자연환경과 싸우거나 적응하여 살아온 우리 조상들의 남녀의 사랑·미움·실패·성공 등 모든 사건에 얽힌 역사의 단면들이 현대인에게도 풍부한 감동을 줄 수 있는 서정성과 서사성을 갖춘 서민 문학으로서의 뿌리 깊은 생명력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셋째, 본풀이는 제주도민의 사상적 근원을 이루고 있다. 제주도민의 이상(理想)이라든가 생활관, 인생관, 세계관, 우주관, 신격관이 소박하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넷째, 본풀이는 제주도민의 도덕적 생활규범의 바탕이라 할 수 있다. 제주도에는 신화·전설·민요를 비롯한 구비 전승이 많지만, 그 가운데서도 도민 생활의 깊숙한 내면에서 전통적인 도덕적 규범을 설정하고, 다수 도민의 정신을 지배해 온 것이 이 본풀이인 것이다.

위에서 제시한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은 교육적 활용가치에 있어 현재로서의 문화적 가치와 본풀이가 가지는 의미에 의해서 충분히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지역적 문화로서의 그 활용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겠다.

---

51) 진성기, 『제주도 무가 본풀이 사전』, (민속苑, 1990년), 머리말

### 3.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의 제차의식(第次儀式)

본 논고에서의 제주도 칠머리당 영등굿의 활용방안은 초등학생이 손쉽게 접근 가능하고 장단이 비교적 단순한 무가(巫歌)로 제한하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에서 칠머리당 영등굿의 제차의식을 살펴보는 일은 중요한 것이다. 앞서 많은 학자들이 칠머리당 영등굿을 연구했지만 제차의식을 간단하게 요약 설명한 김형진의 글<sup>52)</sup>을 인용하고자 한다.

#### 가. 초감제

초감제는 굿의 규모에 관계없이 공통적, 기본적으로 행해지는 무의(巫儀)이다.

##### 1) 베포, 도업침

수심방이 천지개벽(天地開闢)부터 일월성신(日月星辰)의 발생, 산수(山水), 국토(國土)의 형성, 국가의 발생, 중국, 한국의 역사, 지리 등, 자연(自然), 인문사상(人文事象)의 발생을 차례차례 노래해 간다. 한 단락의 노래가 끝나면 악기의 반주가 울리고 그에 맞춘 춤을 추고, 춤이 끝나면 다음 단락을 노래해 가는 형식으로 집행해 간다. 이 자연 현상의 발생을 노래하는 부분을 ‘베포친다’고 하고, 인문 현상의 발생을 노래하는 부분을 ‘도업친다’고 한다.

이 해설은 신들에게 굿을 하는 장소를 설명하기 위하여 천지개벽부터 거슬러 올라가 확대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개벽신화(천지왕 분풀이)도 노래 불러진다.

##### 2) 날과 국섬김

위의 자연, 인문 사상의 해설이 점점 좁혀 들어가 굿을 하는 장소의 지리적 설명을 하고, 굿을 하는 날짜를 노래로 신들에게 고하는 제차이다.

##### 3) 연유 닦음

날짜와 장소의 설명에 이어서 당굿을 행하는 동기와 이유를 신들에게 노래로 고하고, 신들이 강림을 청하는 제차이다. 해상의 안전과 풍어 등을 비는 굿의 목적을 고한다.

52) 김형진, 『제주도 칠머리당 영등굿 무가연구(巫歌研究)』,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악교육전공 석사 학위논문, 2002년, 9~16쪽

#### 4) 군문 열림

신들의 강림을 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역(神域)의 문을 열어야 한다. 신궁문(神宮門)을 열기 위해 심방은 빠른 장단의 노래와 격렬한 ‘도랑춤’을 춘다.

#### 5) 분부 사뤄

신궁문(神宮門)을 연후, 문이 제대로 열렸는가를 신칼과 산판으로 점치고 그 결과를 곳에 모인 신앙민들에게 설명한다. 이 신의(神意)의 전달은 신의 대변자로서 본래 신탁(信託)의 의미가 있었다. 곳을 진행함에 따라 심방은 신들의 의사를 곳곳에서 점쳐 판단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한다.

#### 6) 새드림

신궁문(神宮門)이 열려서 신들이 강림할 순서가 되었으므로 신들이 하강하는 길의 모든 사악한 기운과 부정한 것들을 쫓아내는 제차이다. ‘새드림’이란 「사(邪) 쫓음」의 뜻인데, 심방의 노래는 사(邪)가 새(鳥)로 와전(訛傳)되어 모든 조류(鳥類)를 쫓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푸다시 곳에도 사용되며 푸다시 장단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 7) 오리정, 신청례

신들이 오는 길의 사(邪)를 쫓아 깨끗하게 했으므로 신들을 청해 들이는 순서이다. 심방은 소위 일만 팔천 神이라는 신들을 위계 순으로 그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청해 들어 제상에 좌정하도록 한다. 이 단계에도 신들의 강림 여부를 점치고 신의를 사람들에게 전달한다.

#### 8) 열명 올림

곳에 참석한 사람들의 명단을 올려 축원하는 제차이다.

이상으로 초감제는 일단 끝난 것이다. 이 긴 가무(歌舞)의 의례(儀禮)과정을 요약해 보면 결국 ‘언제, 어디서, 무엇 때문에, 누가 이 곳을 하여 神들을 청합니다.’고 하고, 神宮門을 열고, 신들의 하강하는 길의 사악한 것을 쫓고, 그래서 신들을 청해 들어 좌정시키는 청신의례(請神議禮)라 할 수 있다.

### 나. 본향듬(초신맞이)

제주 칠머리당의 본향당신인 도원수감찰지방관과 용황해신부인을 청해 들이는 제차(第次).

#### 1) 베포. 도업침: 초감제와 동일

2) 날과 국 섬김: 초감제와 동일

3) 연유 닦음: 초감제와 동일

4) 군문 열림

초감제와 형식은 같으나 본향당신이 오는 문만 연다.

5) 오리정. 신청례

본향당신을 청해 들이는 차례이다. 그리고 본향당신을 따라온 잡신 군병(군졸)들을 대접하는 ‘음복지주잔을 내던지는’ 순서가 이어진다.

6) 삼헌관 절 시킴

상선, 중선, 해녀대표 각 1인이 3헌관이 되어 본향당신에게 역가상(폐백상)을 올리고 배례하는 제차(第次)이다.

7) 자손들 소지 올림

곳에 참석한 사람들이 절을 하고, 심방이 축원하는 제차이다.

8) 도산 받아 분부 사됨

마을 전체의 일 년 운수를 알기 위해 무상으로 신의를 알아보고 전달하는 제차이다.

9) 석살림

흥겨운 가락과 춤으로 신들을 즐겁게 하고 기원하는 위계이다. 이때 ‘서우젓 소리’가 가창된다. 이때는 신앙민이나 구경꾼, 심방 모두가 ‘서우젓 소리’에 맞추어 흥겹게 어우러져 춤을 춘다.

#### **다. 요왕맞이**

용왕과 영등신이 오는 길을 닦고 청하는 제차(第次)이다. 바다를 관장하는 용왕신을 제장으로 맞이하는데, 영등신과 더불어 동반한다.

1) 배포 도업침: 초감제와 동일

2) 날과 국 섬김: 초감제와 동일

3) 연유 닦음: 초감제와 동일

4) 군문 열림: 초감제와 동일

5) 요왕 질침

바다를 관장하는 용왕신과 영등신을 제장으로 맞이하는 길을 닦아 맞아들이는 제차(第次)이다.

6) 신청례: 초감제와 동일

7) 나까도전침(나까사리 놀림)

시루떡을 공중으로 던졌다 잡았다 하는 형태로 춤을 추면서 신들에게 이것을 올리고 하위 잡신들도 대접하는 순서이다. 이 시루떡을 ‘나까시리’라 한다.

지장본풀이는 다음과 같은 설화에서 유래한 사(邪)를 쫓는 행위이다.<sup>53)</sup>

절간에서 한 여인이 자식 낳기를 기원하여 지장이라는 딸아기를 낳았다. 네 살 때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죽고 다섯 살 때에 아버지가 죽고, 여섯 살 때는 어머니가 죽었다. 팔자가 사나운 지장아기는 할 수 없이 외삼촌 집으로 수양을 갔는데, 거기에서도 학대를 받아 집을 나왔다. 그런데 하늘에서 큰 봉새가 내려와 날개로 덮어 보호하고 밥을 주며 길러주었다. 그러다가 열다섯 살이 되어 서수왕 아들과 결혼을 하였는데 또다시 시할아버지, 시할머니가 죽고 시아버지가 죽고 결국 남편마저 죽었다. 지장아기씨는 팔자가 너무 기구하여 자나가는 중에게 짐을 쳤다. 그 중은 굶을 하여 근친 명복을 빌어야 한다고 하였다. 지장아기씨는 마을 집집을 돌아다니며 제물을 준비하여 심방을 불러 공양무의(供養舞儀)를 행한 후 죽었다. 지장아기씨가 죽어서 새의 몸으로 환생하였는데 이 새가 여러 가지 일을 방해하는 사(邪)라 한다.

8) 방광침

해녀작업이나 고기잡이 나갔다가 죽은 영혼들에게 술을 대접하고, 위로하고, 용왕 신에게 이 영혼들을 좋은 세계로 인도해 주도록 기원하는 제차(第次)이다.

9) 요왕문 열림

굿판이 열리는 장소 중앙 바닥에 1m정도의 푸른 잎이 달린 대나무를 8개씩 2열로 꽂아 세운다. 이 때에는 백지, 지전(紙塵) 등이 달려진다. 이 때의 열을 ‘용왕문’이라 하여 용왕과 영등신의 내림(來臨)하는 길을 상징하는 것이다.

용왕과 영등신이 내림(來臨)하는 길을 치워 닦는다. 이를 ‘질침’이라 하는데, 그것은 신의 내림하는 길을 돌아보니 해조류가 무성한 길이라 하여 그 길의 해조류를 베어 정리하고, 그 뿌리를 파고, 구르는 돌맹이를 정리하고, 지면을 평평하게 하여 비로 쓰는 등, 길을 청소하는 행위를 하여 요왕다리라고 하는 무명천을 그 두 줄의 대나무 사이 길에 까는 것이다. 이 질침 과정을 심방이 노래와 춤으로 전개해 간다. 그래서 신을 맞아들이면 잠수회의 간부들이나 선주들이 엮드려 인정(돈)을 올리고 심방이 해상의 안전과 어부, 해녀 작업의 풍요를 빈다. 그리고 나서 ‘요왕문을 연다’

53) 김미영, 『제주도 칠머리당 영등굿의 구성 및 북가락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1995년, 36~37쪽



라고 하여 세워 놓은 대를 차례로 하나씩 뽑아 정리해 간다.

#### 10) 지아ړ

용왕신이나 바다에서 죽은 영혼들에게 제물을 백제에 싸 바다에 던져 대접하는 제차(第次)이다.

곳에 참석 한 사람들이 자기가 기원하는 바에 맞게 백지에 여러 제물을 조금씩 떠 넣어 싸고 바다로 나가 던진다.

#### 라. 마을도액 막음(소만이 본풀이)

마을의 액을 막는 절차인 ‘소만이 본풀이’를 하고 닭을 죽여서 던진다. 곧 사람 대신 닭을 잡아가지도록 하는 절차이다.

소만이 본풀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옛날 가난한 사만이 시장에서 조총(鳥銃)을 하나 사고 수렵을 시작했다. 어느 날 수렵 도중 해골을 하나 주워서 집에 돌아와 방에 모시니 그로부터 사냥이 잘 되어 부자가 되었다. 몇 년 후 해골이 사만에게 이젠 너의 정명이 다 되었으므로 여기에 있어도 먹고 갈 수 없다. “본래 있던 곳으로 가져가 달라”라고 하는 것이었다. 사만이 명(命)을 연장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도록 부탁하자 “너를 잡으러 오는 저승의 사자를 흡족하게 대접하라”고 일일이 가르쳐 주었다. 그대로 제물을 차려서 사자(使者)를 대접하니 사자(使者)는 사만을 잡아가지 않을 뿐 아니라 저승에 돌아가 열라대왕의 서류에 쓰여 있는 사만의 정명을 살짝 고쳐 주었다. 그래서 사만이는 장수하여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이다.

#### 마. 씨드림. 씨점

망태기를 들고 나온 심방이 씨를 뿌리는 모습을 흉내 내면서, 미역, 전복, 소라의 씨를 파종(播種)하는 흉내를 낸다. 그리고 좁씨의 흩어진 밀도를 관찰하여 바닷가 지역마다의 해산물의 풍과 흉을 점친다.

씨점이 끝나면 ‘서우젓 소리’ 노래를 부르며 곳에 참가한 사람들이 삼삼오오 춤을 추면서 산과 더불어 즐긴다.

#### 바. 영감놀이

영감놀이는 칠머리당 곳에만 있는 연회형태의 특이한 곳이다.

‘영감’은 일명 ‘참봉’, ‘야채’ 등이라 하는데 모두 도깨비를 존칭한 말이다. 도깨비는 제주 방언으로 ‘도채비’라 하는데 일반은 도깨비불(魂火)로 생각하기도 하고, 인격화된 신령(神靈)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 사. 배방선

영등신을 칭송 하는 제차(第次)이다.

## 아. 도진

모든 신을 돌려보내는 제차(第次)이다.

## 4. 제주도 굿에 사용된 악기<sup>54)</sup>

제주도 굿에서 쓰이는 악기는 징, 설쇠, 북, 장구 등 타악기만이 쓰이고 피리, 젓대, 해금 같은 선율악기는 쓰이지 않는다. 무의식에서 타악기만을 쓰는 지역은 제주도, 동해안지방,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지방 등이다. 제주도 굿에 사용된 악기로는 징, 설쇠, 북, 장구가 있는데 이를 ‘연물’이라 하고 징, 설쇠, 북, 장구의 4종을 갖추었을 경우에는 ‘ㄱ진 연물’이라 한다. 이외에도 요령과 바라는 춤을 추면서 사용하였던 무구이다.

### 가. 징

제주도 굿에서 쓰는 징을 가르켜 ‘대양’ 혹은 ‘울집’이라고 부른다. 대양은 세수할 때 쓰이는 대야를 사투리로 ‘대양’, ‘대영’이라 이르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믿어진다. 낮으로 만들어졌으며, 직격은 약 32cm 깊이는 9cm 정도의 것으로 둘레에는 손잡이용 끈이 달려 있어 한쪽 손으로는 들고 다른 한쪽 손으로는 굽은 채를 가지고 쳐 울리게 되어 있다. 제주도 무악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악기로써, 주로 장단 첫 박에 많이 치며 북, 설쇠와 더불어 32 춤의 반주에 많이 쓰인다.

이 징에 대한 제주인들의 생각은 산육신(産育神) 신화(神話)인 삼승할망 본풀이에 나타나 있는데 그 줄거리를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sup>55)</sup>

지상에 아직 산신(産神)이 결정되어 있지 않은 때 동해용왕 따님아기가 산신이 되려고 하여 이 땅에 와서 임박사 부인에게 자식을 잉태시켜 주었다. 그런데 아기를 해산시키는 방법을 몰라서 열두 달이 되어도 해산시킬 수 없어서 산부(産婦)나 뱃속의 아기가 위험한 상태에 빠졌다. 임박사는 고민 끝에 산정에 제단을 차리고 부지런히 징을 치면서 하늘에 호소를 했더니, 이 징

54) 김미영, 『제주도 칠머리당 영등굿의 구성 및 북가락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1995년, 23~26쪽

55) 김형진, 『제주도 칠머리당 영등굿 무가연구(巫歌研究)』,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악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2002년, 39~40쪽

소리가 옥황상제의 귀에 들려 임박사의 호소가 전달되고, 드디어 명진국 따님아기씨가 정식으로 산신으로 취임하게 되었다는 삽화가 전해진다.

### 나. 장구

제주도에서 쓰이는 장구는 ‘장귀’라고도 부르며, 육지 지방의 것과 비교하여 보면 약간 작다. 장구는 직경 30cm 내외로 되어 있고 통의 길이는 45cm 내외 것으로 나무통은 중앙 부분에서 3부분으로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3동막 살장고’라 한다. 오른손으로는 가늘고 긴 대나무로 만든 열채를 쥐고, 오른편 북판을 치며 변죽은 치지 않는다. 왼손은 손바닥을 펴서 북판을 친다. 장구는 무가 반주에 주로 쓰인다.

### 다. 북

북은 ‘울북’이라고도 한다. 높이 22cm 정도의 북통 양면에 쇠가죽을 붙인 양면고(兩面鼓)로서 직경은 35cm 정도 된다. 육지지방에 비하여 지름이 크고 높이가 얇아서 넓적하게 된 것이 많다. 모양은 풍물북과 같아서, 못으로 가죽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노끈이나 가는 가죽을 번갈아 엮어맨다. 북채는 손가락 굽기의 대나무 밑동으로 만든 것이고 끝은 대나무 뿌리 부분으로 공기와 같이 조금 굽게 되어 있는데 끝이 밖으로 약간 휘어지도록 만들어져 있다.

북은 주로 남자가 치며, 얇은 소쿠리나 바구니에 북을 비스듬히 세워 놓고 양손에 북채를 갈라 쥐고 북의 한 면만을 친다. 오른손을 아래에 두고 왼손을 위에 두고 치기 때문에 오른손에 드는 채를 ‘알채’, 왼손의 채를 ‘윗채’라고 부른다. 주로 채는 번갈아 가면서 치며 알채를 주박(主拍)에서 크게 친다. 또한 심방의 굿소리(굿노래)에 대한 반주로서 북을 칠 때는 판소리의 북장단을 치는 것과 같이 두 손으로 가죽을 친다.

굿에서 북은 춤의 반주에 쓰이고 그 밖에 소리 반주에도 쓰이는데 춤의 반주에는 설쇠, 대양과 함께 편성된다.

### 라. 설쇠

육지 지방의 팽과리를 이곳 제주도에서는 ‘설쇠’라 부른다. 육지 지방의 팽과리와 비슷한 소리를 내지만, 그 형태나 연주하는 방식은 다르다. 설쇠는 밑이 볼록한 돛쇠그릇 비슷하게 만든 것으로 채를 얹어 놓아둔 그 위에 설쇠를 얹어놓고 형겅으로 끈 설쇠채를 양손으로 쥐고 친다. 리듬꼴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데, 이를 구음으로 설명하면, 돛-광 낮-광으로 시작하여 그 빠르기가 점차적으로 빨라지면

‘열두 당번’으로 치게 된다. 주로 심방이 춤을 출 때에 소미가 설쇠로 반주한다.

#### 마. 요령

‘방울’이라고도 하며 악기라기보다 ‘바라’와 같이 무구(巫具)의 하나이다. 음향을 발하여 악기와 같은 효과를 내기도 하지만 다른 악기와 합주하는 것이 아니고, 절차 중간부분에 흔들여 소리를 낸다.

심방들은 요령소리가 신역의 문을 열고 신을 청해 들이는 기능이 있다고 밝히는데 무조신화(巫祖神話)인 초공본풀이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절간에 기도하여 낳은 딸을 남기고 벼슬살이 나가는 부모가 딸의 안전을 위하여 방 안에 가두고 단단한 자물쇠를 잠가두었다. 이때 황금산 절(寺)의 스님이 이 집을 찾아와서 요령을 세 번 흔들여 울리자 단단히 잠긴 딸의 방문이 저절로 열려서 딸이 나왔다. 스님은 딸의 머리를 세 번 쓸고 무조신(巫祖神)을 잉태시켰다는 설화가 있다.<sup>56)</sup>

#### 바. 바라

흔히 ‘바랑’이라고 부른다. 낫쇠로 만든 접시 모양의 것으로 배면(背面)의 중심 부에는 끈이 붙어 있다. 이것은 육지 본토의 타악기인 ‘바라’, ‘자바라’와 비슷한 모양을 갖춘 것으로 근래에는 바랑이 거의 없어져서 낫쇠로 만든 밥그릇 뚜껑을 가지고 대응하는 일이 많다.<sup>57)</sup> 육지 지방에서와 같이 둥글게 낫쇠판을 쳐서 만든 것도 있지만 대개 낫사발 뚜껑 두 개를 마주쳐서 대신하기도 한다. 바라는 흔히 쓰이는 것이 아니고 [불도 맞이] 나 [석살림]과 같은 불교적 색채가 짙은 절차에 흔들여 소리를 낸다.

#### 사. 산판

산판은 천문, 상잔(산잔(算盞)), 산대(算臺)로 이루어져 있다.

천문은 낫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직경 6cm 내외의 엽전 모양의 것이다. 중앙에 네모난 구멍이 있고 표면에는 ‘천지일월(天地日月) 또는 천문일월(天門日月) 혹은 천지문(天地門)’이라는 문자가 새겨져 있다.

상잔(算盞)이란 직경이 4cm 내외, 깊이 2cm 내외의 낫 제품으로 술잔과 같은 것이다. ‘상’은 산(算)의 변음으로 점(占)의 의미가 있고 잔(盞)은 술잔의 의미로

56) 현용준, 『제주도 무속 연구』, (집문당, 1986), 420쪽

57) 김지수, 『제주도 칠머리당굿의 형식과 춤사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전통문화무용대학원, 2003년, 33쪽

곧 점치는 잔이라는 의미의 말이다.

산대(算臺)는 직경이 11cm 내외에 깊이 1cm 정도의 접시 모양의 것으로 점치는 잔의 대(臺)라는 말이다. 이 산대 위에 천문 두 개와 상잔 두 개를 올려놓아 이 것을 한 조로 하여 산판(산반(算般))이라 총칭한다. 그 형태로 보아 옛날의 엽전을 모양 짠 것임에 틀림없다. 천문을 지방에서와 같이 둥글게 놋쇠판을 쳐서 만든 것도 있지만 대개 놋사발 뚜껑 두 개를 마주쳐서 대신하기도 한다. 바라는 흔히 쓰이는 것이 아니고 [불도 맞이] 나 [석살림]과 같은 불교적 색채가 짙은 절차에 혼들어 소리를 낸다.

이 산판이 무구(巫具)로 된 유래도 초공본풀이에 설명되어 있다.

양반의 자식들 때문에 과거 급제를 취소당한 삼 형제가 아버지인 소사 중을 찾아가서 억울함을 호소하자, 아버지는 “여기에 올 때 무엇을 본 것이 없느냐”라고 묻는다. 이에 “처음에는 하늘을 보고 다음에 땅(地)을 보고 마지막에 문(門)을 보았습니다.”라고 삼 형제가 대답하니, “너희들이 여기에 올 때 본 것처럼 천지를 공경하고 집집마다 문을 돌아다니면서 곧 무의(巫儀)를 하여 돌아다니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해서 천지문(天地門)이라는 문자가 새겨진 천문(天文)을 주었다고 하고, 또 상잔은 어머니가 삼 형제를 낳았을 때 목욕시킨 그릇이라 한다. 그래서 천문은 남자를, 상잔은 여자를 상징한다고 한다.

또 다른 무조신(巫祖神)인 유씨 부인의 이야기에는 유씨 부인이 7세 때 어떤 중으로부터 엽전 세 개를 받았는데, 원인 불명의 병에 걸리고 77세까지 병으로 고생하다가 77세 때에 드디어 무의(巫儀) 하기 시작하여 병이 낫고, 천지(天地)의 모든 것을 아는 심방이 되었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천문(天文)이 엽전으로부터 유래한 것을 말해준다. 한편 상잔(算盞)은 무조신(巫祖神) 삼 형제가 목욕한 그릇이라고 설명되어 있지만, 이것은 설화적 결부일 뿐이고, 실은 문자 그대로 제기(祭器)의 술잔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 아. 신칼(58)

신칼은 길이 25cm 내외, 날의 길이가 13cm 내외, 자루의 길이 12cm 내외의 것으로 자루에는 창호지를 길게 꿰은 다음 묶어 맨 끈이 달려 있다. 이를 ‘신칼치마’라고 한다. 옆면에는 S자 모양처럼 흔들흔들하게 가늘고 긴 김선이 새겨져 있는 것이 많고 또 자루는 일직선이 되지 않아서 조아져 있는 모양으로 되어 있다. 이 신칼로 신의(神意)를 알아보는 점을 친다.

이 신칼이 기본무구(基本巫具)로 된 데 대하여는 초공본풀이가 그 배경 설명을

---

58) 위의 논문, 32쪽

하고 있다. 초공본풀이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sup>59)</sup>

옛날 임정국 대감과 김진국 부인이 부부가 되었다. 쉰 살이 가까워도 자식이 없으므로 황금산 절에 불공을 드려서 딸자식을 낳았다. 이름을 자지맹황 아기씨라 지었다. 이 딸이 15세 되는 해에 부모는 딸을 집에 남겨 둔 채 벼슬살이를 떠나게 되었으므로 안전을 위해 딸을 방안에 가두고 단단한 자물쇠를 잠갔다. 그래서 창구멍으로 밥을 주어 기르도록 했다.

어느 날 황금산 절의 소사 중이 시주를 얻으러 왔다. 딸은 방안에 갇혀 있었으므로 쌀을 내어 드릴 수가 없었다. 소사 중은 이 딸로부터 직접 시주를 받기 위하여 요령을 세 번 흔들어 울렸다. 그러자 천지가 진동하는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스스로 열리고 딸이 바깥으로 나와 쌀을 드렸다. 소사 중은 쌀을 받고 딸의 머리를 세 번 쓸어 주고 가 버렸다. 그로부터 딸은 이상하게 식욕이 없어지고 신 개살구나 오미자 따위가 먹고 싶어지고 몸이 점점 나빠져 갔다. 부모가 급히 돌아와 보니 아기를 잉태하고 있는 것이었다.

부모는 딸을 죽이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으므로 하녀와 같이 내쫓아 버렸다. 딸은 먼 길을 떠났다. 도중에 칼 선 다리가 있었다. 이 다리를 지날 때 하녀는 “아버지가 내쫓을 때 자식을 죽이려 했으므로 칼 선다리가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한다. 다음에 애선 다리에 이르렀다. 하녀는 “부모와 자식이 이별할 때 애선 마음(가련한 마음)을 가졌으므로 애선다리가 있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이 다리를 지나니 등진 다리가 있었다. 하녀는 “부모와 자식이 이별할 때 등을 지는 마음을 가졌으므로 등진다리가 있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이 다리를 지나가니 오른다리(혹은 조문현다리)가 있었다. 하녀는 “부모와 자식이 이별한 후 옳은 마음을 가졌으므로 오른다리가 있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이 다리를 지나가고 청수(淸水)바다 흑수(黑水) 바다를 차례차례로 지나가게 되었다. 거북이 도움을 얻어서 그 등에 타 바다를 지나가니 황금산 절에 도착하여 소사 중을 만날 수 있었다.

소사 중은 부부 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멀리 집을 지어서 살도록 해 주었다. 딸은 그 후 9월 8일이 되니 배가 아프기 시작하여 오른쪽 겨드랑이로 남자 아기 하나를 낳고, 9월 18일이 되니 또 오른쪽으로 남자 아기를 하나 낳고, 9월 28일이 되니 또한 마찬가지로 남자 아기를 또 하나 낳았다. 삼 형제를 장남으로부터 차례로 본맹두, 신맹두, 삼맹두라고 이름 지었다.

중의 자식인 이 삼 형제는 자라나서 일곱 살이 되어 서당에 가서 공부를 하고 열다섯 살이 되니 양반의 자식들과 같이 문과(文科) 과거를 보러 갔다. 양반의 자식들은 다 낙방을 하는데, 삼 형제는 과거에 급제를 했지만, 중의 자식에게 과거를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양반의 자식들이 항의하므로 과거 급제는 취소당했다. 다음은 무과(武科) 과거를 치렀다. 이 과거에도 삼 형제는 급제를 했다. 낙방한 양반의 자식들은 이 과거도 취소시키기 위하여 삼 형제의 어머니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 삼 형제는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스스로 과거를 포기하고 아버지인 소사 중을 찾아 의논했다. 그러자 아버지는 “어머니를 구하려면 너희들이 심방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면서 천(天),

59)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142~177쪽

지(地), 인(人)이라고 새겨진 천문을 주고 어머니를 구하는 방안을 가르쳐 주었다. 삼 형제는 산에 올라 머구나무를 끊어다 쇠가죽, 말가죽을 붙여서 북과 장구를 만들었다. 또 모래로 틀을 떠서 산판과 신칼을 만들었다. 아버지가 가르쳐 준 대로 이 무구(巫具)를 갖고 나흘 간 악기를 울리면서 굿을 하니, 감옥의 문이 스스로 열려 모친을 구할 수 있었다. 삼 형제는 이 신칼을 내두르며 양반의 자식의 목을 베어 복수를 했다.

지금까지 제주도 굿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무구(巫具)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조사를 하면서 느낀 것은 이러한 무구가 나타난 배경이 전설로써 혹은 신화로써 재미있게 표현되었다는 점이다. 학교 현장에서도 제주도의 굿을 설명할 때 위의 신화들을 재미있게 각색하여 전해 준다면 좀 더 효과적으로 우리 지역의 전통 문화인 제주굿을 지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표 III-1 > 제주도 곳에 사용된 악기60)

	
<p>대영(제주도 징)</p>	<p>장귀(제주도 장구)</p>
	
<p>울북(제주도 북)</p>	<p>설쇠(제주도 팽과리)</p>
	
<p>요령</p>	<p>바라(바랑)</p>
	
<p>산판</p>	<p>신칼</p>

60) 인터넷사이트 문화콘텐츠닷컴 > 문화원형라이브러리 > 주제별 문화원형 > 종교/신앙>한국의 굿  
[http://www.culturecontent.com/content/contentView.do?search\\_div=CP\\_THE&search\\_div\\_id=CP\\_TH E002&cp\\_code=cp0444&index\\_id=cp04440271&content\\_id=cp044402710001&search\\_left\\_menu=8](http://www.culturecontent.com/content/contentView.do?search_div=CP_THE&search_div_id=CP_TH E002&cp_code=cp0444&index_id=cp04440271&content_id=cp044402710001&search_left_menu=8)



## IV. 제주 무가를 활용한 풍물놀이 지도 방안의 실제

### 1. 국가무형문화재를 활용한 풍물놀이 지도 내용 선정

위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본 결과 제주도는 아직까지 걸궁이라는 풍물놀이가 존재하기는 하나, 가락과 진풀이가 체계적으로 남아 있지 않고 그것도 한본토에서 전해진 것을 지역적 특성에 맞게 변형하여 사용하거나 재창작했던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지역의 민속축제인 탐라 문화제와 같은 행사에서 걸궁이나 민속놀이경연 대회를 통해 제주 지역에 맞는 민속 문화를 보존 계승하려는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행해지는 공연은 직업으로 삼고 있는 연희자들에 의해 재창작된 작품에 가깝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초등학교 현장에서의 풍물놀이 지도방안 역시 위의 교훈을 되새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국가나 지방에서 문화재로 지정하여 잘 보존되고 있는 풍물놀이의 전수를 통해 초등학생에 맞는 가락을 선정하고 적합하게 재구성하여 지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제주 지역의 특수성이나 제주 지역의 독특한 문화를 대변할 수 있는 대표적인 굿문화를 풍물놀이에 접목한다면 제주 지역만의 차별화된 풍물놀이 지도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본인 스스로의 제한된 경험 속에서나마 그동안 경험했던 풍물굿이나 농악에서의 대표적인 장단을 추출하고 제주 지역의 칠머리당 영등굿 중 초등학생에게 지도 적합한 무가(巫歌)나 장단을 접목하여 지도하여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풍물장단은 우리나라의 풍물 판도에서 구분했던 웃다리 풍물 중에 국가무형문화재로 보존되고 있는 평택농악, 호남 좌도의 국가무형문화재 임실 필봉굿, 호남 우도의 국가무형문화재 이리농악과 시·도 지정 무형문화재 고창농악, 영남 농악의 대표적인 진주 삼천포 농악에서 초등학생에게 비교적 어렵지 않고 독특한 진풀이를 구사하는 장단을 추출하였다.

초등학교에서 풍물놀이를 지도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지도 내용을 선정하고 지도하고자 한다.

첫째, 초등학교에서 1년마다 학년이 바뀌는 점을 감안하여<sup>39</sup> 겹가락보다는 홑가락 위주로 변형하고 학생들이 가락을 연주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다. 초

등학생의 풍물놀이 지도는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방과후 수업 시간을 이용한 자체 동아리 활동을 운영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다. 물론 음악이나 관련된 교과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기는 하나, 단일 반으로 풍물 동아리를 구성하는 것이 어렵고 지속적인 학교 동아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학년의 동아리 활동을 원하는 학생을 모집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위에서 제시한 것처럼 창체시간이나 방과후 시간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판단되어진다.

둘째, 풍물놀이는 가(歌)·무(舞)·악(樂)이 종합된 우리 조상들의 연희 예술이라는 가정 하에 가락 지도뿐만 아니라 소리와 춤이 가미(加味)되어 신명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데에 지도 목적을 두고자 한다. 본래 풍물놀이가 행해졌던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서로 함께 이야기 나누고, 풍물놀이를 공연할 때의 바른 마음가짐이나 자세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풍물반 동아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보는 이로 신명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악기를 연주하는 치배뿐만 아니라 잡색들의 역할에 맞는 연기 지도가 필요할 것이며 이것이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 2. 풍물놀이와 접목 가능한 제주 무가와 연물 장단 선정

본 연구에서 접목하고자 하는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의 무가와 장단을 활용하고자 인간문화재 김운수 심방을 비롯한 현재 굿에 대한 연구 활동을 활발히 하거나 소미로써 연물 악기를 연주하는 분들을 찾아 초등학교에서 접목 가능한 무가와 장단에 대해 의견을 듣고 적합한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이 과정을 종합해볼 때 비교적 장단이 규칙적이며 풍물장단과 어울릴만한 무가는 새드림, 서우제소리, 푸다시 등이 있으나 풍물놀이 지도방안에 들어갈 제재를 새드림과 푸다시로 한정하고 지도방안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단, 조사된 새드림과 푸다시 장단이 초등학교 수준에 비해 복잡하거나 어려울 경우 쉬운 말로 개사하거나 음을 단순화하는 편곡 작업을 통해 학생들이 이해하는 데 쉽게 재구성하였다.

## 3. 풍물놀이 동아리의 조직과 악기의 이해

풍물놀이 지도 방안 논의에 앞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풍물 동아리를 조직할 때 또는 풍물놀이 반을 운영하고자 할 때 미리 알아두면 좋을 준비사항을 중점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본 논고의 목적은 초등학교에서의 학생들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효과적인 지도 방안을 찾는 것이므로 본 저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기술한 것임을 미리 밝혀둔다.

### 가. 풍물놀이 동아리 조직

풍물놀이는 민속 문화를 배우고자 할 때 각 학년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주제이지만 학생들의 예술 교육이나 우리나라 장단의 지속적인 학습을 목적으로 지도하려 한다면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창의적 체험활동의 동아리 시간이나 방과후 수업으로 동아리 활동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또한 풍물놀이는 학교 대내외 행사나 학교의 특색사업으로 활용 가능하므로 이러한 점을 염두하여 동아리를 조직할 경우에는 1학기 기준이 아니라 1년 기준으로 조직하는 것이 좋다. 악기 특성상 배우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몸으로 표현하는 행위 예술이기에 한 학기에 배우는 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악기가 무겁고 신체적 활동이 많은 활동임을 감안하여 4학년 이상의 학생들을 모집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초등학교의 수업시간은 40분 수업이 일반적인데 악기를 준비하고 정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주일에 동아리시간과 방과후 시간을 연계하여 연 차시로 최소한 2시간 이상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학기가 시작되는 3월에 풍물반을 조직할 경우에는 올 한해 활동계획과 공연계획을 학생들에게 미리 알려주고 1년 동안 꾸준히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대상을 중심으로 조직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만 지속적이고 연계성 있는 풍물놀이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나. 악기의 배정

학생들이 다 조직된 후에는 악기를 배정해야 한다. 우선, 악기를 배정하기 전에 풍물놀이와 사물놀이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고 올 한해의 활동 계획에 대해서도 알려주는 것이 좋다. 풍물놀이와 사물놀이의 차이점은 본 논고의 표4를 참고하여 지도하도록 한다.

풍물놀이는 사물악기 외에 소고, 태평소, 열두발상모, 버나놀이 등과 더불어

잡색놀이의 종합적인 공연이 되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 풍물굿이나 농악의 구성을 참고하자면 학교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약 40명의 인원을 기준으로 만장(깃발) 2명(잡색과 중복 가능), 팽과리 4~5명, 징 2~3명, 장구 8명, 북 8명, 소고 8명, 잡색 7~8명 내외가 적합하다고 여겨진다. 모인 인원 에 따라서 지도교사가 융통성 있게 적당히 배분하면 되지만 쇠소리보다는 가죽소리가 많아야 악기소리가 신명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다.

#### 다. 풍물놀이 동아리의 약속과 규칙 정하기

악기의 배정이 끝나면 이제 본격적인 수업으로 들어가게 된다. 본격적인 장단 학습에 앞서 우선 학생들에게 올 한해 풍물반 활동의 규칙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 하고 약속하는 것이 좋다. 악기관리나 옷관리 모두 일일이 선생님이 관여하기 힘들기 때문에 학기 초부터 악기를2 보관하는 방법이라든가 옷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습관화가 될 때까지 선생님이 관심과 주의를 계속 기울인다면 풍물놀이를 지도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악기나 옷은 번호를 부여하여 학생들 개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학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준다.

< 표 IV-1 > 풍물놀이 동아리의 규칙의 예

1. 선생님이 수업에 오시기 전까지 악기를 가지고 풍물 공부 장소에 모인다.
2. 악기는 선생님이 치라고 말씀하기 전까지 쳐서는 안 된다.  
(풍물악기는 개별로 치게 되면 매우 소란스럽고 시끄러우며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 데 있어 매우 큰 방해가 됨을 학생들에게 인지시키고 양해를 구한다.)
3. 선생님의 말에 주의 집중할 수 있는 집중방법을 사용하도록 한다.  
예) 집중의 악기를~(“덩 덩 쿵덕쿵”)
4. 수업이 끝나면 악기는 본래 있던 제자리에 가져다 정리하며, 악기별로 돌아가면서 마무리 정리할 수 있도록 한다.
5. 옷은 개인별로 보관하도록 나누어주며 공연이 끝나고 나면 깨끗이 빨아서 다시 반납한다.

### 라. 풍물놀이 악기의 소개

풍물반의 약속과 규칙 소개가 끝나면 장단의 진도를 나가기에 앞서 풍물악기를 차례대로 소개하고 풍물악기를 잡는 방법과 특징, 구음을 설명한다.

꽝과리는 보통 끈을 이용하여 왼손으로 잡고 왼쪽 가슴 앞에서 30cm정도 떨어지게 위치하여 잡게 한다. 오른손으로는 채를 잡고 부드럽고 힘 있게 꽝과리를 치게 하는데 갠, 지, 갡의 구음을 설명하면서 지도하도록 한다. 특히, 가락을 배우기 전에 갠과 지를 붙여 갠지의 기본 연습을 많이 하게 하면 가락을 더 쉽게 이해하고 배울 수 있게 된다.

< 표 IV-2 > 꽝과리의 구음 및 연주법

구음	부호	연주법
갡, 갠, 갡	○	강하게 치는 소리. 채가 울림판을 치기 직전에 순간적으로 왼손으로 꽝과리의 울림판을 막아주어야 한다.
지, 개	○	비교적 작게 치는 소리. 울림판 막음 동작 없이 열린 상태로 친다.
지갠	○ ○	‘지’와 ‘갡’을 겹쳐서 치는 소리. ‘지’와 ‘갡’ 사이에 판막음이 있다.
개르르르	○...	잘게 굴려서 친다.
갯, 갯	●	울림판을 막고 닫힌 상태에서 친다.

징은 칠 때 살짝 들어서 치며 최대한 부드러운 소리가 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징을 세게 쳐야만 소리가 잘 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모든 악기를 어우를 수 있는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지도한다.

< 표 IV-3 > 징의 구음 및 연주법

구음	부호	연주법
징	○	징채로 강하게 치는 것
지	○	징채로 약하게 치는 것
짚	●	치는 순간 왼손 손바닥을 이용하여 울림판을 막아 울림이 없는 상태로 친다.

장구는 그 구조가 조금 복잡하므로 악기의 구조와 명칭에 대해 먼저 설명하는 것이 좋다. 장구를 놓는 방법은 조리개가 풀렸을 경우 조리개의 위치가 왼쪽으로 위치하도록 하며, 왼손으로는 궁채를 오른손으로 열채를 잡게 한다. 그리고 장구의 구음 덩, 쿵, 따를 먼저 설명한 후 함께 연습해보도록 하게 한다. 따와, 쿵, 덩을 각각 분리하여 개수를 정해놓고 반복 연습을 시키는 것도 효과적이다.

< 표 IV-4 > 장구의 구음 및 연주법

구음	부호	연주법
궁, 쿵	○	궁채로 북편(궁편)을 치거나 채편으로 넘겨서 친다.
따, 덕		열채로 채편의 작은 원을 친다.
덩(합)	Ⓛ	(합장단)궁채와 열채를 동시에 친다.
구궁	○○	궁채를 감아서 겹으로 친다.
기덕, 기다	∣	열채로 채편을 감아서 겹쳐 친다.
다르르르	∴	열채 끝으로 채편을 잘게 흘려 친다.

북은 가장 기본 박을 잘 맞추는 악기이므로 힘 있게 치게 하되 끊어 치지 않게 하고 가죽의 울림을 이용한 부드러운 소리가 날 수 있도록 지도(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썩라)한다. 북의 구음인 둥과 두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둥과 두를 이어 둥두의 연습을 많이 하도록 하게 한다.

< 표 IV-5 > 북의 구음 및 연주법

구음	부호	연주법
둥	○	울림판 정 가운데를 강하게 친다.
두	○	울림판 정 가운데를 약하게 친다. (집는 박)
딱	◐	북통(나무 부분)을 친다.
두둥	○○	‘두’와 ‘둥’을 겹쳐서 친다.

소고는 춤을 추는 악기이므로 소고의 동작 하나하나를 지도한 후 매년 반복 연습하도록 지도하며, 오금에 따라 움직이는 연습을 많이 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잡색은 역할에 따른 연기를 중점으로 지도하며, 악기를 치는 치배나 관중에게 다가가 흥을 돋우고 신명나는 풍물 공연이 될 수 있도록 어깨춤이나 장단에 따른 발걸음을 지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4. 제주 무가를 활용한 풍물놀이 지도 방안 구안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역의 대표적인 농악이나 풍물굿 장단과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의 무가를 활용한 풍물놀이 프로그램을 초등학교 학습자의 수준에 맞게 단순화하여 지도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현장에서 지도해왔던 풍물놀이 지도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에 근거하여 가장 최근에 공연되었던 2016년 제15회 제주 문화원연합회 전도학생풍물경연대회에 출품했던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 가. 첫째 마당

첫째마당은 공연장의 입장에서부터 새드림 노래를 부르며 이 풍물놀이의 목적을 밝히고 각 악기 소리를 맞춰보는 도입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본격적인 진풀이와 여러 장단을 선보이기 전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각 악기의 소리를 서로 조율해보는 데 목적을 둔다.

##### 1) 삼채 입장

보통 판굿 공연이 펼쳐지기 전 무대 중앙에 등장할 때에는 악기를 들고 걸어가는 것 보다는 장단을 치며 입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입장할 때 쓰이는 장단으로 사람이 걸어갈 때의 빠르기와 가장 비슷한 삼채장단을 활용하고자 한다.

삼채 장단은 전국에 걸친 모든 농악이나 풍물굿에서 볼 수 있는 기본 장단이므로 특정한 한 지역의 장단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일반적인 형태의 삼채 장단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장에서 풍물놀이를 지도할 경우 2~3년 동안 풍물반을 지속하여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는 홀가락 중심에서 겹가락을 하나씩 추가하여 큰 박은 동일하나 장단의 세밀함이 더해지도록 지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표 IV-6 > 삼채장단의 지도방법

학 주 제	삼채	소요 차시	2~3차시																																																																																																																																																																																			
학 습 목 표	1. 삼채 장단의 구음을 알고 악기로 연주할 수 있다. 2. 삼채 장단을 연주하며 입장하는 발걸음을 익힐 수 있다.																																																																																																																																																																																					
<b>교 수 · 학 습 활 동</b>																																																																																																																																																																																						
학 장 습 단	장 단 배 경	삼채 장단은 우리나라 농악이나 풍물굿의 대부분에 사용되는 기본 장단이다. 특정 지역의 장단을 인용하기보다는 초등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본 틀을 만들어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암, 수가락의 기본원리에 의해 장단을 지도하고 2장단을 한 묶음으로 사용하거나 4장단을 한 묶음으로 사용할 수 있다.																																																																																																																																																																																				
	원 형 장 단  장 단 재 구 성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td>1</td><td>2</td><td>3</td><td>2</td><td>2</td><td>3</td><td>3</td><td>2</td><td>3</td><td>4</td><td>2</td><td>3</td></tr> <tr><td>꺄</td><td></td><td>지</td><td>꺄</td><td></td><td>지</td><td>꺄</td><td></td><td>꺄</td><td>꺄</td><td>꺄</td><td></td></tr> <tr><td>꺄</td><td>꺄</td><td></td><td>꺄</td><td></td><td>지</td><td>꺄</td><td></td><td>꺄</td><td>꺄</td><td>꺄</td><td></td></tr> </table> <p>■ 팽과리 내는 가락</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td>1</td><td>2</td><td>3</td><td>2</td><td>2</td><td>3</td><td>3</td><td>2</td><td>3</td><td>4</td><td>2</td><td>3</td></tr> <tr><td>꺄</td><td></td><td>지</td><td>꺄</td><td></td><td>지</td><td>꺄</td><td></td><td>꺄</td><td>꺄</td><td>꺄</td><td></td></tr> <tr><td>꺄</td><td>꺄</td><td></td><td>꺄</td><td>꺄</td><td>꺄</td><td>꺄</td><td></td><td></td><td>얼씨구</td><td></td><td></td></tr> </table> <p>장단을 시작할 때는 팽과리가 내어주는 가락을 먼저 치고 나머지 악기들이 합주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를 내는 가락이라 하는데 위의 장단으로 단순화하여 지도한다. 팽과리의 내는 가락을 칠 때에는 마지막에 장단으로 마무리하는 것보다는 '얼씨구'라는 큰 추임새로 시작을 알리는 것도 신명나는 풍물놀이를 구현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라 생각된다.</p> <p>■ 팽과리 장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td>1</td><td>2</td><td>3</td><td>2</td><td>2</td><td>3</td><td>3</td><td>2</td><td>3</td><td>4</td><td>2</td><td>3</td></tr> <tr><td>꺄</td><td></td><td>지</td><td>꺄</td><td></td><td>지</td><td>꺄</td><td></td><td>꺄</td><td>꺄</td><td>꺄</td><td></td></tr> <tr><td>꺄</td><td>꺄</td><td></td><td>꺄</td><td></td><td>지</td><td>꺄</td><td></td><td>꺄</td><td>꺄</td><td>꺄</td><td></td></tr> </table> <p>■ 팽과리 겹장단 지도의 예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td>1</td><td>2</td><td>3</td><td>2</td><td>2</td><td>3</td><td>3</td><td>2</td><td>3</td><td>4</td><td>2</td><td>3</td></tr> <tr><td>꺄</td><td></td><td>지</td><td>꺄</td><td>꺄</td><td>지</td><td>꺄</td><td></td><td>꺄</td><td>꺄</td><td>꺄</td><td></td></tr> <tr><td>꺄</td><td>꺄</td><td></td><td>꺄</td><td>꺄</td><td>지</td><td>꺄</td><td></td><td>꺄</td><td>꺄</td><td>꺄</td><td></td></tr> </table> <p>■ 징</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td>1</td><td>2</td><td>3</td><td>2</td><td>2</td><td>3</td><td>3</td><td>2</td><td>3</td><td>4</td><td>2</td><td>3</td></tr> <tr><td>징</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징</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1	2	3	2	2	3	3	2	3	4	2	3	꺄		지	꺄		지	꺄		꺄	꺄	꺄		꺄	꺄		꺄		지	꺄		꺄	꺄	꺄		1	2	3	2	2	3	3	2	3	4	2	3	꺄		지	꺄		지	꺄		꺄	꺄	꺄		꺄	꺄		꺄	꺄	꺄	꺄			얼씨구			1	2	3	2	2	3	3	2	3	4	2	3	꺄		지	꺄		지	꺄		꺄	꺄	꺄		꺄	꺄		꺄		지	꺄		꺄	꺄	꺄		1	2	3	2	2	3	3	2	3	4	2	3	꺄		지	꺄	꺄	지	꺄		꺄	꺄	꺄		꺄	꺄		꺄	꺄	지	꺄		꺄	꺄	꺄		1	2	3	2	2	3	3	2	3	4	2	3	징												징										
1	2	3	2	2	3	3	2	3	4	2	3																																																																																																																																																																											
꺄		지	꺄		지	꺄		꺄	꺄	꺄																																																																																																																																																																												
꺄	꺄		꺄		지	꺄		꺄	꺄	꺄																																																																																																																																																																												
1	2	3	2	2	3	3	2	3	4	2	3																																																																																																																																																																											
꺄		지	꺄		지	꺄		꺄	꺄	꺄																																																																																																																																																																												
꺄	꺄		꺄	꺄	꺄	꺄			얼씨구																																																																																																																																																																													
1	2	3	2	2	3	3	2	3	4	2	3																																																																																																																																																																											
꺄		지	꺄		지	꺄		꺄	꺄	꺄																																																																																																																																																																												
꺄	꺄		꺄		지	꺄		꺄	꺄	꺄																																																																																																																																																																												
1	2	3	2	2	3	3	2	3	4	2	3																																																																																																																																																																											
꺄		지	꺄	꺄	지	꺄		꺄	꺄	꺄																																																																																																																																																																												
꺄	꺄		꺄	꺄	지	꺄		꺄	꺄	꺄																																																																																																																																																																												
1	2	3	2	2	3	3	2	3	4	2	3																																																																																																																																																																											
징																																																																																																																																																																																						
징																																																																																																																																																																																						



■ 장구

1	2	3	2	2	3	3	2	3	4	2	3
덩			덩			덩		따	궁	따	
더	덩		덩			덩		따	궁	따	

■ 장구 겸장단 지도의 예시

1	2	3	2	2	3	3	2	3	4	2	3
덩		따	궁	따	따	궁		따	궁	따	
따	궁		궁	따	따	궁		따	궁	따	

■ 북

1	2	3	2	2	3	3	2	3	4	2	3
등			허이			등		등			
등			허이			등		등			

■ 소고

'하나'에 두 손 밑 낭심에서 쪽 펴서 앞면을 치고  
 '둘'에 머리 위에서 뒷면을 치고  
 '셋'에 얼굴 앞에서 앞면을 치고  
 '넷'에 가슴(심장) 앞에서 뒷면을 친다.

소고의 동작은 위의 네 박 동작을 기본으로 장단에 따라 변형하여 지도한다.

필자가 임실 필봉굿에 전수 갔을 때의 경험이다. 이 때 소고를 가르쳐주는 지도자가 하는 말이 떠오른다. 소고가 생겨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군대를 훈련시킬 때 소고를 연주했다는 말이였다. 사람의 신체 부위 중 급소인 낭심을 먼저 막고 머리, 얼굴, 심장 순으로 손을 옮겨가며 무술 연마를 하는데 이것을 소고의 춤으로 표현했다는 것이였다.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본 풍물의 기원설 중 군악설과 비교했을 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학교 현장에서도 학생들에게 위의 예를 들어가며 지도하면 더 쉽게 이해함을 느낄 수 있었다.

■ 잡색

잡색은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역할에 따른 소품이나 아무것도 들지 않고 맨손으로 춤을 추는 것이 일반적이다. 삼채 장단의 오금에 맞추어 어깨춤을 추게 하여 풍물놀이 공연의 신명을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수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석 파악하기</li> <li>▷ 건강상태 및 준비상태 파악하기</li> <li>▷ 삼채 장단의 구음 익히기</li> <li>▷ 삼채 장단 익히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악기별로 돌아가며 장단을 익힌다.</li> </ul> </li> <li>▷ 삼채 장단 합주하기</li> <li>▷ 삼채 장단 오금 및 동작 익히기</li> <li>▷ 학습 정리 및 차시 예고</li> <li>▷ 악기 정리 및 주변 정리하기</li> </ul>	
구현 장면		
	공연 전 대형 모습	본 공연 입장 모습
		
	치배별 대형 모습	본 공연 치배별 대형 모습
수업 주안점 (유의점)	<p>삼채 장단은 발걸음에 가장 가까운 기본 장단이므로 학생들의 기본기를 익히는 데 가장 효과적인 장단으로 판단된다. 악기를 처음 배울 때 삼채 장단의 느낌을 알고 정간보에서 구현하지 못하는 우리나라 장단의 숨구멍을 잘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똑같은 4박으로 연주하는 것보다는 ‘덩 덩 덩 따궁따’에서 앞의 ‘덩 덩 덩’ 부분은 대상소삼의 우리나라 장단 원리에 의해 큰 소리가 나도록 지도하고 ‘따궁따’는 여린 소리가 나도록 지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마지막 ‘덩 따궁따’의 부분에서 ‘덩’과 ‘따궁따’ 사이의 숨구멍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p>	

	<p>하도록 유의한다. 실제 느낌은 정박보다는 상당히 밀려 치는 느낌이 드는 것이 우리나라 삼채 장단의 특징이기 때문이다.</p> <p>구전심수의 방법에 따라 장단 역시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왔다고 할 수 있는데 삼채 장단의 말장단을 이용하여 지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p> <p>※ 삼채 4뉘음 말장단 지도 예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1</td><td>2</td><td>3</td><td>2</td><td>2</td><td>3</td><td>3</td><td>2</td><td>3</td><td>4</td><td>2</td><td>3</td> </tr> <tr> <td>땅</td><td></td><td>도</td><td>땅</td><td></td><td>도</td><td>내</td><td></td><td>땅</td><td>이</td><td>다</td><td></td> </tr> <tr> <td>조</td><td>선</td><td></td><td>땅</td><td></td><td>도</td><td>내</td><td></td><td>땅</td><td>이</td><td>다</td><td></td> </tr> <tr> <td>니</td><td></td><td>땅</td><td>이</td><td>냐</td><td></td><td>내</td><td></td><td>땅</td><td>이</td><td>지</td><td></td> </tr> <tr> <td>조</td><td>선</td><td></td><td>땅</td><td></td><td>도</td><td>내</td><td></td><td>땅</td><td>이</td><td>다</td><td></td> </tr> </table>	1	2	3	2	2	3	3	2	3	4	2	3	땅		도	땅		도	내		땅	이	다		조	선		땅		도	내		땅	이	다		니		땅	이	냐		내		땅	이	지		조	선		땅		도	내		땅	이	다	
1	2	3	2	2	3	3	2	3	4	2	3																																																		
땅		도	땅		도	내		땅	이	다																																																			
조	선		땅		도	내		땅	이	다																																																			
니		땅	이	냐		내		땅	이	지																																																			
조	선		땅		도	내		땅	이	다																																																			


2) 일채

일채 장단은 보통 판굿이 시작할 때 서로의 장단을 맞춰보는 의미로 연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호남이리농악에서는 3분박 또는 2분박, 매우 빠른 4박자로 징이 한 점 들어간다는 뜻에서 일채라 표현한다고 한다. 제일 처음 상쇠가 2번 또는 4번 정도의 신호를 주면 그 속도에 따라 전체 학생이 점점 빠르게 장단을 연주하고 마무리는 연풍대를 하여 돌아주면서 마무리한다. 마무리할 때에는 추임새를 사용하여 표현하면 그 화려함이 더해질 수 있다.

< 표 IV-7 > 일채 장단의 지도방법

<b>학 주 제</b>	<b>일채</b>	<b>소요 차시</b>	<b>1차시</b>
<b>학 습 목 표</b>	<p>1. 일채 장단의 구음을 알고 악기로 연주할 수 있다.</p> <p>2. 일채 장단을 연주하며 입장하는 발걸음을 익힐 수 있다.</p>		
<b>교 수 · 학 습 활 동</b>			
<b>학 습 장 단</b>	<b>장단 배경</b>	<p>일채 장단은 악기 치배들의 호흡을 맞추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장단으로 각 지방마다 꿩과리의 내는 가락이나 빠르기는 다를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치는 타점이 점점 빨라지는 면에서 유사하다. 호남 이리 농악의 일채 장단을 인용하였다.</p>	

원행 장단	<table border="1"> <tr> <td>1</td><td>2</td><td>3</td><td>2</td><td>2</td><td>3</td><td>3</td><td>2</td><td>3</td><td>4</td><td>2</td><td>3</td> </tr> <tr> <td>갱</td><td></td><td></td><td>갱</td><td></td><td></td><td>갱</td><td></td><td>갱</td><td></td><td>갱</td><td></td> </tr> <tr> <td>갱</td><td>갱</td><td>갱</td><td>갱갱</td><td>갱갱</td><td>...</td><td>...</td><td>...</td><td>...</td><td>얼씨구~</td><td></td><td></td> </tr> </table>	1	2	3	2	2	3	3	2	3	4	2	3	갱			갱			갱		갱		갱		갱	갱	갱	갱갱	갱갱	...	...	...	...	얼씨구~		
	1	2	3	2	2	3	3	2	3	4	2	3																									
갱			갱			갱		갱		갱																											
갱	갱	갱	갱갱	갱갱	...	...	...	...	얼씨구~																												
<p>■ 팽과리 내는 가락</p> <p>일채 장단의 내어주는 가락은 상쇠가 네 번을 먼저 시작하거나 두 번을 치면 나머지 장단을 함께 치는 데 이 공연에서는 두 번을 치고 시작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p> <p>■ 팽과리 장단</p> <table border="1"> <tr> <td>1</td><td>2</td><td>3</td><td>2</td><td>2</td><td>3</td><td>3</td><td>2</td><td>3</td><td>4</td><td>2</td><td>3</td> </tr> <tr> <td>갱</td><td></td><td></td><td>갱</td><td></td><td></td><td>갱</td><td></td><td>갱</td><td></td><td>갱</td><td></td> </tr> <tr> <td>갱</td><td>갱</td><td>갱</td><td>갱갱</td><td>갱갱</td><td>...</td><td>...</td><td>...</td><td>...</td><td>얼씨구~</td><td></td><td></td> </tr> </table> <p>장단 재구성</p> <p>처음에는 느리다가 점점 빨리 연주하며 마지막은 ‘얼씨구’라는 추임새와 함께 연풍대를 돌면서 화려함을 느낄 수 있도록 표현 지도한다.</p> <p>■ 나머지 악기들은 팽과리와 동일하게 연주한다.</p> <p>■ 소고</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항아리를 안는 모습으로 첫 박을 시작하여 낭심에서 소고의 앞면을 치면서 점점 빠르게 연주한다.</p> </div> <p>■ 잡색</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일채 장단의 오금에 맞추어 어깨춤을 추게 하여 풍물놀이 공연의 신명을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p> </div>	1	2	3	2	2	3	3	2	3	4	2	3	갱			갱			갱		갱		갱		갱	갱	갱	갱갱	갱갱	...	...	...	...	얼씨구~			
1	2	3	2	2	3	3	2	3	4	2	3																										
갱			갱			갱		갱		갱																											
갱	갱	갱	갱갱	갱갱	...	...	...	...	얼씨구~																												
수행 예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석 파악하기</li> <li>▷ 건강상태 및 준비상태 파악하기</li> <li>▷ 일채 장단의 구음 익히기</li> <li>▷ 일채 장단 익히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악기별로 돌아가며 장단을 익힌다.</li> </ul> </li> <li>▷ 일채 장단 합주하기</li> <li>▷ 일채 장단 오금 및 동작 익히기</li> <li>▷ 학습 정리 및 차시 예고</li> <li>▷ 악기 정리 및 주변 정리하기</li> </ul>																																				

<b>구 현 면</b>		※ 일채 장단의 연풍대 도는 모습
<b>수 업 주 안 점  (유의점)</b>	<p>일채 장단은 악기 서로간의 호흡을 맞추는 장단이므로 상쇠의 내는 가락 속도에 맞추어 치는 연습을 반복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 어르는 부분에서는 추임새를 함께 하며 연풍대를 도는 모습을 연출하여 풍물놀이의 신명과 화려함을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p>	

### 3) 새드림

풍물놀이는 농사가 잘되기를 기원하거나 마을의 안녕, 집안의 잘됨을 기원하는 일종의 굿이라 할 수 있다. 다양한 판굿 공연이나 걸궁을 시작할 때 각 상황에 따라 다르게 고사를 지내거나 비나리를 부르며 연희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제주도의 굿에서는 부정한 것으로 여겨지는 새를 쫓는 형식의 무가가 많이 연행되고 있는데, 제주의 굿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새드림이라는 무가와 장단을 인용하여 풍물놀이에서 지도하고자 하였다. 제주지역에서만 연희되던 굿의 일부분을 풍물놀이에 접목하여 사용하는 것은 제주만이 가지고 있는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제주 지역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 그 의미를 더할 수 있다.

다만, 새드림의 장단이 굿에서 앞반으로 연주되고 있어 선반으로 공연되는 풍물놀이와 접목하고자 할 때 그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무가 역시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사용되므로 학생들이 부르기 쉽게 개사하거나 음을 변형하여 접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사료된다.


< 표 IV-8 > 새드림의 지도방법

<b>학 주 제</b>	새드림	<b>소 요 차 시</b>	2~3차시
<b>학 습 목 표</b>	<p>1. 새드림 장단의 구음을 알고 악기로 연주할 수 있다. 2. 새드림 장단을 연주하며 새드림 무가를 부를 수 있다.</p>		

**교 수 · 학 습 활 동**

<b>학 장 습 단</b>	<b>장단 배경</b>	<p>새드림은 제주의 곳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제차(第次)의식 중의 하나이다. 연물북으로 연주되던 다양한 변형가락을 쉽게 변형하고 팽과리나 징 대신 설쇠, 대양을 이용하여 제주 곳의 음색을 표현하여 지도한다.</p> <p>새드림 장단은 풍물놀이의 굿거리장단과 빠르기가 비슷하므로 굿거리장단의 속도에 맞추어 연주한다.</p>																																																																																																																																																																							
	<b>원형 장단</b>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1</td><td>2</td><td>3</td><td>2</td><td>2</td><td>3</td><td>3</td><td>2</td><td>3</td><td>4</td><td>2</td><td>3</td> </tr> <tr> <td>구덩</td><td></td><td></td><td>구덩</td><td></td><td></td><td>구덩</td><td></td><td></td><td>듯</td><td>두구</td><td>단</td> </tr> <tr> <td>구덩</td><td></td><td></td><td>구덩</td><td></td><td></td><td>듯</td><td>두구</td><td>단</td><td>듯</td><td>두구</td><td>단</td> </tr> <tr> <td>구덩</td><td></td><td></td><td>듯</td><td>두구</td><td>단</td><td>듯</td><td>두구</td><td>단</td><td>듯</td><td>두구</td><td>단</td> </tr> </table>	1	2	3	2	2	3	3	2	3	4	2	3	구덩			구덩			구덩			듯	두구	단	구덩			구덩			듯	두구	단	듯	두구	단	구덩			듯	두구	단	듯	두구	단	듯	두구	단																																																																																																																							
	1	2	3	2	2	3	3	2	3	4	2	3																																																																																																																																																													
구덩			구덩			구덩			듯	두구	단																																																																																																																																																														
구덩			구덩			듯	두구	단	듯	두구	단																																																																																																																																																														
구덩			듯	두구	단	듯	두구	단	듯	두구	단																																																																																																																																																														
<b>장단 재구 성</b>	<p>■ 팽과리 내는 가락</p> <p>※ 제주곳의 악기 음색을 살리기 위해 설쇠를 이용한다. 설쇠를 연주할 때에는 밑에 채를 받치고 두개의 채를 이용하여 상하타법으로 연주하지만 풍물놀이 공연에서는 연주가 힘들기에 설쇠를 팽과리와 같이 잡고 팽과리와 같은 방법으로 좌우타법으로 연주하도록 지도한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1</td><td>2</td><td>3</td><td>2</td><td>2</td><td>3</td><td>3</td><td>2</td><td>3</td><td>4</td><td>2</td><td>3</td> </tr> <tr> <td>왕</td><td></td><td>깡</td><td>쟁</td><td></td><td>깡</td><td>왕</td><td></td><td>깡</td><td>쟁</td><td></td><td>깡</td> </tr> </table> <p>■ 설쇠 장단 ( ※ 팽과리 대신 설쇠를 이용한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1</td><td>2</td><td>3</td><td>2</td><td>2</td><td>3</td><td>3</td><td>2</td><td>3</td><td>4</td><td>2</td><td>3</td> </tr> <tr> <td>왕</td><td></td><td>깡</td><td>쟁</td><td></td><td>깡</td><td>왕</td><td></td><td>깡</td><td>쟁</td><td></td><td>깡</td> </tr> <tr> <td>왕</td><td></td><td>깡</td><td>쟁</td><td></td><td>깡</td><td>왕</td><td></td><td>깡</td><td>쟁</td><td></td><td>깡</td> </tr> <tr> <td>왕</td><td></td><td>깡</td><td>쟁</td><td></td><td>깡</td><td>왕</td><td></td><td>깡</td><td>쟁</td><td></td><td>깡</td> </tr> </table> <p>■ 대양 ( ※ 징 대신 대양을 이용한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1</td><td>2</td><td>3</td><td>2</td><td>2</td><td>3</td><td>3</td><td>2</td><td>3</td><td>4</td><td>2</td><td>3</td> </tr> <tr> <td>챙</td><td></td><td></td><td>챙</td><td></td><td></td><td>챙</td><td></td><td></td><td></td><td></td><td></td> </tr> <tr> <td>챙</td><td></td><td></td><td>챙</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r> <td>챙</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able> <p>‘징’소리와 구별하기 위해 ‘챙’이라는 구음으로 표현한다.</p> <p>■ 장구</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1</td><td>2</td><td>3</td><td>2</td><td>2</td><td>3</td><td>3</td><td>2</td><td>3</td><td>4</td><td>2</td><td>3</td> </tr> <tr> <td>덩</td><td></td><td></td><td>덩</td><td></td><td></td><td>덩</td><td></td><td></td><td>따</td><td>다다</td><td>단</td> </tr> <tr> <td>덩</td><td></td><td></td><td>덩</td><td></td><td></td><td>따</td><td>다다</td><td>단</td><td>따</td><td>다다</td><td>단</td> </tr> <tr> <td>덩</td><td></td><td></td><td>따</td><td>다다</td><td>단</td><td>따</td><td>다다</td><td>단</td><td>따</td><td>다다</td><td>단</td> </tr> </table> <p>‘다’는 장구의 열채 끝으로 ‘따’보다 더 작게 연주하는 법이다.</p>	1	2	3	2	2	3	3	2	3	4	2	3	왕		깡	쟁		깡	왕		깡	쟁		깡	1	2	3	2	2	3	3	2	3	4	2	3	왕		깡	쟁		깡	왕		깡	쟁		깡	왕		깡	쟁		깡	왕		깡	쟁		깡	왕		깡	쟁		깡	왕		깡	쟁		깡	1	2	3	2	2	3	3	2	3	4	2	3	챙			챙			챙						챙			챙									챙												1	2	3	2	2	3	3	2	3	4	2	3	덩			덩			덩			따	다다	단	덩			덩			따	다다	단	따	다다	단	덩			따	다다	단	따	다다	단	따	다다	단
1	2	3	2	2	3	3	2	3	4	2	3																																																																																																																																																														
왕		깡	쟁		깡	왕		깡	쟁		깡																																																																																																																																																														
1	2	3	2	2	3	3	2	3	4	2	3																																																																																																																																																														
왕		깡	쟁		깡	왕		깡	쟁		깡																																																																																																																																																														
왕		깡	쟁		깡	왕		깡	쟁		깡																																																																																																																																																														
왕		깡	쟁		깡	왕		깡	쟁		깡																																																																																																																																																														
1	2	3	2	2	3	3	2	3	4	2	3																																																																																																																																																														
챙			챙			챙																																																																																																																																																																			
챙			챙																																																																																																																																																																						
챙																																																																																																																																																																									
1	2	3	2	2	3	3	2	3	4	2	3																																																																																																																																																														
덩			덩			덩			따	다다	단																																																																																																																																																														
덩			덩			따	다다	단	따	다다	단																																																																																																																																																														
덩			따	다다	단	따	다다	단	따	다다	단																																																																																																																																																														

	<p>■ 북</p> <table border="1" data-bbox="523 430 1270 560"> <tr> <td>1</td><td>2</td><td>3</td><td>2</td><td>2</td><td>3</td><td>3</td><td>2</td><td>3</td><td>4</td><td>2</td><td>3</td> </tr> <tr> <td>등</td><td></td><td></td><td>등</td><td></td><td></td><td>등</td><td></td><td></td><td>딱</td><td>다다</td><td>닥</td> </tr> <tr> <td>등</td><td></td><td></td><td>등</td><td></td><td></td><td>딱</td><td>다다</td><td>닥</td><td>딱</td><td>다다</td><td>닥</td> </tr> <tr> <td>등</td><td></td><td></td><td>딱</td><td>다다</td><td>닥</td><td>딱</td><td>다다</td><td>닥</td><td>딱</td><td>다다</td><td>닥</td> </tr> </table> <p>북의 각(角)부분을 치는 것으로 ‘딱’이라 표현하며, 더 작게 소리 내는 것을 ‘다’라고 표현한다.</p> <p>■ 소고</p> <p>연물 장단과 어울리는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 처음 네 박 중 세 박에서는 소고를 치고 마지막은 어깨춤으로 표현하고, 두 번째 장단은 두 박을 치고 두 박은 어깨춤, 세 번째 장단에서는 한 박을 치고 어깨춤 세 번을 춘다.</p> <p>■ 잡색</p> <p>새드림 장단이 풍물놀이 장단의 굿거리와 가장 비슷하므로 굿거리장단의 오금에 맞추어 어깨춤을 추게 하여 풍물놀이 공연의 신명을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p>	1	2	3	2	2	3	3	2	3	4	2	3	등			등			등			딱	다다	닥	등			등			딱	다다	닥	딱	다다	닥	등			딱	다다	닥	딱	다다	닥	딱	다다	닥
1	2	3	2	2	3	3	2	3	4	2	3																																						
등			등			등			딱	다다	닥																																						
등			등			딱	다다	닥	딱	다다	닥																																						
등			딱	다다	닥	딱	다다	닥	딱	다다	닥																																						
<p>새드림 무가 재구 성</p>	<p>천왕새 ㄷ리자 어~~~~ 지왕새 ㄷ리자 어~~~~ 인왕새 ㄷ리자 어~~~~ 여기 오~신 모~든 분~들 만복을 바옵시게 요새를 ㄷ리자 어~~ 저 멀리 ㄷ리자 주어라 훨쭉~ 훨쭉 훨~짱</p>																																																
<p>수 후 연 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석 파악하기</li> <li>▷ 건강상태 및 준비상태 파악하기</li> <li>▷ 새드림 장단의 구음 익히기</li> <li>▷ 새드림 장단 익히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악기별로 돌아가며 장단을 익힌다.</li> </ul> </li> <li>▷ 새드림 장단 합주하기</li> <li>▷ 새드림 장단 오금 및 동작 익히기</li> <li>▷ 새드림 무가 익히기</li> <li>▷ 새드림 무가 부르며 장단 연주하기</li> <li>▷ 학습 정리 및 차시 예고</li> <li>▷ 악기 정리 및 주변 정리하기</li> </ul>																																																

<b>구 현 면</b>		<p>※ 연물 악기를 활용한 새드림 노래 장면</p>
<b>수 업 주 안 점  (유의점)</b>	<p>새드림 무가와 장단을 지도할 때에는 이 장단과 노래를 사용하는 연유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 학생들은 한라산, 용암동굴, 성산일출봉 등 유네스코 자연문화유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나 인류문화유산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우리가 연주하는 풍물놀이 장단에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 중 많이 사용되는 새드림이라는 무가와 장단을 인용함을 밝히고, 제주지역민으로서 우리 고장의 문화와 노래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더불어 우리 지역의 문화에 대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도 필요하다.</p>	

#### 4) 된삼채

새드림이 풍물굿의 굿거리장단과 빠르기가 유사하므로 첫째마당에서 느린 장단으로부터 빠른 장단의 흐름으로 진행하기 위해 삼채 장단의 부류인 된삼채를 사용하였다. 된삼채는 삼채보다 장단의 속도가 빠르므로 앞의 입장에서 연주되었던 삼채와는 다른 느낌을 표현할 수 있으며 좀 더 긴박하고 긴장감을 표현하는데 적합하다.


< 표 IV-9 > 된삼채 장단의 지도방법

<b>학 주 제</b>	된삼채	소요 차시	1차시
<b>학 습 목 표</b>	<p>1. 된삼채 장단의 구음을 알고 악기로 연주할 수 있다. 2. 된삼채 장단을 연주하며 입장하는 발걸음을 익힐 수 있다.</p>		
<b>교 수 · 학 습 활 동</b>			
<b>학 습 장 단</b>	장단 배경	<p>된삼채 장단은 삼채부류의 장단으로 삼채보다는 빠르기가 빠르고 삼채 장단의 ‘깡 깨개깡’부분을 빠르게 연주하기 위해 ‘깡 깨 깨’로 바꾸어 연주한다. 호남 좌도 임실 필봉굿의 굿머리 가락 중 된삼채 부분을 인용하였다.</p>	



<b>원 장 단</b>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d>1</td><td>2</td><td>3</td><td>2</td><td>2</td><td>3</td><td>3</td><td>2</td><td>3</td><td>4</td><td>2</td><td>3</td></tr> <tr><td>간</td><td></td><td>지</td><td>간</td><td></td><td>지</td><td>간</td><td></td><td>깨</td><td></td><td>깨</td><td></td></tr> <tr><td>개</td><td>갱</td><td></td><td>간</td><td></td><td>지</td><td>간</td><td></td><td>깨</td><td></td><td>깨</td><td></td></tr> </table>	1	2	3	2	2	3	3	2	3	4	2	3	간		지	간		지	간		깨		깨		개	갱		간		지	간		깨		깨																																																																																																																																																	
1	2	3	2	2	3	3	2	3	4	2	3																																																																																																																																																																										
간		지	간		지	간		깨		깨																																																																																																																																																																											
개	갱		간		지	간		깨		깨																																																																																																																																																																											
<b>장 단 재 구 성</b>	<p>■ 팽과리 내는 가락</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d>1</td><td>2</td><td>3</td><td>2</td><td>2</td><td>3</td><td>3</td><td>2</td><td>3</td><td>4</td><td>2</td><td>3</td></tr> <tr><td>깨</td><td>갱</td><td></td><td></td><td></td><td></td><td>깨</td><td>갱</td><td></td><td></td><td></td><td></td></tr> <tr><td>깨</td><td>갱</td><td></td><td>개</td><td>갱</td><td></td><td>갱</td><td></td><td>깨</td><td></td><td>깨</td><td></td></tr> </table> <p>‘깨’는 ‘개’ 보다는 데 세게 치는 타법을 이야기하며 들어가는 시작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 ‘깨갱’으로 연주한다.</p> <p>■ 팽과리 장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d>1</td><td>2</td><td>3</td><td>2</td><td>2</td><td>3</td><td>3</td><td>2</td><td>3</td><td>4</td><td>2</td><td>3</td></tr> <tr><td>간</td><td></td><td>지</td><td>간</td><td></td><td>지</td><td>간</td><td></td><td>깨</td><td></td><td>깨</td><td></td></tr> <tr><td>개</td><td>갱</td><td></td><td>간</td><td></td><td>지</td><td>간</td><td></td><td>깨</td><td></td><td>깨</td><td></td></tr> </table> <p>■ 다른 장단으로 넘어가는 팽과리 이음새 장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d>1</td><td>2</td><td>3</td><td>2</td><td>2</td><td>3</td><td>3</td><td>2</td><td>3</td><td>4</td><td>2</td><td>3</td></tr> <tr><td>간</td><td></td><td>지</td><td>간</td><td></td><td>지</td><td>간</td><td></td><td>깨</td><td></td><td>깨</td><td></td></tr> <tr><td>개</td><td>갱</td><td></td><td>간</td><td></td><td>깨</td><td></td><td></td><td>지</td><td>간</td><td></td><td></td></tr> </table> <p>임실 필봉굿에서 된삼채 이후에는 두마치 반각이라는 이름의 위의 장단을 치고 느린 간지간 장단으로 넘어간다. 그러나 실제 초등학교에서 느린 간지간을 구사하기 매우 어려우므로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삼채 장단을 맺는 장단을 사용하여 이음새를 대신하여 사용하기로 한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d>1</td><td>2</td><td>3</td><td>2</td><td>2</td><td>3</td><td>3</td><td>2</td><td>3</td><td>4</td><td>2</td><td>3</td></tr> <tr><td>간</td><td></td><td>지</td><td>간</td><td></td><td>지</td><td>간</td><td></td><td>깨</td><td></td><td>깨</td><td></td></tr> <tr><td>개</td><td>갱</td><td></td><td>개</td><td>갱</td><td></td><td>갱</td><td></td><td></td><td>갯</td><td></td><td></td></tr> </table> <p>■ 징</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d>1</td><td>2</td><td>3</td><td>2</td><td>2</td><td>3</td><td>3</td><td>2</td><td>3</td><td>4</td><td>2</td><td>3</td></tr> <tr><td>징</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징</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1	2	3	2	2	3	3	2	3	4	2	3	깨	갱					깨	갱					깨	갱		개	갱		갱		깨		깨		1	2	3	2	2	3	3	2	3	4	2	3	간		지	간		지	간		깨		깨		개	갱		간		지	간		깨		깨		1	2	3	2	2	3	3	2	3	4	2	3	간		지	간		지	간		깨		깨		개	갱		간		깨			지	간			1	2	3	2	2	3	3	2	3	4	2	3	간		지	간		지	간		깨		깨		개	갱		개	갱		갱			갯			1	2	3	2	2	3	3	2	3	4	2	3	징												징											
1	2	3	2	2	3	3	2	3	4	2	3																																																																																																																																																																										
깨	갱					깨	갱																																																																																																																																																																														
깨	갱		개	갱		갱		깨		깨																																																																																																																																																																											
1	2	3	2	2	3	3	2	3	4	2	3																																																																																																																																																																										
간		지	간		지	간		깨		깨																																																																																																																																																																											
개	갱		간		지	간		깨		깨																																																																																																																																																																											
1	2	3	2	2	3	3	2	3	4	2	3																																																																																																																																																																										
간		지	간		지	간		깨		깨																																																																																																																																																																											
개	갱		간		깨			지	간																																																																																																																																																																												
1	2	3	2	2	3	3	2	3	4	2	3																																																																																																																																																																										
간		지	간		지	간		깨		깨																																																																																																																																																																											
개	갱		개	갱		갱			갯																																																																																																																																																																												
1	2	3	2	2	3	3	2	3	4	2	3																																																																																																																																																																										
징																																																																																																																																																																																					
징																																																																																																																																																																																					

수 회 연 습	<p>■ 장구</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td>1</td><td>2</td><td>3</td><td>2</td><td>2</td><td>3</td><td>3</td><td>2</td><td>3</td><td>4</td><td>2</td><td>3</td></tr> <tr><td>덩</td><td></td><td></td><td>덩</td><td></td><td></td><td>덩</td><td></td><td>따</td><td>궁</td><td>따</td><td></td></tr> <tr><td>더</td><td>덩</td><td></td><td>덩</td><td></td><td></td><td>덩</td><td></td><td>따</td><td>궁</td><td>따</td><td></td></tr> </table> <p>■ 다른 장단으로 넘어가는 장구 이음새 장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td>1</td><td>2</td><td>3</td><td>2</td><td>2</td><td>3</td><td>3</td><td>2</td><td>3</td><td>4</td><td>2</td><td>3</td></tr> <tr><td>덩</td><td></td><td></td><td>덩</td><td></td><td></td><td>덩</td><td></td><td>따</td><td>궁</td><td>따</td><td></td></tr> <tr><td>더</td><td>덩</td><td></td><td>더</td><td>덩</td><td></td><td>덩</td><td></td><td></td><td>딱</td><td></td><td></td></tr> </table> <p>■ 북</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td>1</td><td>2</td><td>3</td><td>2</td><td>2</td><td>3</td><td>3</td><td>2</td><td>3</td><td>4</td><td>2</td><td>3</td></tr> <tr><td>등</td><td></td><td></td><td>허이</td><td></td><td></td><td>등</td><td></td><td>등</td><td></td><td></td><td></td></tr> <tr><td>등</td><td></td><td></td><td>허이</td><td></td><td></td><td>등</td><td></td><td>등</td><td></td><td></td><td></td></tr> </table> <p>■ 다른 장단으로 넘어가는 북 이음새 장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td>1</td><td>2</td><td>3</td><td>2</td><td>2</td><td>3</td><td>3</td><td>2</td><td>3</td><td>4</td><td>2</td><td>3</td></tr> <tr><td>등</td><td></td><td></td><td>허이</td><td></td><td></td><td>등</td><td></td><td>등</td><td></td><td></td><td></td></tr> <tr><td>두</td><td>등</td><td></td><td>두</td><td>등</td><td></td><td>등</td><td></td><td></td><td>딱</td><td></td><td></td></tr> </table> <p>■ 소고</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삼채의 기본 소고 동작을 빠르게 연주한다.</div> <p>■ 잡색</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된삼채 장단의 오금에 맞추어 어깨춤을 추게 하여 풍물놀이 공연의 신명을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div>	1	2	3	2	2	3	3	2	3	4	2	3	덩			덩			덩		따	궁	따		더	덩		덩			덩		따	궁	따		1	2	3	2	2	3	3	2	3	4	2	3	덩			덩			덩		따	궁	따		더	덩		더	덩		덩			딱			1	2	3	2	2	3	3	2	3	4	2	3	등			허이			등		등				등			허이			등		등				1	2	3	2	2	3	3	2	3	4	2	3	등			허이			등		등				두	등		두	등		등			딱		
	1	2	3	2	2	3	3	2	3	4	2	3																																																																																																																																					
덩			덩			덩		따	궁	따																																																																																																																																							
더	덩		덩			덩		따	궁	따																																																																																																																																							
1	2	3	2	2	3	3	2	3	4	2	3																																																																																																																																						
덩			덩			덩		따	궁	따																																																																																																																																							
더	덩		더	덩		덩			딱																																																																																																																																								
1	2	3	2	2	3	3	2	3	4	2	3																																																																																																																																						
등			허이			등		등																																																																																																																																									
등			허이			등		등																																																																																																																																									
1	2	3	2	2	3	3	2	3	4	2	3																																																																																																																																						
등			허이			등		등																																																																																																																																									
두	등		두	등		등			딱																																																																																																																																								
	<p>▷ 출석 파악하기</p> <p>▷ 건강상태 및 준비상태 파악하기</p> <p>▷ 된삼채 장단의 구름 익히기</p> <p>▷ 된삼채 장단 익히기</p> <p style="padding-left: 20px;">※ 악기별로 돌아가며 장단을 익힌다.</p> <p>▷ 된삼채 장단 합주하기</p> <p>▷ 된삼채 장단 오금 및 동작 익히기</p> <p>▷ 학습 정리 및 차시 예고</p> <p>▷ 악기 정리 및 주변 정리하기</p>																																																																																																																																																

구 장 현 면	
수 업 주 안 점  (유의점)	<p>된삼채 장단은 기본 삼채 장단을 좀 더 빠르게 연주하여 색다른 느낌을 표현하는 장단이다. 가급적 초등학교 수준에서 가락이 너무 빨라지지 않을 정도의 적당한 속도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빠른 장단일수록 제자리에서 오금을 하며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 하는 것이 힘들기에 삼채 장단에서는 일명 다이아몬드 step으로 오금을 하면서 연주를 하도록 지도한다.</p> <p>다이아몬드 step은 ◇ 모형에서 첫 박에 왼발을 오른쪽 점에, 둘째 박에 가운데 상단 점에, 셋째 박에 왼쪽 점에, 넷째 박에 가운데 아래 점에 다리를 이동시키며 오금질을 하는 방법을 말한다.</p> <p>된삼채는 첫째마당에서 진풀이를 시작하기 전에 연주하기에 길게 연주하지 않고 짧게 연주하도록 지도한다.</p>

### 5) 휘모리 (이채)

지역에 따라 휘모리, 이채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하는 이 장단은 기본이 삼분박 장단이라는 하나 빨라질수록 2박 계열의 장단으로 표현된다. 옷다리 평택 농악에서는 ‘그랑 그랑 그랑 그랑’으로 장단을 표현하며 2박 계열의 장단으로 연주한다. 그러나 장단이 빠르고 손의 모양이 흘러 치기 타법을 구사하기에 초등학교 생이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약간 투박하지만 오금질이 분명하여 신명나는 느낌을 연출할 수 있는 입실 필봉굿을 이용하여 연주하기로 한다.

휘모리장단은 3분박 계열의 4박으로 되어 있지만, 빨라서 네 박을 오금으로 모두 표현하기 불가능하다. 따라서 장단의 느낌은 살리되 오금질은 두 번으로 하여 역동성이 느껴지도록 표현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 표 IV-10 > 휘모리장단의 지도방법

학 주 제	휘모리	소요 차시	1차시																																																																																			
학 습 목 표	1. 휘모리장단의 구음을 알고 악기로 연주할 수 있다. 2. 휘모리장단을 연주하며 입장하는 발걸음을 익힐 수 있다.																																																																																					
<b>교 수 · 학 습 활 동</b>																																																																																						
학 장 습 단	장 단 배 경	<p>휘모리장단 또한 우리나라 농악이나 풍물굿의 대부분에 사용되는 기본적인 장단이라 할 수 있다. 지역에 따라 타법과 장단 자체가 다른 경우가 많지만, 풍물놀이에서 가장 빠른 장단이라 할 수 있다.</p> <p>장단이 약간 투박하지만 오금질이 분명하여 신명나는 느낌을 연출할 수 있는 호남 좌도 임실 필봉굿을 인용하여 지도하기로 한다.</p>																																																																																				
	원 형 장 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1</td><td>2</td><td>3</td><td>2</td><td>2</td><td>3</td><td>3</td><td>2</td><td>3</td><td>4</td><td>2</td><td>3</td> </tr> <tr> <td>간</td><td></td><td>지</td><td>간</td><td></td><td>지</td><td>간</td><td></td><td>지</td><td>간</td><td></td><td>지</td> </tr> </table>		1	2	3	2	2	3	3	2	3	4	2	3	간		지	간		지	간		지	간		지																																																											
	1	2	3	2	2	3	3	2	3	4	2	3																																																																										
간		지	간		지	간		지	간		지																																																																											
장 단 재 구 성	<p>■ 팽과리 장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1</td><td>2</td><td>3</td><td>2</td><td>2</td><td>3</td><td>3</td><td>2</td><td>3</td><td>4</td><td>2</td><td>3</td> </tr> <tr> <td>간</td><td></td><td>지</td><td>간</td><td></td><td>지</td><td>간</td><td></td><td>지</td><td>간</td><td></td><td>지</td> </tr> </table> <p>장단을 시작할 때는 팽과리가 휘모리 한 장단을 먼저 내어주고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된삼채의 이음새 장단이 끝나는 느낌을 명확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첫째 마당에서 휘모리는 된삼채 이음새 장단 후에 모든 악기가 바로 휘모리장단을 연주하면 된다.</p> <p>■ 휘모리가 매우 빨라질 때 팽과리 장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1</td><td>2</td><td>3</td><td>2</td><td>2</td><td>3</td><td>3</td><td>2</td><td>3</td><td>4</td><td>2</td><td>3</td> </tr> <tr> <td>간</td><td></td><td></td><td>간</td><td></td><td></td><td>간</td><td></td><td></td><td>간</td><td></td><td></td> </tr> </table> <p>휘모리장단이 매우 빨라질 경우에는 ‘지’를 표현하기 매우 어려워하므로 ‘간’으로만 연주한다.</p> <p>■ 휘모리 맞이 장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1</td><td>2</td><td>3</td><td>2</td><td>2</td><td>3</td><td>3</td><td>2</td><td>3</td><td>4</td><td>2</td><td>3</td> </tr> <tr> <td>개</td><td>간</td><td></td><td></td><td></td><td></td><td>간</td><td></td><td></td><td>간</td><td></td><td></td> </tr> <tr> <td>간</td><td></td><td>간</td><td></td><td>간</td><td>간</td><td>간</td><td>간</td><td>개개</td><td>개개</td><td>...</td><td>...</td> </tr> </table>		1	2	3	2	2	3	3	2	3	4	2	3	간		지	간		지	간		지	간		지	1	2	3	2	2	3	3	2	3	4	2	3	간			간			간			간			1	2	3	2	2	3	3	2	3	4	2	3	개	간					간			간			간		간		간	간	간	간	개개	개개	...	...
1	2	3	2	2	3	3	2	3	4	2	3																																																																											
간		지	간		지	간		지	간		지																																																																											
1	2	3	2	2	3	3	2	3	4	2	3																																																																											
간			간			간			간																																																																													
1	2	3	2	2	3	3	2	3	4	2	3																																																																											
개	간					간			간																																																																													
간		간		간	간	간	간	개개	개개	...	...																																																																											

휘모리를 맺고자 할 때는 상쇠가 휘모리 한 장단을 손을 들어 연주하고 위의 맺이 장단으로 전체가 마무리한다. 일체가 점점 빨라지는 느낌과 매우 유사하며 마지막에 연풍대를 돌아 화려함과 신명이 느껴지도록 지도한다.

■ 징

1	2	3	2	2	3	3	2	3	4	2	3
징											
징											

■ 장구의 원형장단

1	2	3	2	2	3	3	2	3	4	2	3
덩		기	덩		기	궁		기다	궁		기

실제 임실 필봉굿은 ‘기’라는 타법을 이용하여 겹가락으로 연주되지만 초등학생은 겹가락을 표현하기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명확한 소리를 구현해 내기 힘들므로 아래와 같이 홑가락 중심으로 지도하도록 한다.

■ 장구

1	2	3	2	2	3	3	2	3	4	2	3
덩			덩			궁		따	궁		

장구를 연주할 때 궁편과 채편을 함께 치는 경우를 “양(兩) 장구 친다.”라고 표현하며 한 쪽 면만을 연주하는 경우를 “편(片) 장구 친다.”라고 표현한다. 인위적으로 힘을 조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양장구를 칠 때에는 큰소리로 표현되며, 편장구를 칠 때에는 보다 작은 소리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연주의 자연스런 현상을 학생들에게 말해주고 양장구를 치는 ‘덩 덩’은 큰소리로 ‘궁 따궁’은 보다 작은 소리로 연주하도록 연주하게 하면 휘모리의 느낌을 보다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

■ 북

1	2	3	2	2	3	3	2	3	4	2	3
둥			둥			두			두		
(뽕)			(뽕)			(통)			(통)		

위에서 설명한 장구의 양장구와 편장구의 연주 방법에 따라 북도 크게 쳐야 하는 부분과 작게 쳐야하는 부분을 구분하여

	<p>지도하는 것이 느낌을 살리는 데 효과적이다. 물론 소리의 음양을 맞추기 위해 장구와 다른 타법으로 연주하는 경우도 있지만, 풍물놀이는 사물놀이의 장단의 화려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의 하나 됨과 몸동작의 신명남을 표현하는 게 목적이므로 장구의 강세와 북의 강세를 일치시켜주는 것이 좋다고 판단된다.</p> <p>또한, ‘둥’과 ‘두’의 구음이 잘 구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뽕’과 ‘통’으로 구음을 지도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p> <p>■ 소고</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삼채의 네 박 동작을 기본으로 하되 한 장단에 오금을 두 번으로 표현하기에 둘, 셋, 넷 장단을 하나로 연결하여 빠르게 표현한다.</div> <p>■ 잡색</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휘모리장단의 오금에 맞추어 어깨춤을 추게 하여 풍물놀이 공연의 신명을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div>
수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석 파악하기</li> <li>▷ 건강상태 및 준비상태 파악하기</li> <li>▷ 휘모리장단의 구음 익히기</li> <li>▷ 휘모리장단 익히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악기별로 돌아가며 장단을 익힌다.</li> </ul> </li> <li>▷ 휘모리장단 합주하기</li> <li>▷ 휘모리장단 오금 및 동작 익히기</li> <li>▷ 학습 정리 및 차시 예고</li> <li>▷ 악기 정리 및 주변 정리하기</li> </ul>
수업 주안점 (유의점)	<p>휘모리장단의 특징을 설명하고 장단의 강세를 잘 구분하여 지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위에서 밝힌 것처럼 양장구 부분은 세게 연주하고 편장구 부분은 여리게 연주하여 한 장단 안에서도 강약이 다르게 표현될 수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지도한다.</p> <p>또한, 풍물놀이에서 휘모리는 가장 빠르고 몸동작이 역동적임을 인지시키고 몸동작을 크게 하도록 지도하여 역동성이 느껴지도록 반복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p>

## 나. 둘째 마당


둘째마당은 첫째마당에 이어 본격적으로 여러 장단을 조화롭게 구사하고 다양한 진풀이를 관객에게 보여주는 단계이다. 발마치나 오금, 다양한 진풀이를 통해 관객들의 흥을 이끌어 내고 풍물놀이 본연의 볼거리를 제공하는 마당이라 할 수 있겠다.

### 1) 인사굿

둘째마당의 본격적인 장단과 진풀이를 시작하기 전 관객에게 인사하는 장단이다. 인사굿 후 바로 입장굿(징~딱)으로 이어진다. 우리나라의 모든 농악이나 판굿에 있어 인사굿은 아래와 유사한 형식을 보인다.

< 표 IV-11 > 인사장단의 지도방법

학 주	습 제	인사굿	소요 차시	2~3차시																									
학 목	습 표	1. 인사 장단의 구음을 알고 악기로 연주할 수 있다. 2. 인사 장단을 연주하며 오금을 익힐 수 있다.																											
<b>교 수 · 학 습 활 동</b>																													
학 장	습 단	장단 배경	인사굿의 장단은 우리나라 전역에 같거나 비슷하게 연주되며 관객에게 공연의 시작을 알리거나 마무리 하는 장단으로 많이 쓰인다. 본 지도방안에서는 호남 우도 이리 농악의 인사굿을 인용하기로 한다.																										
		원형 장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1</td><td>2</td><td>3</td><td>2</td><td>2</td><td>3</td><td>3</td><td>2</td><td>3</td><td>4</td><td>2</td><td>3</td> </tr> <tr> <td>갱</td><td>갱</td><td></td><td>갱</td><td>갱</td><td></td><td>개개</td><td>갠</td><td>지갠</td><td>갱</td><td></td><td>갯</td> </tr> </table>			1	2	3	2	2	3	3	2	3	4	2	3	갱	갱		갱	갱		개개	갠	지갠	갱		갯
		1	2	3	2	2	3	3	2	3	4	2	3																
갱	갱		갱	갱		개개	갠	지갠	갱		갯																		
장단 재구 성	<p>■ 팽과리 장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1</td><td>2</td><td>3</td><td>2</td><td>2</td><td>3</td><td>3</td><td>2</td><td>3</td><td>4</td><td>2</td><td>3</td> </tr> <tr> <td>갱</td><td>갱</td><td></td><td>갱</td><td>갱</td><td></td><td>개개</td><td>갠</td><td>갠</td><td>갱</td><td></td><td>갯</td> </tr> </table> <p>앞의 시작하는 ‘갱갱’ 부분만 팽과리가 내어주고 나머지 장단은 모두 합주한다. 인사는 마지막 ‘갯’에 맞추어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초등학교에서는 아래와 같이 재미있는 말장단을 이용하면 지도하는데 효과적이다.</p>			1	2	3	2	2	3	3	2	3	4	2	3	갱	갱		갱	갱		개개	갠	갠	갱		갯		
1	2	3	2	2	3	3	2	3	4	2	3																		
갱	갱		갱	갱		개개	갠	갠	갱		갯																		

	<p>■ 말장단</p> <table border="1" data-bbox="523 443 1273 521"> <tr> <td>1</td><td>2</td><td>3</td><td>2</td><td>2</td><td>3</td><td>3</td><td>2</td><td>3</td><td>4</td><td>2</td><td>3</td> </tr> <tr> <td>안</td><td>녕</td><td></td><td>안</td><td>녕</td><td></td><td>안</td><td>녕</td><td>하</td><td>세</td><td>요</td><td>딱</td> </tr> </table> <p>인사굿의 오금을 의외로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다. 장단의 구음과 오금질이 잘 맞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에는 위의 말장단을 이용하여 지도하는 것이 효과적인데 ‘안’, ‘안’, ‘안’, ‘요’의 구음에 맞추어 오금을 하도록 지도하면 헛갈리지 않고 이해하기 쉬워한다.</p> <p>■ 나머지 악기들은 쟁과리와 동일하게 연주한다.</p>	1	2	3	2	2	3	3	2	3	4	2	3	안	녕		안	녕		안	녕	하	세	요	딱
1	2	3	2	2	3	3	2	3	4	2	3														
안	녕		안	녕		안	녕	하	세	요	딱														
수업 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석 파악하기</li> <li>▷ 건강상태 및 준비상태 파악하기</li> <li>▷ 인사 장단의 구음 익히기</li> <li>▷ 인사 장단 익히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악기별로 돌아가며 장단을 익힌다.</li> </ul> </li> <li>▷ 인사 장단 합주하기</li> <li>▷ 인사 장단 오금 및 동작 익히기</li> <li>▷ 학습 정리 및 차시 예고</li> <li>▷ 악기 정리 및 주변 정리하기</li> </ul>																								
구 장 현 면																									
수업 주안점 (유의점)	<p>인사 장단은 여러 번 반복하여 사용하지 않고 공연의 처음이나 맨 마지막에 사용됨을 알게 하고 재미있는 말장단을 이용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연주할 때 오금질과 장단이 잘 안 맞는 경우가 생기는 데 위에서 밝힌 것처럼 말장단의 첫 음절을 강조하여 사용하면 그 이해가 훨씬 빠르다.</p>																								



2) 입장굿(징~딱)

인사와 동시에 바로 이어서 연주하는 장단으로 치배들이 줄로 정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꿩과리부터 차례대로 발동작에 맞춰 방울진의 형태로 말아서 연주하는 장단을 말한다. 징의 첫 박과 장구의 따 소리가 조화를 이루는 장단이라 징~딱 장단이라 불린다. 보통 네 박자에 맞추어 장단을 연주하는 경우도 있고 세 박자에 맞추어 장단을 연주하는 경우도 있는데 초등학생들은 세 박자에 맞추어 장단을 연주할 경우에 장단마다 발이 바뀌게 되어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 지도방안에서는 네 박자에 맞추어 장단을 연주하도록 한다.

< 표 IV-12 > 입장굿(징~딱)장단의 지도방법

학 주	습 제	입장굿(징~딱)	소 요 차 시	2~3차시																															
학 목	습 표	1. 입장굿(징~딱) 장단의 구음을 알고 악기로 연주할 수 있다. 2. 입장굿(징~딱) 장단을 연주하며 입장하는 발걸음을 익힐 수 있다.																																	
<b>교 수 · 학 습 활 동</b>																																			
학 장	습 단	<p>장단 배경</p> <p>입장굿(징~딱) 장단은 본격적인 진풀이를 위해 입장할 때 쓰이는 장단으로 방울진을 만들어 갈 때 많이 사용된다. 인사 굿에 이어 바로 징소리가 이어지고 발마치에 맞추어 4박에 맞춰 진행된다.</p> <p>본 지도 방안에서는 호남 우도 이리 농악의 입장굿(징~딱)을 인용하기로 한다.</p>																																	
	원 형	<table border="1" style="margin-bottom: 5px;"> <tr> <td>1</td><td>2</td><td>2</td><td>2</td><td>3</td><td>2</td><td>4</td><td>2</td> </tr> <tr> <td></td><td></td><td></td><td></td><td></td><td></td><td>딱</td><td></td> </tr> </table> <p>×되풀이</p> <table border="1" style="margin-bottom: 5px;"> <tr> <td>1</td><td>2</td><td>2</td><td>2</td><td>3</td><td>2</td><td>4</td><td>2</td> </tr> <tr> <td></td><td></td><td>딱</td><td></td><td></td><td></td><td>딱</td><td></td> </tr> </table> <p>×되풀이</p> <p>간격이 점점 좁아지며 일채와 같이 점점 빨라진다. 마지막은 ‘얼씨구’ 등의 신명나는 추임새와 함께 연풍대를 돌며 장단을 마무리한다.</p>			1	2	2	2	3	2	4	2							딱		1	2	2	2	3	2	4	2			딱				딱
1	2	2	2	3	2	4	2																												
						딱																													
1	2	2	2	3	2	4	2																												
		딱				딱																													

장단  
재구  
성

■ 팽과리 장단

1	2	2	2	3	2	4	2
						딱	

×되풀이

1	2	2	2	3	2	4	2
		딱				딱	

×되풀이

1	2	2	2	3	2	4	2
딱	딱	딱	딱	딱	...	...	...

■ 징

1	2	2	2	3	2	4	2
징							

×되풀이

1	2	2	2	3	2	4	2
징		딱		징		딱	

×되풀이

1	2	2	2	3	2	4	2
징		징		징		징	

×되풀이

1	2	2	2	3	2	4	2
징	징	징	징	징	...	...	...

■ 장구

1	2	2	2	3	2	4	2
궁						딱	

×되풀이

1	2	2	2	3	2	4	2
궁		딱		궁		딱	

×되풀이

1	2	2	2	3	2	4	2
덩		덩		덩		덩	

×되풀이

1	2	2	2	3	2	4	2
덩	덩	덩	덩	덩	...	...	...

■ 북

1	2	2	2	3	2	4	2
등						딱	

×되풀이


1	2	2	2	3	2	4	2
등		딱		등		딱	

×되풀이

1	2	2	2	3	2	4	2
등		등		등		등	

×되풀이

1	2	2	2	3	2	4	2
등	등	등	등	등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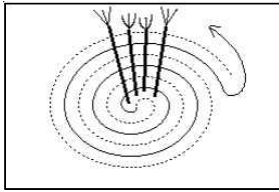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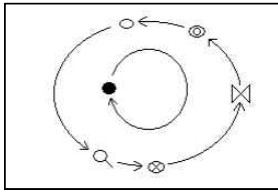
	<p>■ 소고</p> <p>박자가 느린 4박자의 경우에는 첫 박에만 앞의 낭심 부분에서 한 박을 친 후 채는 등 뒤 꼬리를 만들며 흔들고 소고는 머리위에 들어서 흔들여 준다. 박자가 빨라질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장단이 매우 빨라지는 어르기 부분에서는 앞에서만 소고를 치면서 어르기를 해준다.</p> <p>■ 잡색</p> <p>잡색은 징~딱 장단의 발동작에 맞추며 어깨춤을 추며 입장한다.</p>
수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석 파악하기</li> <li>▷ 건강상태 및 준비상태 파악하기</li> <li>▷ 입장굿(징~딱) 장단의 구음 익히기</li> <li>▷ 입장굿(징~딱) 장단 익히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악기별로 돌아가며 장단을 익힌다.</li> </ul> </li> <li>▷ 입장굿(징~딱) 장단 합주하기</li> <li>▷ 입장굿(징~딱) 장단의 발동작과 동작 익히기</li> <li>▷ 학습 정리 및 차시 예고</li> <li>▷ 악기 정리 및 주변 정리하기</li> </ul>
구 장 현 면	
수업 주안점 (유의점)	<p>지역에 따라 왼발 먼저 걷는 발마치 동작이 있고, 경우에 따라 오른발을 먼저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 지도 방안에서는 대부분의 농악이 왼발을 먼저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발걸음은 왼발부터 사용하도록 지도한다. 그래야만이 헛갈려 하지 않고 쉽게 이해하여 몸으로 표현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첫 박에서는 경충 뛰는 느낌으로 나머지 둘, 셋, 넷째 박에서는 걷는 느낌으로 표현하며 지도하는 것이 좋다.</p>


3) 이채

첫째 마당의 휘모리장단과 매우 비슷한 장단으로서 동일한 장단 구조이지만 다양한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 둘째 마당에서는 호남 이리 농악의 이채 장단을 사용하기로 한다. 제자리에서 연주되는 것이 아니라 달팽이진 혹은 방울진 상태에서 뛰는 오금을 하며 거꾸로 진을 풀고 나오면서 이채 장단을 사용한다. 앞에서의 휘모리장단은 3분박의 느낌이 들도록 투박하지만 오금질이 분명하여 신명나는 느낌을 표현하지만 둘째마당에서의 이채는 뛰는 오금에 맞게 팽과리의 다른 타법을 이용하여 또 다른 장단의 느낌을 연출하려고 한다.

< 표 IV-13 > 이채 장단의 지도방법

학 주 제	이채	소요 차시	1차시																																															
학 습 목 표	1. 이채 장단의 구음을 알고 악기로 연주할 수 있다. 2. 이채 장단을 연주하며 뛰는 오금으로 달팽이진을 풀 수 있다.																																																	
<b>교 수 · 학 습 활 동</b>																																																		
학 장 습 단	장단 배경	이채장단 또한 우리나라 농악이나 풍물굿의 대부분에 사용되는 기본적인 장단이라 할 수 있다. 지역에 따라 타법과 장단 자체가 다른 경우가 많지만, 풍물놀이에서 가장 빠른 장단이라 할 수 있다. 본 지도 방안에서는 호남 우도 이리 농악의 입장굿(징~딱)을 인용하기로 한다.																																																
	원형 장단	<p>쇠가 빨라지면 장구 가락도 ①, ②, ③, 난타의 순으로 점점 빨라진다.</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r> <td>1</td><td>2</td><td>2</td><td>2</td><td>3</td><td>2</td><td>4</td><td>2</td> </tr> <tr> <td>갠</td><td>지</td><td>갯</td><td>지</td><td>갠</td><td>지</td><td>갯</td><td>지</td> </tr> </table> <p style="text-align: right;">×되풀이</p> <p>‘갯지’는 강하게 맺어주되, 첫째 ‘갯지’를 더 크게 표현한다. 장구 장단은 빠르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3가지의 변형장단으로 나누어 표현하기도 한다.</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r> <td>1</td><td>2</td><td>2</td><td>2</td><td>3</td><td>2</td><td>4</td><td>2</td> </tr> <tr> <td>①</td><td>덩</td><td></td><td>덩</td><td>따</td><td>궁</td><td>따</td><td>궁</td> </tr> </table> <p style="text-align: right;">×되풀이</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r> <td>1</td><td>2</td><td>2</td><td>2</td><td>3</td><td>2</td><td>4</td><td>2</td> </tr> <tr> <td>②</td><td>궁</td><td>따</td><td>궁</td><td>따</td><td>궁</td><td>따</td><td>궁</td> </tr> </table> <p style="text-align: right;">×되풀이</p>		1	2	2	2	3	2	4	2	갠	지	갯	지	갠	지	갯	지	1	2	2	2	3	2	4	2	①	덩		덩	따	궁	따	궁	1	2	2	2	3	2	4	2	②	궁	따	궁	따	궁	따
1	2	2	2	3	2	4	2																																											
갠	지	갯	지	갠	지	갯	지																																											
1	2	2	2	3	2	4	2																																											
①	덩		덩	따	궁	따	궁																																											
1	2	2	2	3	2	4	2																																											
②	궁	따	궁	따	궁	따	궁																																											

	<p>③ <table border="1" style="display: inline-table; vertical-align: middle;"> <tr><td>1</td><td>2</td><td>2</td><td>2</td><td>3</td><td>2</td><td>4</td><td>2</td></tr> <tr><td>궁</td><td>따</td><td>궁</td><td>따</td><td>궁</td><td>따</td><td>궁</td><td>따</td></tr> </table> ×되풀이</p> <p>※ 3분박 또는 2분박, 매우 빠른 4박자로 징이 두 점 들어간다는 뜻에서 이채라 한다. 그러나 반드시 징이 두 점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p>	1	2	2	2	3	2	4	2	궁	따	궁	따	궁	따	궁	따																																																								
1	2	2	2	3	2	4	2																																																																		
궁	따	궁	따	궁	따	궁	따																																																																		
진풀이 이해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lt;풀어가는 모습&gt;</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lt;풀고 난 모습&gt;</p> </div> </div> <p>달팽이진이 풀린 후 상쇠는 다시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다시 원진의 형태를 만든다. 이 때 소고는 큰 원진 안에 작은 원진을 만들어 큰 원과 반대방향으로 돌아서 두 개의 진이 교차되는 모습을 구현한다. 원이 다 만들어진 후 장단을 마무리하고 어르기를 해준다.</p>																																																																								
장단 재구성	<p>■ 팽과리 장단</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r><td>1</td><td>2</td><td>2</td><td>2</td><td>3</td><td>2</td><td>4</td><td>2</td></tr> <tr><td>갠</td><td>지</td><td>갓</td><td>지</td><td>갠</td><td>지</td><td>갓</td><td>지</td></tr> </table> <p>장단을 시작할 때는 팽과리가 이채 한 장단을 먼저 내어주고 다른 악기 모두 합주로 연주한다.</p> <p>■ 이채 매듭 장단</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r><td>1</td><td>2</td><td>2</td><td>2</td><td>3</td><td>2</td><td>4</td><td>2</td></tr> <tr><td>갠</td><td></td><td>갠</td><td></td><td>갠</td><td></td><td>갠</td><td></td></tr> <tr><td>갠</td><td>갠</td><td>갠</td><td>갠</td><td>...</td><td>...</td><td>...</td><td>...</td></tr> </table> <p>이채를 맺고자 할 때는 상쇠가 손을 들어 신호를 주고 일채의 장단처럼 점점 빠르게 어르기를 한다.</p> <p>■ 징</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r><td>1</td><td>2</td><td>2</td><td>2</td><td>3</td><td>2</td><td>4</td><td>2</td></tr> <tr><td>징</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p>■ 장구</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r><td>1</td><td>2</td><td>2</td><td>2</td><td>3</td><td>2</td><td>4</td><td>2</td></tr> <tr><td>덩</td><td></td><td>덩</td><td></td><td>궁</td><td>따</td><td>궁</td><td></td></tr> </table> <p>휘모리장단보다 약간 빠른 속도로 동일한 타법으로 연주한다.</p>	1	2	2	2	3	2	4	2	갠	지	갓	지	갠	지	갓	지	1	2	2	2	3	2	4	2	갠		갠		갠		갠		갠	갠	갠	갠	...	...	...	...	1	2	2	2	3	2	4	2	징								1	2	2	2	3	2	4	2	덩		덩		궁	따	궁	
1	2	2	2	3	2	4	2																																																																		
갠	지	갓	지	갠	지	갓	지																																																																		
1	2	2	2	3	2	4	2																																																																		
갠		갠		갠		갠																																																																			
갠	갠	갠	갠	...	...	...	...																																																																		
1	2	2	2	3	2	4	2																																																																		
징																																																																									
1	2	2	2	3	2	4	2																																																																		
덩		덩		궁	따	궁																																																																			

	<p>■ 북</p> <table border="1" data-bbox="523 443 1082 551"> <tr> <td>1</td> <td>2</td> <td>2</td> <td>2</td> <td>3</td> <td>2</td> <td>4</td> <td>2</td> </tr> <tr> <td>등</td> <td></td> <td>등</td> <td></td> <td>두</td> <td></td> <td>두</td> <td></td> </tr> <tr> <td>(빵)</td> <td></td> <td>(빵)</td> <td></td> <td>(통)</td> <td></td> <td>(통)</td> <td></td> </tr> </table> <p>■ 소고</p> <div data-bbox="523 618 1278 741"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삼채의 네 박 동작을 기본으로 삼되 한 장단에 오금을 두 번으로 표현하기에 돌, 셋, 넷 장단을 하나로 연결하여 빠르게 표현한다.</p> </div> <p>■ 잡색</p> <div data-bbox="523 808 1278 909"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이채 장단의 오금에 맞추어 어깨춤을 추게 하여 풍물놀이 공연의 신명을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p> </div>	1	2	2	2	3	2	4	2	등		등		두		두		(빵)		(빵)		(통)		(통)	
1	2	2	2	3	2	4	2																		
등		등		두		두																			
(빵)		(빵)		(통)		(통)																			
수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석 파악하기</li> <li>▷ 건강상태 및 준비상태 파악하기</li> <li>▷ 이채 장단의 구음 익히기</li> <li>▷ 이채 장단 익히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악기별로 돌아가며 장단을 익힌다.</li> </ul> </li> <li>▷ 이채 장단 오금하며 합주하기</li> <li>▷ 이채 장단을 치며 뛰는 오금으로 달팽이진 풀어 나오기</li> <li>▷ 학습 정리 및 차시 예고</li> <li>▷ 악기 정리 및 주변 정리하기</li> </ul>																								
구현 장면																									
수업 주안점 (유의점)	<p>첫째 마당에서 연주했던 휘모리장단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학생들에게 인식시키고 뛰는 걸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지도한다. 2박마다 왼발과 오른발을 높게 들어 뛰어가면서 치는 장단으로 앞의 휘모리장단보다 약간 빠르게 느껴질 수 있음을 이해시킨다.</p>																								

	진풀이는 달팽이진 모양에서 풀어 나오려고 할 때 이채 장단을 사용함을 알려주고, 상쇠가 달팽이진을 다 풀고 나왔을 경우에는 다시 반시계 방향으로 원진을 만드는데 소고는 큰 원진에 안에 작은 원진을 만들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돌아 두 개의 원이 교차되는 모습을 구현한다. 원이 다 만들어진 후에는 어르기로 장단을 맺어 다음 장단으로 넘어감을 지도한다.
--	---

#### 4) 풍류굿(질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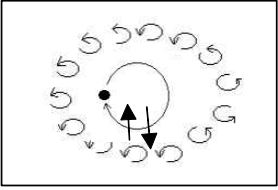
호남 우도 고창 곳에서는 풍류굿이라 표현하고 비슷한 장단이지만 이리농악에서는 질굿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굿거리장단과 비슷한 빠르기로 비교적 느린 장단에 속하며 삼채 장단 두 개가 묶여 있는 형태를 띤다. 보통 판교 공연에서 장단의 여유로운 속에 화려한 발림을 더해줌에 어깨춤을 구사하며 흥을 돋는데 효과적인 장단이라 할 수 있다. 풍물놀이의 느린 장단에서 점점 달아 고조되는 느낌을 구현하는데 있어 풍류굿은 느린 장단을 구현하는데 적합한 장단이다.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겹가락의 연주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홑가락의 장단을 변형하고 장단 보다는 발림에 유의하여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 표 IV-14 > 풍류굿 장단의 지도방법

<b>학 습 주 제</b>	<b>풍류굿</b>	<b>소요 차시</b>	<b>2~3차시</b>
<b>학 습 목 표</b>	1. 풍류굿 장단의 구음을 알고 악기로 연주할 수 있다. 2. 풍류굿 장단을 연주하며 입장하는 발걸음을 익힐 수 있다.		
<b>교 수 · 학 습 활 동</b>			
<b>학 습 장 단</b>	<b>장단 배경</b>	풍류굿 장단은 우리나라 농악이나 풍물굿의 느낌 속에서 여유를 보여주고 발림의 풍성함을 느끼게 하는데 적합한 장단이다. 장단의 형태는 삼채의 두 장단이 묶여 있는 모습을 띠며, 앞의 장단은 여유롭게 구사되고 뒤의 장단은 삼채 장단의 역동적인 느낌이 들게 하여 풍류굿 한 장단 안에 두 가지의 다른 느낌을 구사하는 데 적합하다. 호남우도 고창곳의 장단을 인용하였으며 발림이나 진풀이는 호남 우도 이리 농악을 접목하여 인용하였다.	

원형 장단	<table border="1"> <tr><td>1</td><td>2</td><td>3</td><td>2</td><td>2</td><td>3</td><td>3</td><td>2</td><td>3</td><td>4</td><td>2</td><td>3</td></tr> <tr><td>갱</td><td></td><td>갱</td><td></td><td>개</td><td></td><td>개</td><td>개</td><td>갱</td><td></td><td>개</td><td></td></tr> <tr><td>개</td><td>갱</td><td></td><td>개</td><td>갱</td><td></td><td>개</td><td></td><td>개</td><td>개</td><td>갱</td><td></td></tr> </table>	1	2	3	2	2	3	3	2	3	4	2	3	갱		갱		개		개	개	갱		개		개	갱		개	갱		개		개	개	갱																																																	
	1	2	3	2	2	3	3	2	3	4	2	3																																																																									
갱		갱		개		개	개	갱		개																																																																											
개	갱		개	갱		개		개	개	갱																																																																											
장단 재구 성	<p>■ 팽과리 내어주는 장단</p> <table border="1"> <tr><td>1</td><td>2</td><td>3</td><td>2</td><td>2</td><td>3</td><td>3</td><td>2</td><td>3</td><td>4</td><td>2</td><td>3</td></tr> <tr><td>갱</td><td></td><td>갱</td><td></td><td></td><td></td><td>개</td><td>개</td><td>갱</td><td></td><td></td><td></td></tr> <tr><td>개</td><td>갱</td><td></td><td>개</td><td>갱</td><td></td><td>개</td><td>~</td><td>개</td><td></td><td></td><td></td></tr> <tr><td>(어</td><td>절</td><td></td><td>씨</td><td>구</td><td></td><td>줄</td><td></td><td>다)</td><td></td><td></td><td></td></tr> </table> <p>팽과리 내어주는 장단은 위와 같으며 맷이를 삼채 맷이와 같게 하여 학생들이 헛갈리지 않게 지도한다. 상쇠가 위의 두 가락 중 위 장단을 연주하고 아래 장단은 다 같이 크게 추임새를 넣어 장단의 시작을 알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p> <p>■ 팽과리 장단</p> <table border="1"> <tr><td>1</td><td>2</td><td>3</td><td>2</td><td>2</td><td>3</td><td>3</td><td>2</td><td>3</td><td>4</td><td>2</td><td>3</td></tr> <tr><td>갱</td><td></td><td>갱</td><td></td><td></td><td></td><td>개</td><td>개</td><td>갱</td><td></td><td></td><td></td></tr> <tr><td>개</td><td>갱</td><td></td><td>개</td><td>갱</td><td></td><td>개</td><td></td><td>개</td><td>개</td><td>갱</td><td></td></tr> </table> <p>초등학생들에게 장단과 발림의 동작을 쉽게 구사하게 하기 위하여 앞의 첫 장단에서 ‘갱 갱’과 ‘개개갱’으로 단순화하여 지도한다. 1년 이상 장단 연주에 어려움이 없는 학생에게는 원형 장단을 구사하도록 지도한다.</p> <p>풍류굿은 4장단 정도를 연주하도록 약속하는 데 첫 장단에서는 안쪽으로 모여 들어가기, 둘째 장단은 바깥으로 나오기, 셋째 장단에서는 안쪽으로 모여 들어가기, 넷째 장단은 바깥으로 나오는 모습을 표현하게 하여 두 개의 쌍진 모양이 꽃이 피었다 지는 모습을 형상화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장단의 화려함을 살려 지도하도록 한다. 세부적인 풍류굿의 발림 동작은 아래와 같다.</p> <p><b>&lt;풍류굿의 발림(몸동작)&gt;</b></p> <p>하나( 1 2 3 ) : 오금을 주었다가(양쪽 무릎을 굽힘), 왼발을 위로 들어올려(오른발은 닫은 상태에서 오금을 펴며) 왼쪽 무릎을 ㄱ자 모양으로 굽힌다.</p> <p>둘 ( 2 2 3 ) : 들었던 왼발을 앞으로 내딛는다.</p> <p>셋 ( 3 2 3 ) : (왼발을 닫은 상태에서) 오른발을 들고 왼발을</p>	1	2	3	2	2	3	3	2	3	4	2	3	갱		갱				개	개	갱				개	갱		개	갱		개	~	개				(어	절		씨	구		줄		다)				1	2	3	2	2	3	3	2	3	4	2	3	갱		갱				개	개	갱				개	갱		개	갱		개		개	개	갱	
1	2	3	2	2	3	3	2	3	4	2	3																																																																										
갱		갱				개	개	갱																																																																													
개	갱		개	갱		개	~	개																																																																													
(어	절		씨	구		줄		다)																																																																													
1	2	3	2	2	3	3	2	3	4	2	3																																																																										
갱		갱				개	개	갱																																																																													
개	갱		개	갱		개		개	개	갱																																																																											





축으로 몸을 왼쪽으로 180°돌려서 뒤를 바라보고, 오른발을 왼발의 왼쪽에 딛는다.

넷 ( 4 2 3 ) : 왼발을 들고 오른발을 축으로 몸을 왼쪽으로 180°돌려서 앞을 바라본다.

다섯 ( 1 2 3 ) : 왼발을 앞으로 내딛는다.

여섯 ( 2 2 3 ) : 오른발을 앞으로 내딛는다.

일곱 ( 3 2 3 ) : 왼발을 앞으로 내딛는다.

여덟 ( 4 2 3 ) : 오른발을 앞으로 내딛는다.

■ 징

1	2	3	2	2	3	3	2	3	4	2	3
징											
징											

■ 장구

1	2	3	2	2	3	3	2	3	4	2	3
덩		덩				더	더	덩			
더	덩		더	덩		덩		따	궁	따	

■ 장구 겹장단 지도의 예시

1	2	3	2	2	3	3	2	3	4	2	3
덩		덩		따		더	더	덩	따		
덩		따	궁	따	구	궁		따	궁	따	

■ 북

1	2	3	2	2	3	3	2	3	4	2	3
둥		둥				두	두	둥			
둥		두	둥		두	둥		두	둥		





처음 배우는 학생들에게는 ‘두’를 생략하고 원박만 치도록 지도한다.

■ 소고

팽과리의 발림과 똑같은 모습으로 지도한다. 첫 박에 낭심에서 치고 둘, 셋, 넷은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한 바퀴 돌아주며, 다음 장단은 삼채 동작과 동일하다.

■ 잡색

팽과리의 발림과 같게 지도하거나 어깨춤을 추며 장단에 맞게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한다.

수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석 파악하기</li> <li>▷ 건강상태 및 준비상태 파악하기</li> <li>▷ 풍류굿 장단의 구름 익히기</li> <li>▷ 풍류굿 장단 익히기 ※ 악기별로 돌아가며 장단을 익힌다.</li> <li>▷ 풍류굿 장단 합주하기</li> <li>▷ 풍류굿 장단 오금 및 동작 익히기</li> <li>▷ 학습 정리 및 차시 예고</li> <li>▷ 악기 정리 및 주변 정리하기</li> </ul>	
구현 장면		
	<p style="text-align: center;">풍류굿 이중 원진 모습</p>  <p style="text-align: center;">풍류굿 장단에서 뒤로 나오는 모습</p>	<p style="text-align: center;">풍류굿 장단에 맞춰 들어가는 모습</p>  <p style="text-align: center;">풍류굿 장단에 맞춰 넓게 퍼지는 모습</p>
수업 주안점 (유의점)	<p>풍류굿 장단은 굿거리장단의 유사한 풍물장단으로 춤이나 발림(몸동작)을 표현하는데 알맞은 장단이다. 학생들에게 삼채 장단 두 개가 묶여 있는 형식임을 알게 하고 장단의 여유로움 속에 화려한 발림을 더해 주어 어깨 춤을 구사하며 흥이 느껴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p> <p>풍류굿을 시작할 때에는 “어절씨구 졸~다” 라는 추임새를 함께 하여 장단의 시작을 알리고 두 개의 원진 모형이 오므려졌다 퍼졌다는 반복하는 꽃의 모양을 형상화 하도록 지도하면 학생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장단보다는 발림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게 하여 장단의 흥이 느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p>	

5) 양산도

양산도는 세마치장단 4개가 묶여 있는 풍물 장단을 말한다.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굿거리, 자진모리, 세마치장단의 학습요소가 풍물놀이에서도 나타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양산도 장단을 인용하였다. 양산도 장단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요인 아리랑을 태평소로 연주하게 하여 학생들이 좀 더 친근하게 양산도 장단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표 IV-15 > 양산도장단의 지도방법

학 주	습 제	양산도	소 요 차 시	2~3차시																																														
학 목	습 표	1. 양산도 장단의 구음을 알고 악기로 연주할 수 있다. 2. 양산도 장단을 연주하며 입장하는 발걸음을 익힐 수 있다.																																																
<b>교 수 · 학 습 활 동</b>																																																		
학 장	습 단	장 단 배 경	<p>양산도 장단은 3분박, 3박자의 세마치 4장단으로 이루어졌으며 징은 세마치 한 장단마다 한 점이 들어간다. 4장단 중 첫째 장단에서만 연풍대를 돌아 표현하며 나머지 장단은 박에 맞게 걷는 장단이다. 한 장단이 세 박자로 이루어져 첫째 장단은 왼발이 먼저, 둘째 장단은 오른발이 먼저, 셋째 장단은 왼발이 먼저, 넷째 장단은 오른발이 먼저 나와 장단마다 먼저 나오는 발이 계속 바뀌게 되는데 이 점을 학생들에게 유의하여 지도하도록 한다.</p> <p>본 지도 방안에서는 호남 우도 이리 농악의 양산도 장단을 인용하기로 한다.</p>																																															
		원 형 장 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1</td><td>2</td><td>3</td><td>2</td><td>2</td><td>3</td><td>3</td><td>2</td><td>3</td> </tr> <tr> <td>갱</td><td></td><td></td><td>갱</td><td></td><td>깨</td><td>개</td><td>갱</td><td></td> </tr> <tr> <td>개</td><td>갱</td><td></td><td>갱</td><td></td><td>깨</td><td>개</td><td>갱</td><td></td> </tr> <tr> <td>개</td><td>갱</td><td></td><td>갱</td><td></td><td>깨</td><td>개</td><td>갱</td><td></td> </tr> <tr> <td>개</td><td>갱</td><td></td><td>갱</td><td></td><td></td><td>갯</td><td></td><td></td> </tr> </table>			1	2	3	2	2	3	3	2	3	갱			갱		깨	개	갱		개	갱		갱		깨	개	갱		개	갱		갱		깨	개	갱		개	갱		갱			갯		
		1	2	3	2	2	3	3	2	3																																								
갱			갱		깨	개	갱																																											
개	갱		갱		깨	개	갱																																											
개	갱		갱		깨	개	갱																																											
개	갱		갱			갯																																												
장 단 재 구 성	<p>■ 팽과리 장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1</td><td>2</td><td>3</td><td>2</td><td>2</td><td>3</td><td>3</td><td>2</td><td>3</td> </tr> <tr> <td>갱</td><td></td><td></td><td>갱</td><td></td><td>깨</td><td>개</td><td>갱</td><td></td> </tr> <tr> <td>개</td><td>갱</td><td></td><td>갱</td><td></td><td>깨</td><td>개</td><td>갱</td><td></td> </tr> <tr> <td>개</td><td>갱</td><td></td><td>갱</td><td></td><td>깨</td><td>개</td><td>갱</td><td></td> </tr> <tr> <td>개</td><td>갱</td><td></td><td>갱</td><td></td><td></td><td>갯</td><td></td><td></td> </tr> </table> <p>(허이)</p>			1	2	3	2	2	3	3	2	3	갱			갱		깨	개	갱		개	갱		갱		깨	개	갱		개	갱		갱		깨	개	갱		개	갱		갱			갯				
1	2	3	2	2	3	3	2	3																																										
갱			갱		깨	개	갱																																											
개	갱		갱		깨	개	갱																																											
개	갱		갱		깨	개	갱																																											
개	갱		갱			갯																																												

앞의 풍류굿이 끝나면 따로 내어주는 가락 없이 바로 합주로 위의 장단을 연주한다. 맨 마지막 장단에 맺어주는 부분을 더 강조하기 위하여 모든 치배가 ‘허이’라는 추임새를 넣어 장단의 구분을 지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세부적인 양산도의 발림 동작은 아래와 같다

**<양산도의 발림(몸동작)>**

하나( 1 2 3 ) : 왼발을 앞으로 내딛는다.

둘 ( 2 2 3 ) : 오른발을(왼발 앞으로) 밀으며 왼발을 축으로 몸을 왼쪽으로 180°돌려서 뒤를 바라본다.

셋 ( 3 2 3 ) : 왼발을 들어, 오른발을 축으로 왼쪽으로 180° 돌려서 앞을 바라본다.

다음 둘째 장단부터는 해당하는 발부터 한 박에 한 번씩 발걸음을 옮기며 앞으로 걸어 나간다.

■ 징

1	2	3	2	2	3	3	2	3
징								
징								
징								
징								

■ 장구

1	2	3	2	2	3	3	2	3
덩			덩		따	궁	따	
더	덩		덩		따	궁	따	
더	덩		덩		따	궁	따	
더	덩		덩		따	궁	따	


꽝과리는 맨 마지막 부분을 ‘개갱 갱 갯’으로 맺어주나 장구는 맨 마지막 장단도 맺지 않고 그대로 연주한다.

■ 북

1	2	3	2	2	3	3	2	3
등			등			등		
두	등		등			등		
두	등		등			등		
두	등		등			등		

■ 소고

삼채 장단의 첫째, 둘째 박 모양은 동일하며 셋째 박에서는 두 손을 어깨에서 바깥으로 퍼주는 동작을 한다. 발의 발림은 위의 꿩과리 동작과 동일하다

	<p>■ 잡색</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어깨춤을 추며 양산도 장단에 맞게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한다.</p> </div>
수업 현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석 파악하기</li> <li>▷ 건강상태 및 준비상태 파악하기</li> <li>▷ 양산도 장단의 구음 익히기</li> <li>▷ 양산도 장단 익히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악기별로 돌아가며 장단을 익힌다.</li> </ul> </li> <li>▷ 양산도 장단 합주하기</li> <li>▷ 양산도 장단 오금 및 동작 익히기</li> <li>▷ 학습 정리 및 차시 예고</li> <li>▷ 악기 정리 및 주변 정리하기</li> </ul>
구 현 장 면	
수업 주 안 점  (유의점)	<p>양산도 장단은 세마치장단 네 개가 모여 이루어진 풍물 장단임을 학생들에게 먼저 알게 하고 3박이기 때문에 한 장단마다 먼저 나오는 발이 바뀌게 됨을 이해시킨다. 태평소의 아리랑 곡에 맞추어 지도하면 좀 더 쉽게 양산도장단을 이해시킬 수 있으며 발동작을 먼저 분리하여 지도한 후 장단과 함께 연주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다.</p>


#### 6) 좌우치기

좌우치기 장단은 삼채장단의 또 다른 변형 장단이라 할 수 있다. 삼채 장단이 걷는데 많이 이용되는 장단이라 하면 좌우치기 장단은 장단에 맞게 새로운 발림을 하며 풍물놀이의 흥을 더해준다. 웃다리 평택 농악에서는 잣은 덩덕궁이 장단을 치며 양좌우치기를 한다. 쇠가락에 맞추어서 우3보, 좌3보, 전3보, 후3보를 하며

장단의 신명을 더하는데 발림이 어렵지 않고 추임새와 함께 역동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장단이라 초등학생이 배우는데 알맞은 장단으로 판단된다.

< 표 IV-16 > 좌우치기 장단의 지도방법

학 주	습 제	좌우치기	소요 차시	2~3차시																																																																																																											
학 목	습 표	1. 좌우치기 장단의 구음을 알고 악기로 연주할 수 있다. 2. 좌우치기 장단을 연주하며 입장하는 발걸음을 익힐 수 있다.																																																																																																													
<b>교 수 · 학 습 활 동</b>																																																																																																															
학 장	습 단	장 단 배 경	좌우치기 장단은 양좌우치기라 불리는데 삼채류의 변형된 장단으로서 비교적 장단이 쉽고 발림이 역동적이어서 초등학생이 연주하는데 알맞은 장단이다. 본 지도 방안에서는 웃다리 평택농악의 양좌우치기 장단을 인용하기로 한다.																																																																																																												
		원 형 장 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td>1</td><td>2</td><td>3</td><td>2</td><td>2</td><td>3</td><td>3</td><td>2</td><td>3</td><td>4</td><td>2</td><td>3</td></tr> <tr><td>갱</td><td></td><td>깨</td><td></td><td>깨</td><td></td><td>갱</td><td>지개</td><td>갱</td><td></td><td>깨</td><td></td></tr> <tr><td>개</td><td>갱</td><td></td><td>갱</td><td></td><td>지</td><td>갱</td><td></td><td></td><td>갯</td><td></td><td></td></tr> </table>			1	2	3	2	2	3	3	2	3	4	2	3	갱		깨		깨		갱	지개	갱		깨		개	갱		갱		지	갱			갯																																																																								
		1	2	3	2	2	3	3	2	3	4	2	3																																																																																																		
갱		깨		깨		갱	지개	갱		깨																																																																																																					
개	갱		갱		지	갱			갯																																																																																																						
장 단 재 구 성	<p>■ 팽과리 장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td>1</td><td>2</td><td>3</td><td>2</td><td>2</td><td>3</td><td>3</td><td>2</td><td>3</td><td>4</td><td>2</td><td>3</td></tr> <tr><td>갱</td><td></td><td>깨</td><td>개</td><td>갱</td><td></td><td>갱</td><td></td><td>깨</td><td>개</td><td>갱</td><td></td></tr> <tr><td>개</td><td>갱</td><td></td><td>개</td><td>갱</td><td></td><td>갱</td><td></td><td></td><td>갯<sup>(하이)</sup></td><td></td><td></td></tr> </table> <p>양산도 장단의 끝내는 장단 신호 후에 별도의 팽과리 내는 장단 없이 전체 악기를 합주한다. 장단의 마지막은 맺는 느낌은 '하이'라는 추임새를 크게 하여 장단의 흥을 더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p> <p>■ 징</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td>1</td><td>2</td><td>3</td><td>2</td><td>2</td><td>3</td><td>3</td><td>2</td><td>3</td><td>4</td><td>2</td><td>3</td></tr> <tr><td>징</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징</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하이)</td><td></td><td></td></tr> </table> <p>■ 장구</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td>1</td><td>2</td><td>3</td><td>2</td><td>2</td><td>3</td><td>3</td><td>2</td><td>3</td><td>4</td><td>2</td><td>3</td></tr> <tr><td>덩</td><td></td><td>따</td><td>궁</td><td>따</td><td></td><td>덩</td><td></td><td>따</td><td>궁</td><td>따</td><td></td></tr> <tr><td>더</td><td>덩</td><td></td><td>더</td><td>덩</td><td></td><td>덩</td><td></td><td></td><td>딱<sup>(하이)</sup></td><td></td><td></td></tr> </table>			1	2	3	2	2	3	3	2	3	4	2	3	갱		깨	개	갱		갱		깨	개	갱		개	갱		개	갱		갱			갯 <sup>(하이)</sup>			1	2	3	2	2	3	3	2	3	4	2	3	징												징									(하이)			1	2	3	2	2	3	3	2	3	4	2	3	덩		따	궁	따		덩		따	궁	따		더	덩		더	덩		덩			딱 <sup>(하이)</sup>		
1	2	3	2	2	3	3	2	3	4	2	3																																																																																																				
갱		깨	개	갱		갱		깨	개	갱																																																																																																					
개	갱		개	갱		갱			갯 <sup>(하이)</sup>																																																																																																						
1	2	3	2	2	3	3	2	3	4	2	3																																																																																																				
징																																																																																																															
징									(하이)																																																																																																						
1	2	3	2	2	3	3	2	3	4	2	3																																																																																																				
덩		따	궁	따		덩		따	궁	따																																																																																																					
더	덩		더	덩		덩			딱 <sup>(하이)</sup>																																																																																																						

	<p>■ 북</p> <table border="1" data-bbox="523 436 1273 548"> <tr> <td>1</td><td>2</td><td>3</td><td>2</td><td>2</td><td>3</td><td>3</td><td>2</td><td>3</td><td>4</td><td>2</td><td>3</td> </tr> <tr> <td>등</td><td></td><td></td><td></td><td></td><td></td><td>등</td><td></td><td></td><td></td><td></td><td></td> </tr> <tr> <td>두</td><td>등</td><td></td><td>두</td><td>등</td><td></td><td>등</td><td></td><td></td><td>딱<sup>(하이)</sup></td><td></td><td></td> </tr> </table> <p>■ 소고</p> <p>첫째 줄 장단에서는 '하나'에 두 손 밑 낭심에서 쪽 펴서 앞면을 치고 돌에 얼굴 앞에서 앞면을 치고 다시 '셋'에 두 손 밑 낭심에서 쪽 펴서 앞면을 치고 넷에 얼굴 앞에서 앞면을 친다.</p> <p>둘째 줄 장단에서는 삼채 장단의 셋째 박과는 동일하고 넷째 박에서는 소고와 채를 양 어깨에 넓게 펴면서 '하이'라는 추임새와 함께 마무리한다.</p> <p>■ 잡색</p> <p>잡색은 오금에 맞게 다른 악기와 발림을 맞추어 어깨춤을 추게 하여 풍물놀이 공연의 신명을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p>	1	2	3	2	2	3	3	2	3	4	2	3	등						등						두	등		두	등		등			딱 <sup>(하이)</sup>		
1	2	3	2	2	3	3	2	3	4	2	3																										
등						등																															
두	등		두	등		등			딱 <sup>(하이)</sup>																												
수 업 현 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석 파악하기</li> <li>▷ 건강상태 및 준비상태 파악하기</li> <li>▷ 좌우치기 장단의 구음 익히기</li> <li>▷ 좌우치기 장단 익히기</li> <li>※ 악기별로 돌아가며 장단을 익힌다.</li> <li>▷ 좌우치기 장단 합주하기</li> <li>▷ 좌우치기 장단 오금 및 동작 익히기</li> <li>▷ 학습 정리 및 차시 예고</li> <li>▷ 악기 정리 및 주변 정리하기</li> </ul>																																				
구 장 현 면																																					

수업 주안점  (유의점)	<p>좌우치기 장단은 삼채 장단의 변형임을 알려주고 삼채의 기본 4육음 중에 세 번째 장단과 삼채 맺이 장단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장단임을 알려주면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다. 좌우치기 마지막의 ‘개갱 개갱 갱 갯’의 맺는 장단에 ‘허이’라는 추임새를 함께 하여 장단의 흥이 느껴질 수 있게 지도한다.</p> <p>경기도 평택농악에서는 장단에 맞춰 우3보, 좌3보, 전3보, 후3보로 연희되지만 초등학생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우로 1장단, 좌로 1장단, 다시 우로 1장단, 전과 후로 2장단, 연풍대를 돌며 뒤로 2장단으로 변형하여 지도하기로 한다. 위와 같이 장단의 수를 정한 이유는 진풀이가 원진형태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연주되기 때문에 발의 모양을 장단에 맞고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이다. 발림의 형태는 ‘덩 따궁따 덩 따궁따’ 위아래로 오금하면서 오른쪽으로 네 번 이동하고 ‘더덩 더덩 덩 딱(허이)’에서 위아래로 오금하면서 오른쪽으로 세 번 이동한 후에 마지막 네 번째에 왼발을 들고 멈추면서 ‘허이’라는 추임새로 장단을 마무리한다. 왼쪽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방향과 마지막 왼발을 드는 것이 오른발로만 바뀌면서 마찬가지로 형태의 발림을 해준다. 마지막 연풍대에서는 뒤로 네 박을 이동하면서 세 바퀴 또는 네 바퀴를 돌아 주면서 발림의 풍성함을 더해준다.</p>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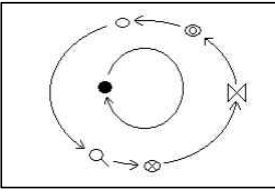
7) 오방진

오방진장단은 4분박 계열의 장단으로 앞의 3분박 형태의 좌우치기와 그 형태가 다르다. 따라서 앞의 장단과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없으므로 팽과리로 내어주는 장단을 쳐주어 시작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초) 좋~다.’의 추임새와 함께 오방진을 시작해도 흥겨운 느낌을 표현할 수 있어 효과적이다.

< 표 IV-17 > 오방진장단의 지도방법

학 습 주 제	오방진	소요 차시	1차시
학 습 목 표	1. 오방진 장단의 구음을 알고 악기로 연주할 수 있다. 2. 오방진 장단을 연주하며 뛰는 오금으로 달팽이진을 풀 수 있다.		
<b>교 수 · 학 습 활 동</b>			
학 습 장 단	오방진 장단은 2분박 또는 크게 4분박 장단으로 호남 우도에서		



장 단	배경	<p>자주 사용되는 장단이다. 발림과 함께 연주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오방진 뒤에는 가락의 빠르기가 고조되는 진오방진으로 이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p> <p>본 지도 방안에서는 호남 우도 이리 농악의 오방진 장단을 인용하기로 한다.</p>																																																																															
	연행 장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1</td><td>2</td><td>3</td><td>4</td><td>2</td><td>2</td><td>3</td><td>4</td><td>3</td><td>2</td><td>3</td><td>4</td><td>4</td><td>2</td><td>3</td><td>4</td> </tr> <tr> <td>갱</td><td></td><td></td><td></td><td>갱</td><td></td><td></td><td></td><td>갱</td><td></td><td>갱</td><td></td><td>갯</td><td></td><td>깨</td><td></td> </tr> <tr> <td>개</td><td>개</td><td>갱</td><td></td><td>개</td><td>개</td><td>갱</td><td></td><td>갱</td><td></td><td>갱</td><td></td><td>갯</td><td></td><td>깨</td><td></td> </tr> </table>	1	2	3	4	2	2	3	4	3	2	3	4	4	2	3	4	갱				갱				갱		갱		갯		깨		개	개	갱		개	개	갱		갱		갱		갯		깨																																
	1	2	3	4	2	2	3	4	3	2	3	4	4	2	3	4																																																																	
	갱				갱				갱		갱		갯		깨																																																																		
개	개	갱		개	개	갱		갱		갱		갯		깨																																																																			
진풀이 이해	<div style="text-align: center;">  <p>&lt;오방진 모습&gt;</p> </div> <p>※ 쌍원진 상태에서 모두 원의 안쪽을 바라보며 장단을 연주한다. 진오방진의 역동적인 진풀이를 보여주기 전 단계의 장단이라 할 수 있다.</p> <p>- 지배별 원진 : 잽이들이 오방진 가락을 치며 쇠와 징들은 반시계 방향으로 원을 만든다. 장구와 북은 시계 방향으로 원을 만들어 돌고, 소고는 반시계 방향으로 원을 만들며 돈다. 이를 삼방진이라고도 부른다. 이어서 상쇠는 쇠꾼들과 징을 이끌고 장구와 북이 돌고 있는 원을 밖으로 돌아 이들이 쇠와 징의 뒤를 따라오게 하고, 다시 소고가 돌고 있는 원을 밖으로 돌아 이들이 뒤따라오도록 한다.</p>																																																																																
장단 재구성	<p>■ 팽과리 내어주는 장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1</td><td>2</td><td>3</td><td>4</td><td>2</td><td>2</td><td>3</td><td>4</td><td>3</td><td>2</td><td>3</td><td>4</td><td>4</td><td>2</td><td>3</td><td>4</td> </tr> <tr> <td>갱</td><td></td><td></td><td>지</td><td>갯</td><td></td><td>깨</td><td></td><td>갱</td><td></td><td></td><td>지</td><td>갯</td><td></td><td>깨</td><td></td> </tr> </table> <p>‘얼씨구 (절씨구), 지화자(○○초) 졸~다.’의 추임새와 함께 팽과리가 내는 가락으로 신호를 준 뒤, 모든 지배들이 합주한다.</p> <p>■ 팽과리 장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1</td><td>2</td><td>3</td><td>4</td><td>2</td><td>2</td><td>3</td><td>4</td><td>3</td><td>2</td><td>3</td><td>4</td><td>4</td><td>2</td><td>3</td><td>4</td> </tr> <tr> <td>갱</td><td></td><td></td><td></td><td>갱</td><td></td><td></td><td></td><td>갱</td><td></td><td>갱</td><td></td><td>갯</td><td></td><td>깨</td><td></td> </tr> <tr> <td>개</td><td>개</td><td>갱</td><td></td><td>개</td><td>개</td><td>갱</td><td></td><td>갱</td><td></td><td>갱</td><td></td><td>갯</td><td></td><td>깨</td><td></td> </tr> </table>	1	2	3	4	2	2	3	4	3	2	3	4	4	2	3	4	갱			지	갯		깨		갱			지	갯		깨		1	2	3	4	2	2	3	4	3	2	3	4	4	2	3	4	갱				갱				갱		갱		갯		깨		개	개	갱		개	개	갱		갱		갱		갯		깨	
1	2	3	4	2	2	3	4	3	2	3	4	4	2	3	4																																																																		
갱			지	갯		깨		갱			지	갯		깨																																																																			
1	2	3	4	2	2	3	4	3	2	3	4	4	2	3	4																																																																		
갱				갱				갱		갱		갯		깨																																																																			
개	개	갱		개	개	갱		갱		갱		갯		깨																																																																			

**<오방진의 발림(몸동작)>**

하나( 1 2 3 4 ) : 왼발을 앞으로 내딛는다.

둘 ( 2 2 3 4 ) : 오른발을(왼발 앞으로) 축으로 왼발을 ‘ㄱ’자 모양으로 만들어 들어 올린다.

셋 ( 3 2 3 4 ) : 왼발을 앞으로 내딛는다.

넷 ( 4 2 3 4 ) : 오른발을(왼발 앞으로) 축으로 왼발을 ‘ㄱ’자 모양으로 만들어 들어 올린다.

아랫 줄 장단은 장단에 맞게 왼발부터 한 박에 한 번씩 발걸음을 걸으며 왼쪽으로 한 바퀴를 돌아준다.

오방진을 맺고자 할 때는 상쇠가 손을 들어 신호를 주고 진오방진 장단으로 전체가 넘어간다.

■ 징

1	2	3	4	2	2	3	4	3	2	3	4	4	2	3	4
징								징							
징								징							

■ 장구

1	2	3	4	2	2	3	4	3	2	3	4	4	2	3	4
덩				덩				덩	덩			딱	따		
더	더	덩		더	더	덩		덩	덩			딱	따		

취모리장단보다 약간 빠른 속도로 동일한 타법으로 연주한다.

■ 북


1	2	3	4	2	2	3	4	3	2	3	4	4	2	3	4
둥				둥				둥	둥				둥		
두	두	둥		두	두	둥		둥	둥				둥		

■ 소고

첫째 줄 장단에서는 '하나'에 두 손 밑 낭심에서 쪽 퍼서 앞면을 치고 둘째 줄에 얼굴 앞에서 앞면을 치고 다시 '셋'에 두 손 밑 낭심에서 쪽 퍼서 앞면을 치고 넷에 얼굴 앞에서 앞면을 친다. 발의 발림은 팽과리와 동일하다.  
 둘째 줄 장단에서는 삼채 장단의 동작과 동일하게 연주한다.

■ 잡색

오방진장단의 오금과 발림에 맞추어 어깨춤을 추게 하여 풍물놀이 공연의 신명을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수 업 목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석 파악하기</li> <li>▷ 건강상태 및 준비상태 파악하기</li> <li>▷ 오방진 장단의 구음 익히기</li> <li>▷ 오방진 장단 익히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악기별로 돌아가며 장단을 익힌다.</li> </ul> </li> <li>▷ 오방진 장단 오금하며 합주하기</li> <li>▷ 오방진 장단을 치며 발림하기</li> <li>▷ 학습 정리 및 차시 예고</li> <li>▷ 악기 정리 및 주변 정리하기</li> </ul>
구 현 장	
수 업 주 안 점  (유의점)	<p>오방진은 3분박 계열의 장단이 아니라 2분박 또는 4분박 계열의 장단임을 알게 하고 처음 시작할 때 큰 목소리로 추임새를 하게 하여 장단의 시작을 알리게 한다. 또한 발림과 장단이 조화롭게 보이게 하기 위하여 발림 동작을 반복해서 많이 연습하도록 지도한다.</p>

### 8) 진오방진

오방진 장단과 함께 4분박 또는 2분박 계열의 장단이다. 오방진에 비해 빠르다고 하여 진오방진이라 하며 발걸음과 함께 빠르게 이동하여 다양한 진풀이를 선보일 때 쓰이는 역동적인 장단이다.

< 표 IV-18 > 진오방진 장단의 지도방법

학 주 제	진오방진	소요 차시	1차시
학 습 목 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진오방진 장단의 구음을 알고 악기로 연주할 수 있다.</li> <li>2. 진오방진 장단을 연주하며 뛰는 오금으로 달팽이진을 풀 수 있다.</li> </ol>		

교 수 · 학 습 활 동

학 장 습 단	장단 배경	<p>진오방진 장단은 2분박 또는 크게 4분박 장단으로 오방진 장단에 바로 이어지는 장단이다. 쟈 발걸음과 장단이 맞아 떨어지며 빠른 속도로 움직여 다양한 진풀이를 선보인다. 오방진이라는 뜻은 원래 다섯 개의 방향을 돌며 나타나는 진풀이에서 비롯된 이름이다.</p> <p>본 지도 방안에서는 호남 우도 이리 농악의 진오방진 장단과 함께 호남 우도 고창농악의 진오방진을 접목하여 인용하고자 한다.</p>																																
	원형 장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1</td><td>2</td><td>3</td><td>4</td><td>2</td><td>2</td><td>3</td><td>4</td><td>3</td><td>2</td><td>3</td><td>4</td><td>4</td><td>2</td><td>3</td><td>4</td> </tr> <tr> <td>갱</td><td></td><td>개</td><td>개</td><td>웃</td><td>개</td><td>갱</td><td></td><td>개</td><td>개</td><td>개</td><td>개</td><td>웃</td><td>개</td><td>갱</td><td></td> </tr> </table>	1	2	3	4	2	2	3	4	3	2	3	4	4	2	3	4	갱		개	개	웃	개	갱		개	개	개	개	웃	개	갱	
	1	2	3	4	2	2	3	4	3	2	3	4	4	2	3	4																		
	갱		개	개	웃	개	갱		개	개	개	개	웃	개	갱																			
진풀 이 해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p>&lt;삼방진 모습&gt;</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p>&lt;오방진 모습&gt;</p> </div> </div> <p>– 치배별 원진 : 치배들이 진오방진 가락을 치며 쇠와 징들은 반시계방향으로 원을 만든다. 장구와 북은 시계 방향으로 원을 만들어 돌고, 소고는 반시계방향 원을 만들며 돈다. 이를 삼방진이라고도 부른다. 치배가 동일한 수일 경우에는 팽과리와 징, 장구, 북, 소고가 치배별로 네 개의 원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어서 상쇠는 쇠꾼들과 징을 이끌며 장구와 북이 돌고 있는 원을 밖으로 돌아 이들이 쇠와 징의 뒤를 따라오게 하고, 다시 소고가 돌고 있는 원을 밖으로 돌아 이들이 뒤따라 오도록 한다.</p>																																	
장단 재구 성	<p>■ 팽과리 장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1</td><td>2</td><td>3</td><td>4</td><td>2</td><td>2</td><td>3</td><td>4</td><td>3</td><td>2</td><td>3</td><td>4</td><td>4</td><td>2</td><td>3</td><td>4</td> </tr> <tr> <td>갱</td><td></td><td>개</td><td>개</td><td>웃</td><td>개</td><td>갱</td><td></td><td>개</td><td>개</td><td>개</td><td>개</td><td>웃</td><td>개</td><td>갱</td><td></td> </tr> </table>	1	2	3	4	2	2	3	4	3	2	3	4	4	2	3	4	갱		개	개	웃	개	갱		개	개	개	개	웃	개	갱		
1	2	3	4	2	2	3	4	3	2	3	4	4	2	3	4																			
갱		개	개	웃	개	갱		개	개	개	개	웃	개	갱																				

별다른 발림 없이 한 박에 왼발부터 짚걸음으로 움직인다. 네 개의 원진이 만들어지는 동안 위의 장단을 연주하며, 원이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상쇠가 4개의 원진을 다시 하나로 연결하는 진풀이에서는 구분하기 위하여 호남 우도 고창 농악의 다음 장단을 이용한다.

1	2	3	4	2	2	3	4	3	2	3	4	4	2	3	4
갱	개	갱		개	개	갱		개	갱		개	개	지	갱	

위의 장단을 이용하여 하나의 줄을 만든 후 다시 달팽이진을 말아가는 데 달팽이진이 거의 만들어진 후에는 장단의 변형을 주어 고조되는 장단의 흐름을 연출한다.

1	2	3	4	2	2	3	4	3	2	3	4	4	2	3	4
갱	개	갱		개	개	갱		갱	개	갱		개	개	갱	

■ 징

1	2	3	4	2	2	3	4	3	2	3	4	4	2	3	4
징								징							
징								징							

■ 장구

1	2	3	4	2	2	3	4	3	2	3	4	4	2	3	4
덩		따	따	궁	따	궁		따	구	궁	따	궁	따	궁	

진풀이의 모양에 따라 팽과리는 장단이 바뀌지만 나머지 약기는 원(源)장단 그대로 연주한다.

■ 북



















1	2	3	4	2	2	3	4	3	2	3	4	4	2	3	4
등		두		등		두		등		두		등		두	
(뽕)		(통)		(뽕)		(통)		(뽕)		(통)		(뽕)		(통)	

■ 소고



첫 박에서만 두 손 밑 낭심에서 소고를 쳐주고 나머지 박에서는 소고는 머리 위에서 채는 허리 뒤로 하여 약기와 채를 흔들며 준다.

■ 잡색

진오방진 장단의 오금과 발림에 맞추어 어깨춤을 추게 하여 풍물놀이 공연의 신명을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수 현 업 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석 파악하기</li> <li>▷ 건강상태 및 준비상태 파악하기</li> <li>▷ 진오방진 장단의 구음 익히기</li> <li>▷ 진오방진 장단 익히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악기별로 돌아가며 장단을 익힌다.</li> </ul> </li> <li>▷ 진오방진 장단 오금하며 합주하기</li> <li>▷ 진오방진 장단을 치며 진풀이하기</li> <li>▷ 학습 정리 및 차시 예고</li> <li>▷ 악기 정리 및 주변 정리하기</li> </ul>												
구 현 장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height: 100%; text-align: center;"> <tr> <td data-bbox="411 797 863 1093"></td> <td data-bbox="863 797 1294 1093"></td> </tr> <tr> <td data-bbox="411 1093 863 1144">악기별 원진 만들기 장면</td> <td data-bbox="863 1093 1294 1144">4개의 원진 만들기 장면</td> </tr> <tr> <td data-bbox="411 1144 863 1440"></td> <td data-bbox="863 1144 1294 1440"></td> </tr> <tr> <td data-bbox="411 1440 863 1491">상쇠가 악기별 원진 풀어내는 장면</td> <td data-bbox="863 1440 1294 1491">상쇠가 악기별 원진 풀어내는 장면</td> </tr> <tr> <td data-bbox="411 1491 863 1794"></td> <td data-bbox="863 1491 1294 1794"></td> </tr> <tr> <td data-bbox="411 1794 863 1839">전체의 큰 원진 만들기 장면</td> <td data-bbox="863 1794 1294 1839">전체 방울진 만들기 장면</td> </tr> </table>			악기별 원진 만들기 장면	4개의 원진 만들기 장면			상쇠가 악기별 원진 풀어내는 장면	상쇠가 악기별 원진 풀어내는 장면			전체의 큰 원진 만들기 장면	전체 방울진 만들기 장면
													
악기별 원진 만들기 장면	4개의 원진 만들기 장면												
													
상쇠가 악기별 원진 풀어내는 장면	상쇠가 악기별 원진 풀어내는 장면												
													
전체의 큰 원진 만들기 장면	전체 방울진 만들기 장면												



		
	<p>전체 방울진 만들기 장면</p>	<p>전체 방울진 완성 장면</p>
<p><b>수업 주안점 (유의점)</b></p>	<p>진오방진은 2분박 또는 4분박 계열의 장단임을 알게 하고 발걸음과 장단이 정확하게 일치함을 알려 준다. 또한 장단을 치면서 다양한 진풀이를 선보이는데 오방진의 개념이 다섯 개의 방향을 도는데서 나왔다는 것을 설명해 주면 학생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4개의 치배별 원을 만드는 경우에는 영(令)기의 기수가 그 방향의 중심을 잡아 주어 각 치배들이 원을 만드는데 대형을 유지하면서 진풀이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면 효과적이다.</p>	

### 9) 푸다시

푸다시는 잡귀가 몸에 범접하여 일어난 병을 고치는 곳을 말한다. 잡귀가 몸에 붙으면 병이 된다고 믿고 이 잡귀를 신칼로 위협하여 쫓아내는 곳이다. 푸다시는 잡귀를 쫓아내는 자귀풀이가 주 내용이 되고 있지만, 혹 잡귀의 범접으로 인한 병이 아니라 어떤 신에게 잘못된 죄 때문에 일어난 병인지도 모르므로 굿은 여러 신들을 청하여 모시고 그 죄를 사해 주도록 비는 범풀이를 먼저하고 그 다음에 몸에 붙은 잡귀를 쫓아내는 잡귀풀이를 한다.<sup>61)</sup>

제주도의 굿에서 자주 사용되는 푸다시 무가를 활용하여 제주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색을 풍물놀이에 접목하여 나타내고자 한다. 푸다시의 가사 내용이 다소 어려운 부분은 학생들이 알기 쉽게 개사하고 선율 또한 반복성을 띠도록 바꿔서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새드림과 마찬가지로 푸다시 장단 역시 앞서 연희되고 북을 치는 타범이나 연물과 풍물놀이 악기가 기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풍물놀이 악기로 연주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풍물놀이의 장단과 잘 맞도록 변형, 재구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61) 현용준, 『제주도 무속자료 사전』, (신악문화사, 1980), 900쪽

< 표 IV-19 > 푸다시 무가와 장단의 지도방법

학 주 제	푸다시	소요 차시	2~3차시																																
학 습 목 표	1. 푸다시 장단의 구음을 알고 악기로 연주할 수 있다. 2. 푸다시 장단을 연주하며 푸다시 무가를 부를 수 있다.																																		
<b>교 수 · 학 습 활 동</b>																																			
학 장 습 단	장단 배경	<p>푸다시는 제주의 곳에서 일반적으로 병을 치료하던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무가(巫歌)이다. 연물북으로 연주되던 장단을 쉽게 변형하고 악기 위주보다는 노래가 주가 될 수 있도록 제주곳의 음색을 표현하여 지도하고자 한다.</p> <p>본 지도 방안에서는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의 푸다시의 무가를 인용하고자 한다. 푸다시 장단이 풍물놀이의 진오방진 장단과 유사하므로 푸다시의 무가(巫歌)가 끝난 후에는 공연의 절정의 흥을 보여주는 짝드름 장단을 연주하여 공연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p>																																	
	원형 장단	<p>■장구</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r> <td>1</td><td>2</td><td>2</td><td>2</td><td>3</td><td>2</td><td>4</td><td>2</td> </tr> <tr> <td>덩</td><td></td><td>따</td><td>따</td><td>궁</td><td></td><td>따</td><td></td> </tr> </table> <p style="margin-left: 40px;">× 되풀이</p> <p>■연물북</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r> <td>1</td><td>2</td><td>2</td><td>2</td><td>3</td><td>2</td><td>4</td><td>2</td> </tr> <tr> <td>둥</td><td>글</td><td>맞</td><td>게</td><td>둥</td><td>글</td><td>맞</td><td>게</td> </tr> </table> <p style="margin-left: 40px;">× 되풀이</p> <p>제주 칠머리당 영등굿에서는 주로 연물북이 주가 되어 연주되고 두 채를 이용하여 좌우타법으로 ‘둥글맞게 둥글맞게’의 구음으로 표현된다.</p>		1	2	2	2	3	2	4	2	덩		따	따	궁		따		1	2	2	2	3	2	4	2	둥	글	맞	게	둥	글	맞	게
	1	2	2	2	3	2	4	2																											
덩		따	따	궁		따																													
1	2	2	2	3	2	4	2																												
둥	글	맞	게	둥	글	맞	게																												
장단 재구 성	<p>■쟁과리, 징</p> <p>노래의 소리를 강조하기 위하여 쇠 악기는 사용하지 않고 악기 채를 들고 어깨춤을 추며 달팽이진을 말면서 흥겹게 노래 부른다.</p> <p>■ 장구</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r> <td>1</td><td>2</td><td>2</td><td>2</td><td>3</td><td>2</td><td>4</td><td>2</td> </tr> <tr> <td>덩</td><td></td><td>따</td><td>따</td><td>궁</td><td></td><td>따</td><td></td> </tr> </table> <p style="margin-left: 40px;">× 되풀이</p>		1	2	2	2	3	2	4	2	덩		따	따	궁		따																		
1	2	2	2	3	2	4	2																												
덩		따	따	궁		따																													



		<p>■ 북</p> <table border="1" data-bbox="523 432 1082 504"> <tr> <td>1</td><td>2</td><td>2</td><td>2</td><td>3</td><td>2</td><td>4</td><td>2</td> </tr> <tr> <td>동</td><td></td><td>딱</td><td></td><td>동</td><td></td><td>딱</td><td></td> </tr> </table> <p>×되풀이</p> <p>제주의 연물 연주에서는 ‘동글맞게 동글맞게’라는 구음으로 두 개의 채를 이용하여 좌우타법으로 연주되지만, 풍물놀이에서는 두 개의 채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화하여 지도한다. 다만 ‘동글맞게 동글맞게’에서 북의 각을 치는 부분을 연물 연주와 일치시켜 앞의 각을 치는 부분은 북의 앞쪽을 치고 뒤의 각치는 부분은 북의 위쪽을 치도록 하여 제주도의 연물북 치는 느낌이 나도록 재구성하여 지도한다.</p> <p>■ 소고, 잡색</p> <table border="1" data-bbox="523 869 1300 1075"> <tr> <td>악기는 별도로 연주하지 않고 달팽이진의 상태에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면서 노래를 부른다. 푸다시 장단이 풍물놀이 장단의 진오방진과 가장 비슷하므로 진오방진 장단의 오금에 맞추어 어깨춤을 추면서 노래를 크고 신명나게 부를 수 있도록 한다.</td> </tr> </table>	1	2	2	2	3	2	4	2	동		딱		동		딱		악기는 별도로 연주하지 않고 달팽이진의 상태에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면서 노래를 부른다. 푸다시 장단이 풍물놀이 장단의 진오방진과 가장 비슷하므로 진오방진 장단의 오금에 맞추어 어깨춤을 추면서 노래를 크고 신명나게 부를 수 있도록 한다.
1	2	2	2	3	2	4	2												
동		딱		동		딱													
악기는 별도로 연주하지 않고 달팽이진의 상태에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면서 노래를 부른다. 푸다시 장단이 풍물놀이 장단의 진오방진과 가장 비슷하므로 진오방진 장단의 오금에 맞추어 어깨춤을 추면서 노래를 크고 신명나게 부를 수 있도록 한다.																			
	<p>푸다 시 무 가 재구 성</p>	<p>허세 --(허세 --)  허세(허세)  허세(허세) 허세로다  요거보라 어떤 신전  영협니까 올라사면  옥황상전 내려사면  지부서천대황  산으로 가면 산신대왕  물로 가면 대서용궁  절로 가면 서산대사  인간불도 제주도 여러분덕네  걸린 원불 죄책 청너울로 풀어-----</p>																	
<p>수 회 연 습</p>		<p>▷ 출석 파악하기  ▷ 건강상태 및 준비상태 파악하기  ▷ 푸다시 장단의 구음 익히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푸다시 장단 익히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악기별로 돌아가며 장단을 익힌다.</li> </ul> </li> <li>▷ 푸다시 장단 합주하기</li> <li>▷ 푸다시 장단 오금 및 동작 익히기</li> <li>▷ 푸다시 무가 익히기</li> <li>▷ 푸다시 무가 부르며 장단 연주하기</li> <li>▷ 학습 정리 및 차시 예고</li> <li>▷ 악기 정리 및 주변 정리하기</li> </ul>
구 현 장 면	
수 업 주 안 점  (유의점)	<p>푸다시 무가와 장단을 지도할 때에는 이 장단과 노래를 사용하는 연유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옛 조상들은 의술이 크게 발달하지 못한 시대에 살았고 병이 걸렸을 경우 신의 노여움을 풀어냄으로서 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믿었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설명한다. 실제 풍물놀이도 개인이나 마을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펼쳤던 하나의 축제였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그리고 제주도에 실제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칠머리당 영등굿의 무가 중 ‘푸다시’라는 무가와 장단을 풍물놀이와 접목하여 배우게 됨을 설명하여 우리 지역의 문화에 대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p>

10) 싸잡이

싸잡이는 휘모리장단을 연주할 때 쇠끼리 장단을 주고받으며 노는 짝드름과 함께 연주되는 장단이다. 호남 좌도 필봉굿에서 연주되는 장단으로 역동적이고 쇠의 주고받는 장단이 관객들에게 신명과 흥을 느끼게 한다. 장단 도중에 여러 가지 추임새를 이용하여 흥겨움을 더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표 IV-20 > 싸잡이 장단의 지도방법

학 주 세	싸잡이	소요 차시	1차시																																																																								
학 습 목 표	1. 싸잡이 장단의 구음을 알고 악기로 연주할 수 있다. 2. 싸잡이 장단을 연주하며 입장하는 발걸음을 익힐 수 있다.																																																																										
<b>교 수 · 학 습 활 동</b>																																																																											
학 장 습 단	장단 배경	<p>싸잡이 장단은 휘모리장단을 치다 쇠끼리 주고받으며 노는 짝드름을 함께 아울러 표현하는 장단이다. 오금이 역동적이고 한껏 고조된 분위기의 공연의 절정에서 연주하기에 알맞은 장단이다.</p> <p>달팽이진으로 촘촘히 말아진 진풀이에서 위아래로 오금을 하며 옆뛰기 동작을 하며 연주를 한다.</p> <p>신명나는 추임새와 더불어 역동적인 느낌을 연출하는 호남 좌도 임실 필봉굿을 인용하여 지도하기로 한다.</p>																																																																									
	원형 장단	<p>■ 싸잡이 장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1</td><td>2</td><td>3</td><td>2</td><td>2</td><td>3</td><td>3</td><td>2</td><td>3</td><td>4</td><td>2</td><td>3</td> </tr> <tr> <td>간</td><td></td><td>지</td><td>간</td><td></td><td>지</td><td>간</td><td></td><td>지</td><td>간</td><td></td><td>지</td> </tr> </table> <p>■ 싸잡이</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상쇠</td><td></td><td></td><td>부쇠</td><td></td><td></td><td>상쇠</td><td></td><td></td><td>부쇠</td><td></td><td></td> </tr> <tr> <td>1</td><td>2</td><td>3</td><td>2</td><td>2</td><td>3</td><td>3</td><td>2</td><td>3</td><td>4</td><td>2</td><td>3</td> </tr> <tr> <td>갱</td><td></td><td></td><td>매</td><td>갱</td><td></td><td>매</td><td>갱</td><td></td><td>매</td><td>갱</td><td></td> </tr> <tr> <td>매</td><td>갱</td><td></td><td>매</td><td>갱</td><td></td><td>매</td><td>갱</td><td></td><td>매</td><td>갱</td><td></td> </tr> </table>		1	2	3	2	2	3	3	2	3	4	2	3	간		지	간		지	간		지	간		지	상쇠			부쇠			상쇠			부쇠			1	2	3	2	2	3	3	2	3	4	2	3	갱			매	갱		매	갱		매	갱		매	갱		매	갱		매	갱		매	갱	
	1	2	3	2	2	3	3	2	3	4	2	3																																																															
간		지	간		지	간		지	간		지																																																																
상쇠			부쇠			상쇠			부쇠																																																																		
1	2	3	2	2	3	3	2	3	4	2	3																																																																
갱			매	갱		매	갱		매	갱																																																																	
매	갱		매	갱		매	갱		매	갱																																																																	
장단 재구 성	<p>■ 팽과리 장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상쇠</td><td></td><td></td><td>부쇠</td><td></td><td></td><td>상쇠</td><td></td><td></td><td>부쇠</td><td></td><td></td> </tr> <tr> <td>1</td><td>2</td><td>3</td><td>2</td><td>2</td><td>3</td><td>3</td><td>2</td><td>3</td><td>4</td><td>2</td><td>3</td> </tr> <tr> <td>갱</td><td></td><td></td><td>매</td><td>갱</td><td></td><td>매</td><td>갱</td><td></td><td>매</td><td>갱</td><td></td> </tr> <tr> <td>매</td><td>갱</td><td></td><td>매</td><td>갱</td><td></td><td>매</td><td>갱</td><td></td><td>매</td><td>갱</td><td></td> </tr> </table>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1</td><td>2</td><td>3</td><td>2</td><td>2</td><td>3</td><td>3</td><td>2</td><td>3</td><td>4</td><td>2</td><td>3</td> </tr> <tr> <td>간</td><td></td><td>지</td><td>간</td><td></td><td>지</td><td>간</td><td></td><td>지</td><td>간</td><td></td><td>지</td> </tr> </table> <p>장단을 시작할 때는 먼저 짝드름으로 시작하여 쇠끼리 노는 모습을 연출하다가 다시 휘모리로 전체가 함께 연주한다. 다시 짝드름으로 노는 모습을 표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장단과 함께 추임새를 하기도 한다.</p>		상쇠			부쇠			상쇠			부쇠			1	2	3	2	2	3	3	2	3	4	2	3	갱			매	갱		매	갱		매	갱		매	갱		매	갱		매	갱		매	갱		1	2	3	2	2	3	3	2	3	4	2	3	간		지	간		지	간		지	간		지	
상쇠			부쇠			상쇠			부쇠																																																																		
1	2	3	2	2	3	3	2	3	4	2	3																																																																
갱			매	갱		매	갱		매	갱																																																																	
매	갱		매	갱		매	갱		매	갱																																																																	
1	2	3	2	2	3	3	2	3	4	2	3																																																																
간		지	간		지	간		지	간		지																																																																

1	2	3	2	2	3	3	2	3	4	2	3
웃			갯					갯	갯		
웃			갯					갯	갯		
갯			갯			갯			갯		
갯			갯			갯			갯		

■ 싸잡이 맺이 장단

1	2	3	2	2	3	3	2	3	4	2	3
개	갠					갠			갠		
갠		갠		갠	갠	갠	갠	개개	개개	...	...

싸잡이를 맺고자 할 때는 상쇠가 휘모리 한 장단을 손을 들어 연주하고 위의 맺이 장단으로 전체가 마무리한다. 일채가 점점 빨라지는 느낌과 매우 유사하며 마지막에 연풍대를 돌아 화려함과 신명이 느껴지도록 지도한다.

■ 징

1	2	3	2	2	3	3	2	3	4	2	3
징											

■ 장구

1	2	3	2	2	3	3	2	3	4	2	3
덩			덩			궁		따	궁		

꽝과리를 제외한 나머지 악기의 장단은 첫째 마당 휘모리장단과 동일하다.

■ 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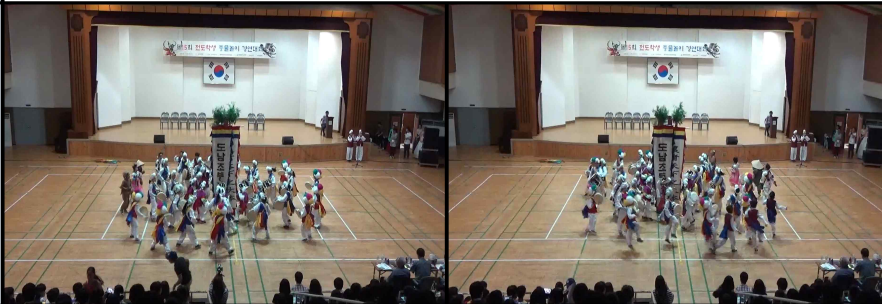
1	2	3	2	2	3	3	2	3	4	2	3
등			등			두			두		
(빵)			(빵)			(통)			(통)		

■ 소고

삼채의 네 박 동작을 기본으로 삼되 한 장단에 오금을 두 번으로 표현하기에 둘, 셋, 넷 장단을 하나로 연결하여 빠르게 표현한다.

■ 잡색

싸잡이 장단의 오금에 맞추어 어깨춤을 추게 하여 풍물놀이 공연의 신명을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수 업 내 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석 파악하기</li> <li>▷ 건강상태 및 준비상태 파악하기</li> <li>▷ 싸잡이 장단의 구름 익히기</li> <li>▷ 싸잡이 장단 익히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악기별로 돌아가며 장단을 익힌다.</li> </ul> </li> <li>▷ 싸잡이 장단 합주하기</li> <li>▷ 싸잡이 장단 오금 및 동작 익히기</li> <li>▷ 학습 정리 및 차시 예고</li> <li>▷ 악기 정리 및 주변 정리하기</li> </ul>
구 현 장 면	
수 업 주 안 점  (유의점)	<p>싸잡이장단은 첫째 마당의 휘모리장단과 동일함을 알려주고 쇠의 주고받는 모습을 잘 구현하기 위해 쇠끼리의 연습을 더 많이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휘모리장단의 강세를 잘 구분하여 지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p> <p>풍물놀이에서 싸잡이는 가장 빠르고 몸동작이 역동적임을 인지시키고 몸동작을 크게 하도록 지도하며 추임새와 더불어 신명나는 느낌을 구현하도록 반복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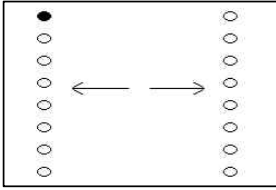
### 다. 셋째 마당

둘째마당의 다양한 진풀이 공연을 펼친 후 셋째마당은 악기별 개인놀이나 열두발 상모, 버나놀이 등의 잡색놀이, 관객과 함께 하는 대동(大同)놀이 등 관객과 함께 호흡하는 공연 마당이라 할 수 있다. 악기 위주의 공연에서 다양한 잡색놀이를 펼침으로서 관객들의 호응을 이끌어 내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풍물 악기 이외의 새로운 장면을 연출하는 마당이다.


1) 덩덕쿵

셋째 마당의 관객과 함께 어울리는 대동놀이 부분이다. 상쇠는 관객들을 향해 관객과 치배들을 부르는 화동~(예이)을 시작으로 오늘 공연의 목적을 설명하고 관중들과 함께 뛰어놀자는 재담을 한 뒤 장단에 맞춰 일정한 진의 형식 없이 자유롭게 관객들과 어울리는 장단이다.

< 표 IV-21 > 덩덕쿵 장단의 지도방법

학 주 제	덩덕쿵	소요 차시	1차시																								
학 습 목 표	1. 덩덕쿵 장단의 구음을 알고 악기로 연주할 수 있다. 2. 덩덕쿵 장단을 연주하며 입장하는 발걸음을 익힐 수 있다.																										
<b>교 수 · 학 습 활 동</b>																											
학 습 단	장단 배경	<p>덩덕쿵 장단은 이채류의 변형장단으로 오금에 맞춰 자유롭게 뛰면서 칠 수 있는 장단이다. 관객과 함께 손을 잡고 뛰거나 치배끼리 마주 보고 덩덕쿵 장단을 치며 자유로운 분위기를 연출한다.</p> <p>본 지도 방안에서는 호남 우도 고창군의 덩덕쿵 장단을 인용하여 지도하기로 한다.</p>																									
	원형 장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1</td><td>2</td><td>3</td><td>2</td><td>2</td><td>3</td><td>3</td><td>2</td><td>3</td><td>4</td><td>2</td><td>3</td> </tr> <tr> <td>간</td><td></td><td></td><td></td><td></td><td>지</td><td>간</td><td></td><td></td><td>간</td><td></td><td></td> </tr> </table>		1	2	3	2	2	3	3	2	3	4	2	3	간					지	간			간		
	1	2	3	2	2	3	3	2	3	4	2	3															
간					지	간			간																		
장단 재구 성	<p>■ 팽과리 장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1</td><td>2</td><td>3</td><td>2</td><td>2</td><td>3</td><td>3</td><td>2</td><td>3</td><td>4</td><td>2</td><td>3</td> </tr> <tr> <td>간</td><td></td><td></td><td></td><td></td><td>지</td><td>간</td><td></td><td></td><td>간</td><td></td><td></td> </tr> </table> <p>장단을 시작할 때는 먼저 상쇠가 한 장단을 내어 주며 시작하여 전체가 함께 연주한다. 특별한 진풀이 없이 관객과 함께 어울려 노는 모습을 연출하도록 한다. 장단을 마무리 할 때에는 상쇠가 미지기진의 제일 앞으로 가서 연주를 하면 나머지 치배들도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 미지기진을 완성한다.</p>		1	2	3	2	2	3	3	2	3	4	2	3	간					지	간			간			
1	2	3	2	2	3	3	2	3	4	2	3																
간					지	간			간																		
		<미지기진 모습>																									

	<p>■ 징</p> <table border="1" data-bbox="531 474 1278 553"> <tr> <td>1</td><td>2</td><td>3</td><td>2</td><td>2</td><td>3</td><td>3</td><td>2</td><td>3</td><td>4</td><td>2</td><td>3</td> </tr> <tr> <td>징</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able> <p>■ 장구</p> <table border="1" data-bbox="531 622 1278 701"> <tr> <td>1</td><td>2</td><td>3</td><td>2</td><td>2</td><td>3</td><td>3</td><td>2</td><td>3</td><td>4</td><td>2</td><td>3</td> </tr> <tr> <td>덩</td><td></td><td></td><td></td><td></td><td></td><td>궁</td><td></td><td>따</td><td>궁</td><td></td><td></td> </tr> </table> <p>■ 북</p> <table border="1" data-bbox="531 770 1278 848"> <tr> <td>1</td><td>2</td><td>3</td><td>2</td><td>2</td><td>3</td><td>3</td><td>2</td><td>3</td><td>4</td><td>2</td><td>3</td> </tr> <tr> <td>등</td><td></td><td></td><td></td><td></td><td></td><td>등</td><td></td><td></td><td></td><td></td><td></td> </tr> </table> <p>■ 소고</p> <div data-bbox="531 916 1278 978"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이채 장단의 소고 동작과 동일하다.</p> </div> <p>■ 잡색</p> <div data-bbox="531 1046 1278 1160"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덩덕궁 장단의 오금에 맞추어 어깨춤을 추게 하여 풍물놀이 공연의 신명을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p> </div>	1	2	3	2	2	3	3	2	3	4	2	3	징												1	2	3	2	2	3	3	2	3	4	2	3	덩						궁		따	궁			1	2	3	2	2	3	3	2	3	4	2	3	등						등					
1	2	3	2	2	3	3	2	3	4	2	3																																																														
징																																																																									
1	2	3	2	2	3	3	2	3	4	2	3																																																														
덩						궁		따	궁																																																																
1	2	3	2	2	3	3	2	3	4	2	3																																																														
등						등																																																																			
수 회 연 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석 파악하기</li> <li>▷ 건강상태 및 준비상태 파악하기</li> <li>▷ 덩덕궁 장단의 구름 익히기</li> <li>▷ 덩덕궁 장단 익히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악기별로 돌아가며 장단을 익힌다.</li> </ul> </li> <li>▷ 덩덕궁 장단 합주하기</li> <li>▷ 덩덕궁 장단 오금 및 동작 익히기</li> <li>▷ 학습 정리 및 차시 예고</li> <li>▷ 악기 정리 및 주변 정리하기</li> </ul>																																																																								

구 현 장	
수 업 주 안 점  (유의점)	<p>덩덕쿵 장단은 이채류의 장단으로 관객과 함께 자유스럽게 노는 모습을 연출하는 장단임을 알게 한다. 뛰고 노는 모습에서 서로 부딪치지 않게 주의하도록 지도하며 앉아 있는 관객을 끌어내어 대동(大同)의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강조하여 지도한다.</p> <p>상쇠의 재담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므로 상쇠에게 상황에 맞는 재담을 하여 관객들을 불러내게 할 수 있도록 특별한 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p>

## 2) 별달거리

별달거리는 영남지방의 가장 특색 있는 대표적인 장단으로 장단과 사설이 어울려 재미있는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장단이다. 교과서에서도 자주 소개되는 장단으로 풍물놀이와 교육과정을 연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별달거리 장단을 인용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 표 IV-22 > 별달거리 장단의 지도방법

학 습 주 제	별달거리	소요 차시	1차시
학 습 목 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별달거리 장단의 구음을 알고 악기로 연주할 수 있다.</li> <li>2. 별달거리 장단을 연주하며 미지기진의 진풍이를 할 수 있다.</li> </ol>		



**교 수 · 학 습 활 동**

<b>학 장 습 단</b>	<b>장단 배경</b>	<p>별달거리 장단은 2분박 장단으로 이채류의 네 장단이 묶여진 장단이다. 장단의 끝에는 사설과 장단을 돌아가면서 연주하여 관객들로 하여금 즐거움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장단이다. 풍물놀이 는 가무악이 종합된 연희활동이란 측면에서 소리와 장단 몸 동작을 함께 할 수 있어 효과적인 장단이다.</p> <p>본 지도 방안에서는 영남 지방의 별달거리 장단을 인용하여 지도하고자 한다.</p>																																								
	<b>원형 장단</b>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td>1</td><td>2</td><td>2</td><td>2</td><td>3</td><td>2</td><td>4</td><td>2</td></tr> <tr><td>꺅</td><td></td><td>꺅</td><td></td><td>꺅</td><td>지</td><td>꺅</td><td></td></tr> <tr><td>꺅</td><td>지</td><td>꺅</td><td>지</td><td>꺅</td><td>지</td><td>꺅</td><td></td></tr> <tr><td>꺅</td><td>지</td><td>꺅</td><td></td><td>꺅</td><td>지</td><td>꺅</td><td></td></tr> <tr><td>꺅</td><td>지</td><td>꺅</td><td>지</td><td>꺅</td><td>지</td><td>꺅</td><td></td></tr> </table> <p>&lt;사설&gt;</p> <p style="text-align: center;">하늘보고 별을 따고 땅을 보고 농사짓고          옥해드 대풍이요 내년에도 풍년익세          달아달아 밝은 달아 대낮같이 밝은 달아          어둠속에 불빛이 우리네를 비춰주네</p>	1	2	2	2	3	2	4	2	꺅		꺅		꺅	지	꺅		꺅	지	꺅	지	꺅	지	꺅		꺅	지	꺅		꺅	지	꺅		꺅	지	꺅	지	꺅	지	꺅	
	1	2	2	2	3	2	4	2																																		
꺅		꺅		꺅	지	꺅																																				
꺅	지	꺅	지	꺅	지	꺅																																				
꺅	지	꺅		꺅	지	꺅																																				
꺅	지	꺅	지	꺅	지	꺅																																				
<b>장단 재구 성</b>	<p>■ 팽과리 장단</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td>1</td><td>2</td><td>2</td><td>2</td><td>3</td><td>2</td><td>4</td><td>2</td></tr> <tr><td>꺅</td><td></td><td>꺅</td><td></td><td>꺅</td><td>지</td><td>꺅</td><td></td></tr> <tr><td>꺅</td><td>지</td><td>꺅</td><td>지</td><td>꺅</td><td>지</td><td>꺅</td><td></td></tr> <tr><td>꺅</td><td>지</td><td>꺅</td><td></td><td>꺅</td><td>지</td><td>꺅</td><td></td></tr> <tr><td>꺅</td><td>지</td><td>꺅</td><td>지</td><td>꺅</td><td>지</td><td>꺅</td><td></td></tr> </table> <p>내어주는 장단은 위의 두 장단을 상쇠가 먼저 치면 세 번째 장단부터 합주한다. 아주 여린 소리부터 아주 센 소리까지 점점 고조되는 분위기를 연출하는 데 양옆으로 벌어진 미지기 상태에서 장단의 박에 맞추어 한걸음씩 앞으로 가면서 서로 가까이 만난다. 서로 만난 후에는 사설을 하며 서로 싸우고 미는 모습을 연출한다. 상쇠 줄이 먼저 채를 들고 머리위에 들면서 부쇠 줄을 밀고, 다음 사설에서는 부쇠 줄이 상쇠 줄을 밀어붙인다. 장단을 연주하는 부분은 위의 네 장단 중에서 두 장단만을 제자리에서 연주한다. 즉 사설 부분에서만 서로 미는 모습을 연출하여 힘겨루기 모습을 구현하는 것이다.</p>	1	2	2	2	3	2	4	2	꺅		꺅		꺅	지	꺅		꺅	지	꺅	지	꺅	지	꺅		꺅	지	꺅		꺅	지	꺅		꺅	지	꺅	지	꺅	지	꺅		
1	2	2	2	3	2	4	2																																			
꺅		꺅		꺅	지	꺅																																				
꺅	지	꺅	지	꺅	지	꺅																																				
꺅	지	꺅		꺅	지	꺅																																				
꺅	지	꺅	지	꺅	지	꺅																																				

■ 징

1	2	2	2	3	2	4	2
징							
징							
징							
징							

■ 장구

1	2	2	2	3	2	4	2
덩		덩		궁	따	궁	
궁	따	궁	따	궁	따	궁	
궁	따	궁		궁	따	궁	
궁	따	궁	따	궁	따	궁	

■ 북

1	2	2	2	3	2	4	2
둥 (빵)		둥 (빵)		두 (통)		두 (통)	
둥 (빵)		두 (통)		두 (통)		두 (통)	
둥 (빵)		두 (통)		둥 (빵)		두 (통)	
둥 (빵)		두 (통)		두 (통)		두 (통)	


‘둥’과 ‘두’의 구음 구별이 어려울 경우 ‘빵’과 ‘통’으로 대신하여 지도하는 것이 학생들이 이해하기에 쉽다.

■ 소고

삼채의 소고 기본 장단에 맞추어 연주한다. 다만 셋째 장단에서는 첫째 박에서는 낭심, 둘째 박에서는 머리 위, 셋째 박에서 다시 낭심, 넷째 박에서 다시 머리 위로 동작을 변형하여 지도하여 장단의 변화에 따른 소고 동작도 변화를 주는 것이 좋다.

■ 잡색

별달거리 장단의 오금과 발림에 맞추어 어깨춤을 추가하여 풍물놀이 공연의 신명을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수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석 파악하기</li> <li>▷ 건강상태 및 준비상태 파악하기</li> <li>▷ 별달거리 장단의 구음 익히기</li> <li>▷ 별달거리 장단 익히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악기별로 돌아가며 장단을 익힌다.</li> </ul> </li> <li>▷ 별달거리 장단 오금하며 합주하기</li> <li>▷ 별달거리 장단을 치며 미지기진 진풀이하기</li> <li>▷ 학습 정리 및 차시 예고</li> <li>▷ 악기 정리 및 주변 정리하기</li> </ul>
구현 장면	
수업 주안점 (유의점)	<p>별달거리는 2분박 계열의 장단임을 알게 하고 발걸음과 장단이 정확하게 일치함을 알려 준다. 또한 장단에 맞춰 미지기 진풀이 하면서 서로 팀을 나누어 싸우는 모습을 형상화하여 관객들에게 웃음을 주는 모습을 연출하는 것도 재미있다.</p>

### 3) 매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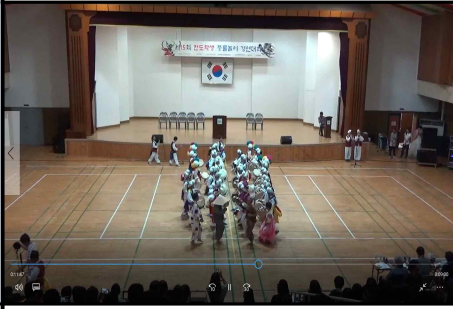

장단을 바꿀 때마다 앞의 장단을 조화롭게 연결시키며, 장단을 끝맺고자 할 때 매듭을 짓는 데 쓰이는 장단이다. 셋째 마당의 악기 중심의 공연에서 구정놀이(개인놀이)를 연희하고자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하여 매도지를 인용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앞의 풍물놀이 장단이 각 치배들의 장단이나 진풀이 위주의 공연인데 반하여 매도지를 연주하고 난 후에는 구정놀이 중심의 개인놀이의 다른 분위기의 공연이 펼쳐지도록 연출하기 위함이다.

매도지는 삼채류의 서로 다른 8장단으로 구성되어 있어 학생들이 학습하기에 어렵고 각 장단마다 발림이 서로 달라 비교적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표 IV-23 > 매도지 장단의 지도방법

학 주	습 제	매도지	소 요 차 시	2~3차시																																																																																																													
학 목	습 표	1. 매도지 장단의 구음을 알고 악기로 연주할 수 있다. 2. 매도지 장단을 연주하며 발림을 할 수 있다.																																																																																																															
<b>교 수 · 학 습 활 동</b>																																																																																																																	
학 장	습 단	장단 배경	매도지 장단은 삼채류의 변형된 장단으로서 서로 다른 분위기의 공연으로 전환하거나 공연을 마무리하고자 할 때 쓰이는 장단이다. 지역에 따라 약간 다른 모습으로 연주되기도 하나 비교적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본 지도 방안에서는 호남 우도 이리 농악의 긴매도지 장단을 인용하여 지도하고자 한다.																																																																																																														
		원형 장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1</td><td>2</td><td>3</td><td>2</td><td>2</td><td>3</td><td>3</td><td>2</td><td>3</td><td>4</td><td>2</td><td>3</td> </tr> <tr> <td>개</td><td>개</td><td>갱</td><td></td><td>개</td><td>개</td><td>갱</td><td></td><td>개</td><td>개</td><td>갱</td><td></td> </tr> <tr> <td>개</td><td>갱</td><td></td><td>개</td><td>갱</td><td></td><td>개</td><td>갱</td><td></td><td>개</td><td>갱</td><td></td> </tr> <tr> <td>개</td><td>개</td><td>갱</td><td></td><td>개</td><td>개</td><td>갱</td><td></td><td>개</td><td>개</td><td>갱</td><td></td> </tr> <tr> <td>개</td><td>갱</td><td></td><td>개</td><td>갱</td><td></td><td>갱</td><td></td><td>갱</td><td></td><td>갱</td><td></td> </tr> <tr> <td>개</td><td></td><td></td><td>개</td><td></td><td>지</td><td>갱</td><td></td><td>개</td><td>개</td><td>갱</td><td></td> </tr> <tr> <td>갱</td><td></td><td></td><td>갯</td><td></td><td></td><td>갱</td><td></td><td>개</td><td>개</td><td>갱</td><td></td> </tr> <tr> <td>갱</td><td></td><td></td><td>개</td><td>르르</td><td>르르</td><td>.....</td><td>.....</td><td>.....</td><td>갱</td><td></td><td></td> </tr> <tr> <td>갱</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able>			1	2	3	2	2	3	3	2	3	4	2	3	개	개	갱		개	개	갱		개	개	갱		개	갱		개	갱		개	갱		개	갱		개	개	갱		개	개	갱		개	개	갱		개	갱		개	갱		갱		갱		갱		개			개		지	갱		개	개	갱		갱			갯			갱		개	개	갱		갱			개	르르	르르	.....	.....	.....	갱			갱											
		1	2	3	2	2	3	3	2	3	4	2	3																																																																																																				
개	개	갱		개	개	갱		개	개	갱																																																																																																							
개	갱		개	갱		개	갱		개	갱																																																																																																							
개	개	갱		개	개	갱		개	개	갱																																																																																																							
개	갱		개	갱		갱		갱		갱																																																																																																							
개			개		지	갱		개	개	갱																																																																																																							
갱			갯			갱		개	개	갱																																																																																																							
갱			개	르르	르르	.....	.....	.....	갱																																																																																																								
갱																																																																																																																	
장단 재구 성	<p>■ 팽과리 장단</p> <p>팽과리의 장단은 위의 원형 장단과 일치하게 지도하는데 한 장단씩 분리하여 지도하는 것이 학생들이 기억하는 데 효과적이다. 각 장단마다의 발림은 다음과 같다.</p> <p>&lt;오방진의 발림(몸동작)&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첫 궁에 왼발, 둘째 궁에 오른발을 앞으로 세 번 던기</li> <li>② 첫 궁에 왼발, 둘째 궁에 오른발을 뒤로 4번 던기</li> <li>③ 첫 궁에 왼발, 둘째 궁에 오른발을 앞으로 세 번 던기</li> <li>④ 왼발 들어 두 번 차고, 왼·오른·왼발 제자리</li> <li>⑤ 오른발 들어 앞, 뒤, 앞, 마지막 궁에 왼발</li> <li>⑥ 왼발, 오른발 순으로 제자리 뛰기</li> <li>⑦ 왼발을 축으로 한 바퀴 돌기</li> <li>⑧ 갱과 함께 오른발을 들어 놓기</li> </ol>																																																																																																																

수 회 연 습	<p>■ 징</p> <p>각 장단의 맨 앞에 한 번씩 징을 쳐준다.</p> <p>■ 장구</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1</td><td>2</td><td>3</td><td>2</td><td>2</td><td>3</td><td>3</td><td>2</td><td>3</td><td>4</td><td>2</td><td>3</td> </tr> <tr> <td>궁</td><td>따</td><td>궁</td><td></td><td>궁</td><td>따</td><td>궁</td><td></td><td>궁</td><td>따</td><td>궁</td><td></td> </tr> <tr> <td>따</td><td>궁</td><td></td><td>따</td><td>궁</td><td></td><td>따</td><td>궁</td><td></td><td>따</td><td>궁</td><td></td> </tr> <tr> <td>궁</td><td>따</td><td>궁</td><td></td><td>궁</td><td>따</td><td>궁</td><td></td><td>궁</td><td>따</td><td>궁</td><td></td> </tr> <tr> <td>따</td><td>궁</td><td></td><td>따</td><td>궁</td><td></td><td>딩</td><td></td><td>궁</td><td></td><td>따</td><td></td> </tr> <tr> <td>구</td><td>궁</td><td></td><td>궁</td><td></td><td></td><td>궁</td><td></td><td>따</td><td>궁</td><td>따</td><td></td> </tr> <tr> <td>딩</td><td></td><td></td><td>궁</td><td></td><td></td><td>궁</td><td></td><td>따</td><td>궁</td><td>따</td><td></td> </tr> <tr> <td>딩</td><td></td><td></td><td>더</td><td>르르</td><td>르르</td><td>.....</td><td>.....</td><td>.....</td><td>따궁</td><td></td><td></td> </tr> <tr> <td>딩</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able> <p>■ 북</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1</td><td>2</td><td>3</td><td>2</td><td>2</td><td>3</td><td>3</td><td>2</td><td>3</td><td>4</td><td>2</td><td>3</td> </tr> <tr> <td>등</td><td></td><td>두</td><td></td><td>등</td><td></td><td>두</td><td></td><td>등</td><td></td><td>두</td><td></td> </tr> <tr> <td></td><td>등</td><td></td><td></td><td>등</td><td></td><td></td><td>등</td><td></td><td></td><td>등</td><td></td> </tr> <tr> <td>등</td><td></td><td>두</td><td></td><td>등</td><td></td><td>두</td><td></td><td>등</td><td></td><td>두</td><td></td> </tr> <tr> <td></td><td>등</td><td></td><td></td><td>등</td><td></td><td>등</td><td></td><td>등</td><td></td><td>등</td><td></td> </tr> <tr> <td></td><td>등</td><td></td><td>등</td><td>등</td><td></td><td>등</td><td></td><td></td><td></td><td></td><td></td> </tr> <tr> <td>등</td><td></td><td></td><td>등</td><td>등</td><td></td><td>등</td><td></td><td></td><td></td><td></td><td></td> </tr> <tr> <td>등</td><td></td><td></td><td>두</td><td>르르</td><td>르르</td><td>.....</td><td>.....</td><td>.....</td><td>두등</td><td></td><td></td> </tr> <tr> <td>등</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able> <p>■ 소고, 잡색</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p>팽과리의 발림과 동일하게 연주한다.</p> </div>	1	2	3	2	2	3	3	2	3	4	2	3	궁	따	궁		궁	따	궁		궁	따	궁		따	궁		따	궁		따	궁		따	궁		궁	따	궁		궁	따	궁		궁	따	궁		따	궁		따	궁		딩		궁		따		구	궁		궁			궁		따	궁	따		딩			궁			궁		따	궁	따		딩			더	르르	르르	.....	.....	.....	따궁			딩												1	2	3	2	2	3	3	2	3	4	2	3	등		두		등		두		등		두			등			등			등			등		등		두		등		두		등		두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두	르르	르르	.....	.....	.....	두등			등												<p>▷ 출석 파악하기</p> <p>▷ 건강상태 및 준비상태 파악하기</p> <p>▷ 매도지 장단의 구름 익히기</p> <p>▷ 매도지 장단 익히기</p> <p style="padding-left: 20px;">※ 악기별로 돌아가며 장단을 익힌다.</p> <p>▷ 매도지 장단 합주하기</p> <p>▷ 매도지 장단의 발림 익히기</p> <p>▷ 매도지 장단의 발림 익히기</p> <p>▷ 매도지 장단 치면서 발림 하기</p> <p>▷ 학습 정리 및 차시 예고</p> <p>▷ 악기 정리 및 주변 정리하기</p>
	1	2	3	2	2	3	3	2	3	4	2	3																																																																																																																																																																																																														
궁	따	궁		궁	따	궁		궁	따	궁																																																																																																																																																																																																																
따	궁		따	궁		따	궁		따	궁																																																																																																																																																																																																																
궁	따	궁		궁	따	궁		궁	따	궁																																																																																																																																																																																																																
따	궁		따	궁		딩		궁		따																																																																																																																																																																																																																
구	궁		궁			궁		따	궁	따																																																																																																																																																																																																																
딩			궁			궁		따	궁	따																																																																																																																																																																																																																
딩			더	르르	르르	.....	.....	.....	따궁																																																																																																																																																																																																																	
딩																																																																																																																																																																																																																										
1	2	3	2	2	3	3	2	3	4	2	3																																																																																																																																																																																																															
등		두		등		두		등		두																																																																																																																																																																																																																
	등			등			등			등																																																																																																																																																																																																																
등		두		등		두		등		두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두	르르	르르	.....	.....	.....	두등																																																																																																																																																																																																																	
등																																																																																																																																																																																																																										

구 장 현 면		
		
	수업 주안점 (유의점)	
	매도지 장단은 공연의 분위기를 전환하거나 마무리할 때 쓰이는 장단임을 알게 하고, 한 장단마다 분리하여 지도한다. 장단을 다 외워서 연주 가능할 때 발림을 따로 지도하고, 나중에 장단과 발림을 함께 지도하는 것이 초등학생이 이해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다.	

#### 4) 구정놀이(개인놀이)




구정놀이는 전체 악기의 합주된 진풀이 형식이 아니라 악기 개별로 또는 잡색의 연기나 상모나 버나 등의 묘기를 선보이는 놀이형태를 말한다. 이 때 각 개인 놀이에 따라서 악기들은 반주를 연주해 주거나 추임새로 흥을 돋우는 역할을 해준다. 지역별로 다양한 잡색놀이가 연희되고 있으나 본 지도방안에서는 고창 소고 놀음과 버나놀이, 열두발 상모를 구정놀이로 표현하고자 한다.

< 표 IV-24 > 구정놀이의 지도방법

학 주 제	구정놀이	소요 차시	풍물 시간 개별 지도
학 습 목 표	1. 각 구정놀이의 연희 방법을 알고 몸으로 표현할 수 있다. 2. 장단에 맞게 각 구정놀이를 발표할 수 있다.		



교 수 · 학 습 활 동

학 내 습 용 이 구 현 장 면	장단 배경	각 지역마다 다양하게 표현되는 구정놀이를 초등학교 실정에 맞게 지도하도록 한다.	
	고 창 소 고 놀 이		
		소고춤 입장 장면	소고춤 원진 대형
			
		소고춤 발마치 장면	소고춤 연풍대 장면
			
		소고춤 콩 심기 동작 장면	소고춤 안으로 모이는 장면
			
		소고춤 발마치 장면	소고춤 퇴장 장면

학  
내  
습  
용

버  
나  
놀  
이  
구  
현  
장  
면



버나놀이 입장과 인사 장면



버나놀이 던지기 준비 장면



버나놀이 한 번, 두 번 던지기 장면



버나놀이 세 번 던지기 장면



버나놀이 개인기 장면



버나놀이 개인기 장면



버나놀이 주고받기 장면



버나놀이 우산 공연 장면



학 내 수 업	열 두 발 상 모 구 현 장 면		
		열두발 상모 입장 장면	열두발 상모 개구리 뛰기 장면
			
		열두발 다리 꼬기 장면	열두발 앞으로 옆드려 뒤집기 장면
			
		열두발 세워 돌리기 장면	열두발 세워 반대 방향 돌리기 장면
수 업 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석 파악하기</li> <li>▷ 건강상태 및 준비상태 파악하기</li> <li>▷ 오늘 학습할 구정놀이 동작 살펴보기</li> <li>▷ 구정놀이 익히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구정놀이 파트별로 각자의 구정놀이 동작 익히기</li> </ul> </li> <li>▷ 오늘 연습한 구정놀이 발표하기</li> <li>▷ 잘 된 부분과 안 되는 부분 자기 평가하기</li> <li>▷ 학습 정리 및 차시 예고</li> <li>▷ 악기 정리 및 주변 정리하기</li> </ul>		

수업 주안점  (유의점)	구정놀이는 각 파트별로 그동안 같고 닮은 기예를 선보이는 공연이다. 보통 악기연주와 다르게 자신들만의 작은 공연을 선보이기 위해 수업 시간마다 정해진 동작을 연습해야 한다. 교사는 날마다 준비된 학습 목표를 제시하고 스스로 연습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풍물놀이 공연은 많은 악기를 교사가 직접 지도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 배분을 잘 해야 한다. 풍물 캠프나 별도의 자투리 시간을 확보하여 구정놀이의 몸동작이나 연희 방법을 개별적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다.
------------------------	--

#### 5) 인사굿

모든 공연이 끝나고 두 번의 인사를 하고 공연을 마무리 한다. 첫째 인사는 공연을 펼쳤던 연주자들이 서로 마주 보면서 인사를 하고 두 번째 인사는 관객을 보고 인사한다. 인사굿은 둘째 마당의 인사굿 부분을 참고하여 지도한다.

#### 6) 삼채 퇴장

인사가 끝난 후 공연장을 빠져 나가는 장단으로 삼채 장단을 이용한다. 앞서 밝힌 것처럼 삼채장단의 사람의 자연스런 발걸음에 가장 적합한 장단이므로 삼채 장단을 이용하도록 한다. 삼채 장단은 첫째 마당의 삼채 입장부분의 장단을 참고하여 지도한다.

< 표 IV-25 > 삼채 퇴장 구현 장면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특정한 풍물놀이 존재하지 않은 지역에서 초등학교의 풍물놀이 교육은 어떠한 방향으로 지도되어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실제적인 방법을 찾기 위하여 고안된 연구이다.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예술문화 지도는 그 지역의 오래된 전통문화를 보존·계승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문화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키워나가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제주 지역의 대표적인 무형문화재라 할 수 있는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을 접목한 풍물놀이 지도 방안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은 국가무형문화재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그 보존 가치를 높게 평가 받고 있지만, 그와 반대로 지역민이나 학생들에게 상대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할뿐더러 관심도 적은 편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학생들의 풍물놀이 교육을 통하여 풍물놀이 자체에 대한 학습은 물론, 지역 문화를 이해하는 계기가 된다면 그 교육적 가치는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연구는 초등학교 4, 5, 6학년을 대상으로 제주 무가를 접목한 풍물놀이 지도방안을 마련하여 적용하였으며, 그 과정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번 연구 주제와 관련한 우리나라 풍물놀이와 제주 지역의 특수성이 갖는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의 유래 및 특징을 살펴보고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도록 노력하였다. 주제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교육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구체적인 지도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지기 때문이다.

둘째, 우리나라 국가나 지역문화재로 지정된 여러 지역의 풍물놀이를 살펴본 후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지도하는 데 적합한 풍물놀이 장단을 선정하였다. 우리나라 각 지역별로 보존되어 대표적인 풍물놀이 중 웃다리 지역의 평택 농악과 호남좌도 지역의 임실 필봉굿, 호남 우도 지역의 이리농악과 고창농악, 영남 지역의 사물놀이 장단과 진주·삼천포 제12차 농악에서 주로 사용되는 장단을 선정하여 ‘기경결해’의 민속악 구성원리에 입각하여 각 지역의 특수성을 살리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그리고 교과서에서 주로 다루지는 장단을 살펴보고 이를 지도방안에 포함함으로써 학생들이 장단을 접하는 데 친숙함을 느끼도록 하였으며, 풍물놀이의 진풀이나 오금에 있어서도 초등학교의 신체 발달을 고려한 지도방법을

구안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우리 장단에 대한 이해는 물론 장단의 화려함보다는 우리 문화의 신명과 어울림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배우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셋째, 지역문화의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지역 문화의 특수성을 학생들에게 지도하기 위하여 제주 지역의 오래된 민속 문화 중 풍물놀이와 어울릴만한 제재를 선정하고 풍물놀이와 접목하여 지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제주는 무속신앙이 다른 지역에 비해 발달하였으며, 그 중 문화적으로 가치가 높다고 인정된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을 선택하고, 풍물놀이의 장단과 함께 자연스럽게 접목할 수 있는 무가와 굿 장단을 선정하여 지도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풍물놀이 교육뿐만 아니라 제주의 지역 문화재를 쉽게 접하고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본 연구는 특정 풍물놀이가 존재하지 않은 지역에서의 풍물놀이 지도방법과 지역의 문화예술을 공교육에서 접목 활용하고자 할 때 참고할만한 자료가 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농악이 'UNESCO 세계인류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세계적으로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받는 이 시기에 본 연구가 학교 현장에서 풍물놀이를 지도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풍물놀이뿐만 아니라 지역 예술 문화 전반에 관한 관심과 이해를 토대로 우리 지역의 문화,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문화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길 기대해본다.

## 참 고 문 헌

### 1. 단행본

- 김양기, 『한국 민속의 뿌리』, 조선일보사 출판부, 1987.
- 정병호, 『농악』, 열화당, 1986.
-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 자연유산과 민속문화』, 이지콤, 2008.
- 진성기, 『제주도 무가 본풀이 사전』, 민속苑, 1990.
- 진옥섭, 『북치고 장구치고』, 동녘, 1991.
-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 전통연희 이해와 실제 I』, 삼광문화, 1998.
- 한국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 『한국의 농악』, 수서원, 1994.
- 현용준, 『제주도 마을 신앙』, 탐라문화연구소, 2013.
- 현용준, 『제주도 무속 연구』, 집문당, 1986.
- 현용준, 『제주도 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 2. 학위논문

- 강현아, “장단학습을 위한 놀이개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2010.
- 고현민, “제주도 영등굿 연구 -요왕맞이 마당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음악전공 석사학위 논문, 2004.
- 권은영, “20세기 풍물굿의 변화 양상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08.
- 김명희, “제주 무가 중 ‘삼공본풀이’를 활용한 음악극 지도방안”,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음악전공 석사학위 논문, 2013.
- 김미영, “제주도 칠머리당 영등굿의 구성 및 북가락 연구 -용왕맞이에 한하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1995.
- 김복연, “영남사물가락 지도 방안 연구 -초등학교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국악교육대학원 국악초등교육 전공 석사학위논문, 2004.

- 김지수, “제주 칠머리당굿의 형식과 춤사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전통 문화예술대학원 전통무용학과전공 석사학위 논문, 2003.
- 김형진, “제주도 칠머리당 영등굿 무가연구”,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악교육 전공 석사학위 논문, 2002.
- 김희숙, “제주도 칠머리당굿 12제차에 나타난 무용연구”,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무용전공 석사학위논문, 2001.
- 박정미, “경기도 평택 풍물굿 中 춤사위 연구”, 수원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1991.
- 박천수, “초등학교 단계별 풍물굿 지도 방안”,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 전공 석사학위논문, 2002.
- 송정희, “제주도 굿 제차 중 〈석살림〉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 석사학위 논문, 2015.
- 시지은, “호남 우도 농악 판굿의 구성 원리”, 경기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3.
- 오승재, “사물놀이 지도를 위한 가락 분석 연구”, 중앙대학교 국악교육대학원 국악포괄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2007.
- 유경옥, “호남 우도농악을 활용한 초등학교 농악교육 프로그램 개발”, 한국교원 대학교 대학원 체육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2011.
- 이명훈, “고창농악 판굿 가락 형성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한국음악학과 박사학위논문, 2014.
- 이연호, “지역화 교육과정을 위한 파주 금산리 풍물놀이 지도 방안”, 인천교육 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음악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2003.
- 이영배, “호남 지역 풍물굿의 ‘잡색놀이’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06.
- 이유신, “제주도 건입동 칠머리당 영등굿의 연행 기호 분석”, 성균관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언론매체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3.
- 이중수, “한국 풍물굿 장단의 구성 원리와 미적 형식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예술 문화와 영상매체 협동과정 박사학위논문, 2015.
- 이지영, “교과통합을 통한 농악 지도방안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초등음악 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2016.



- 인치규, “**풍물굿의 연행 예술적 특성 지도를 위한 창작 풍물놀이 활용방안 - 계발활동을 중심으로-**”,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음악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2006.
- 임영덕, “**초등학교 풍물놀이 지도방안 연구 -임실필봉농악의 ‘놀이굿’을 중심으로-**”, 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악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2014.
- 정세운, “**사물놀이의 장단분석**”, 동아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년  
 제주도교육청, “**제주의 전통문화**”, (제주도인쇄공업협동조합 대영인쇄사, 1996), 478~480쪽, 486~489쪽 요약정리
- 채성희,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풍물놀이 지도 방안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초등음악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2012.
- 최세름, “**지역예술문화를 활용한 통합 수업 지도방안 연구 -평택농악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2015.
- 최종희, “**진주·삼천포 12차 농악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기악전공 석사학위논문, 2002.
- 한승희, “**제주도 굿에 대한 연구 -영감놀이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무용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2.
- 한진오, “**제주도 입춘굿의 연행원리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 석사학위 논문, 2007.
- 황나영,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의 음악적 구성과 특징**”, 한양대학교 대학원 국악학과전공 석사학위 논문, 2011.
- 황삼열, “**평택농악 원형에 관한 연구**”, 추계예술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악교육 정책전공 석사학위논문, 2006.

### 3. 인터넷사이트

문화콘텐츠닷컴 > 문화원형라이브러리 > 주제별 문화원형 > 종교/신앙 > 한국의 굿  
[http://www.culturecontent.com/content/contentView.do?search\\_div=CP\\_THE&search\\_div\\_id=CP\\_THE002&cp\\_code=cp0444&index\\_id=cp04440271&content\\_id=cp044402710001&search\\_left\\_menu=8](http://www.culturecontent.com/content/contentView.do?search_div=CP_THE&search_div_id=CP_THE002&cp_code=cp0444&index_id=cp04440271&content_id=cp044402710001&search_left_menu=8)

## A B S T R A C T \*

### Pungmul-nori Utilizing Jeju Island's Shaman Songs A Research on Guidance Method (With Elementary Schools as the Center)

Jang, Jung Ju

Major in Elementary Musik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Cho, Young Bae

On November 27, 2014, a good news was heard. It was the news that Korean Farmers' Music was decided to be registered as a UNESC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at the 9th Intangible Heritage Committee conference in Paris, France. It can be said that Pungmul-nori\*\*), the

---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conferred in February, 2011.

\*\*\*) It was decided to call the Korean Farmers' Music, which was called in various ways, 'Pungmul-nori' in the 「Unified Draft for the Contents of Korean Traditional Music Education at the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I)」(1994) by the National Center for Korean Traditional Performing Arts and the National Korean Music Education Council, and also in this research we decided to call the Korean Farmers' Music Pungmul-nori since the term is most used at the elementary school field.



representative of Korean traditional culture, has been acknowledged in the world and that it has the implication that it is our valuable cultural heritage to be preserved in the future, on the background of this.

Although various efforts are being developed to preserve and inherit our traditional culture at schools, we need to rethink once again the question as to whether the education is being conducted more systematically than in the past as much as the value registered in UNESCO.

This paper started from a fundamental question of how the education of Pungmul should be conducted in the areas where there are no special cultural assets of Pungmul-nori. Of course, i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whose original forms have been well preserved remain in the areas, you will have to consider the ways to preserve the cultural assets of the areas but, if not, it will be right thing to newly search for the ways to develop Pungmul-nori, the Korean traditional music, more in another aspect.

Especially, since it was considered that it is very important to ponder on how to localize Pungmul-nori in elementary schools where the importance of arts education is emphasized and to ponder on the most practical guidance method on the spot, this study started.

This research proceeded in order to search for the guidance method for Pungmul-nori most suitable for the elementary school curriculum considering the level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with the method as follows:

First, we take a look at the traditional music or folk culture left in the local areas in the first place, and select materials that can be engrafted.

Second, we take a look at representative cultural assets related to Pungmul-nori in each local area, and select rhythms most suitable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possible to reflect the original taste of Pungmul-nori.

Third, through the above process, we prepare a guidance method for Pungmul-nori suitable for the characteristics of each local area, reconstruct it

suitable for the levels of the students, and develop meaningful educational activities that can succeed to the soul and spirit of our ancestors in the school field.

People often say, "The experiences in childhood are lifelong." Like the words, the experiences in childhood will be left as cherished memories impossible to be forgotten by our children even after they grow up, and so making them such experiences may be an important task to preserve and inherit our culture as many people insist. Though it is insufficient research, I hope that it could be a little help for those who worry about guidance on Pungmul-nori or our traditional music suitable for the characteristics of each local area in the school field.

Key words: Jeju Island's shaman songs, guidance method of Pungmul-nori